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에 관한 연구 -

2007. 12

김성귀 · 홍장원 · 이성우 · 최지연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김성귀 : 제1장, 제5장, 제6장, 제7장

◆ 연구진

- 홍장원 : 제2장 제2절, 제3장 제2절, 제4장, 제5장 제1절
- 이성우 : 제2장 제3절, 제3장 제1절, 제2절, 제5장 제2절
- 최지연 : 제2장 제1절, 제3장 제1절, 제2절, 제5장 제2절

◆ 외부 집필진

- 임청규(그리드이엔씨) : 제5장 제3절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 윤원근 (협성대학교 교수)
- ◆ 조영국 (협성대학교 교수)
- ◆ 전성래 (해양수산부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은 경제발전 중심의 국가정책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의해 가속화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하였다. 즉, 도시의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집중과 더불어 생태환경 파괴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유출과 더불어 고령화의 진전, 도시와의 소득 격차 등으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역격차 해소를 통하여 상생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소득 증대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삶의 질적 향상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정현안 과제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안공간, 어촌공간, 항만/어항공간 등 연안을 둘러싼 제반환경여건과 문제점, 미래 발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사례연구와 더불어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안의 환경여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오염, 자연재해, 연안 침식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어촌사회에서는 인구 및 소득 감소, 문화, 복지, 교육여건의 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항만/어항지역은 난개발, 관광자원화 미흡, 향후 정비 방안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특히 연안 공간, 어촌 공간, 항만 공간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핵심 분야이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미래상을 전망한 결과,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어메니티가 넘치는 어촌·어항지역으로의 변화와 관광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연안공간에 대한 종합적 여건분석과 더불어 국정과제의 정책목표, 해양수산부의 비전과 과제를 바탕으로 연안공간에 대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향후 연안공간의 조성은 연안환경정비와 더불어 어촌정주기능, 수역기능, 물류 등 배후 지원기능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요망되며 환경적인 리사이클 기능 고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사업의 정책추진방향으로 ‘살고 싶은 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어촌의 소득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가고 싶은 바다’의 조성을 위해서는 연안 어촌의 경관, 환경의 질제고, 어촌의 매력도 증진을 통한 도시·연안 어촌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해양수산부 내의 연안, 어촌·어항, 항만 등의 각 분야 간의 긴밀한 연계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 문화, 복지 등을 타 부처들과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동 시범사업의 발굴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 기초를 유지한다면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의 조성이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집필에 참가한 연구자, 그리고 연구수행에 도움을 주신 관계 전문가, 공무원 및 연구자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이 정 환

목 차

ABSTRACT	i
----------	---

요 약	iii
-----	-----

제 1 장 서 론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내용	3
4. 연구범위와 방법	5
5. 기대효과	6

제 2 장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7
---------------------------	---

1. 연안분야	7
1) 연안경관·서식지 부문 / 7	
2) 연안재해 부문 / 10	
3) 연안 수질환경 부문 / 12	
4) 연안이용 갈등 부문 / 13	
2. 어촌분야	14
1) 우리나라 어촌의 실태 / 14	
2) 어촌의 구조적 문제 / 18	
3. 항만/어항 분야	22
1) 연안항의 현황 / 23	
2) 일반 어항 / 24	
3) 어항의 문제점 / 26	

제 3 장 미래여건 변화와 기존 사례 검토 ————— 29

1. 미래여건 변화 29
 - 1) 연안공간 미래상 / 29
 - 2) 어촌공간 미래상 / 30
 - 3) 항만/어항 미래상 / 32
2. 사례 검토 36
 -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해외 사례 / 36
 - 2) 중국 샤먼 -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된 연안도시 조성 사례 / 37
 - 3) 일본 - 어장·어항·어촌 통합관리정비 사례 / 43
 - 4) 일본 - 어항기능과 친수기능을 함께 갖춘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 / 47
 - 5)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재개장 사례 / 50
 - 6) 강진 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사례 / 51
 - 7) 평가 / 53

제 4 장 연안공간에 대한 인식도 조사 ————— 54

1. 설문조사 개요 54
 - 1) 개요 / 54
2. 인식도 조사결과 분석 55
 - 1) 연안지역 이용실태 / 55
 - 2)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평가 / 59
 - 3) 우리나라 연안/해안공간의 관리방향 / 62
 -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 67

제 5 장 개발모형 및 사례 연구 ————— 69

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전과 실천 과제 69
 - 1) 추진 배경 / 69
 - 2) 비전과 실천과제 / 70
 - 3) 5대 과제 사례 예시 / 71

2. 해양수산 분야의 비전 및 모형 검토	72
1) 비전 / 72	
2) 모형 수립 / 74	
3) 어촌 유형과 사업 추구 전략 / 76	
4) 대상 사업군 / 77	
3. 사례지역 연구	78
1) 대상지 선정 / 78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례검토 및 구축 / 83	
 제 6 장 정책 추진 방향	107
1. 정책 방향	107
1) 살고 싶은 어촌 / 107	
2) 가고 싶은 바다 조성 / 110	
2. 추진 체계	113
1) 중앙의 추진 체계 / 113	
2) 해양수산부내 추진 체계 / 115	
3)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 116	
3. 수행 정책 방안 검토	117
 제 7 장 결 론	120
참 고 문 헌	123
부 록	125

표 목 차

<표 2-1> 연안습지 면적의 변화추이	7
<표 2-2> 가로림만 연안의 해역·해안선 변화	9
<표 2-3> 우리나라 주요 태풍피해 현황	10
<표 2-4> 우리나라 연안해역 수질 변화 추이(COD 기준)	12
<표 2-5> 어가 및 어가인구	15
<표 2-6> 연안 시·군·구	15
<표 2-7> 어가인구 추이	17
<표 2-8> 어가경제지표 추이	18
<표 2-9> 어가 주택시설 현황	20
<표 2-10> 어가 상수도보급 현황	21
<표 2-11> 어촌지역의 교육시설 현황	21
<표 2-12> 어촌지역의 공연시설 현황	21
<표 2-13> 시·군별 의료기관 및 병상 수	22
<표 2-14> 어항의 종류	24
<표 3-1> 어촌 고유의 경관	31
<표 3-2>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	32
<표 3-3> 미래항만의 변화 모습	33
<표 3-4> 일본의 어촌·어항·어장 만들기 기본목표와 사업 유형	46
<표 3-5> 송도해수욕장 정비사업 내역	50
<표 4-1> 설문조사 조사설계	54
<표 4-2> 설문조사 수행체계	55
<표 4-3> 표본의 특성	55
<표 4-4> 연안(바닷가)지역 방문빈도와 방문 목적 비교	57
<표 5-1> 해양수산부의 분야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내역	77
<표 5-2> 사례지구 선정 기본요건	78
<표 5-3> 주문진읍 현황	83
<표 5-4> 주문진(주문진항내) 어촌계의 현황(2005)	84

<표 5-5> 주문진의 역사	84
<표 5-6> 주문진항 현황	85
<표 5-7> 주문진항의 수질 검토	86
<표 5-8> 주문진 어촌 발전 방향	95
<표 5-9> 자원 연계 방안	101
<표 5-10> 주문진 투자계획(안)	104
<표 5-11> 해양수산부의 분야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들과 주문진 구상과의 관련 가능성	106
<표 6-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부처간 기능과 사업 내역들	114
<표 6-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5대 주요 정책 분야별 과제	117
<표 6-3> 정부의 5대 분야별 수행 계획 과제 분류	117
<표 6-4> 해양수산부의 5대 분야별 수행 계획 과제 분류	118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2-1>	육지부 자연해안선 대 인공해안선 비율 현황	8
<그림 2-2>	해역 및 해안선 변화	9
<그림 2-3>	해안 매립 등으로 조성된 광양만 여수화학산업단지 전경 ...	9
<그림 2-4>	해양오염이 심각한 폐쇄성 내만인 마산만 전경	9
<그림 2-5>	1985년 태풍 브렌다로 울릉도 저동항 피해	11
<그림 2-6>	2003년 태풍 매미로 부산 해상호텔 전복	11
<그림 2-7>	2007년 해일로 태안군 백사장 해수욕장 방파제 훼손	11
<그림 2-8>	최근 10년간 전국 연안 적조 발생 건수	13
<그림 2-9>	신두리 해안사구를 둘러싼 갈등 현장	13
<그림 2-10>	전국 시·군·구별 어가 분포	16
<그림 2-11>	어가 인구의 노령화 추이	19
<그림 2-12>	어가의 주택 현황	20
<그림 2-13>	우리나라 연안항 위치도	23
<그림 2-14>	국가어항위치도	25
<그림 2-15>	주문진항 주변 난개발 현황	27
<그림 3-1>	미래 ULTRA Port 실현	34
<그림 3-2>	다기능 어항의 유형	35
<그림 3-3>	위안당호 정화사업 이전(좌)과 이후(우) 모습	39
<그림 3-4>	동측 모래해안(좌)과 해안사구를 안정화하기 위해 식재한 사구식생(우)	40
<그림 3-5>	파랑의 영향을 최소화한 방조제 조성(좌)과 해안순환로 건설(우)	40
<그림 3-6>	샤먼 시내와 굴랑섬 전경	41
<그림 3-7>	굴랑섬 내 해수욕장과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한 다리	42
<그림 3-8>	굴랑섬의 차 없는 거리와 전기자동차	42
<그림 3-9>	어장·어항·어촌 정비사업 기본 개념도	43

<그림 3-10> 연안재해로부터 해안보호	44
<그림 3-11> 어촌경관 정비	45
<그림 3-12> 연안재해 복구사업	45
<그림 3-13> 송도해수욕장의 정비사업 위치도	51
<그림 3-14> 마량항 개발 조감도	52
<그림 3-15> 마량항 조성 현장	52
<그림 4-1> 지난 1년간 연안(바닷가)지역 방문 빈도	56
<그림 4-2> 지난 1년간 연안(바닷가)지역 방문 목적	56
<그림 4-3> 연안의 어촌·어항 방문시 희망활동	58
<그림 4-4>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만족도	58
<그림 4-5> 우리나라 연안/해안공간의 여건에 대한 평가/원인	59
<그림 4-6> 육지공간 대비 연안/해안공간의 질에 대한 비교평가	59
<그림 4-7> 연안/해안공간 중 어촌지역의 문제점	60
<그림 4-8> 연안/해안공간 중 어촌·어항공간의 문제점	61
<그림 4-9> 연안/해안공간 중 항만/어항의 문제점	61
<그림 4-10>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문제점	62
<그림 4-11> 연안/해안공간의 체계적 관리여부와 문제점	63
<그림 4-12> 연안/해안공간 개선을 위한 중요사항 평가	63
<그림 4-13> 향후 연안/해안공간의 중요기능	64
<그림 4-14> 연안/해안공간 기능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64
<그림 4-15> 연안공간 질적 개선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65
<그림 4-16> 연안/해양공간 기능제고를 위한 정부차원 지원대책	65
<그림 4-17> 항만/어항시설의 미래 방향	66
<그림 4-18>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연안이 되기 위하여 관리해야 할 자원	66
<그림 4-19> 연안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종합분석	68
<그림 5-1> 비전과 실천과제	70
<그림 5-2> 비전 및 전략	73
<그림 5-3> 연안과 어촌, 항만 지역의 공간 기능도	75
<그림 5-4> 연안-어촌-항만/어항간 연계와 지속가능성 모델	76

<그림 5-5> 국가지정 연안항 위치도	79
<그림 5-6> 주문진항 위치 및 전경	84
<그림 5-7> 현장 토론/인터뷰를 통한 행정기관 및 어업인 요구사항	87
<그림 5-8> 경관 현황 분석도	88
<그림 5-9> 7번 국도에서 본 주문진 신리천변(좌), 주문진 신리천과 주문진 남부(우)	89
<그림 5-10> 7번 국도에서 본 주문진 북부(좌), 주문진 배후지 모습(우)	89
<그림 5-11> 현황분석 및 문제점 검토	91
<그림 5-12> 대상 지역 미래 비전	92
<그림 5-13> 주문진 기본 구상(안)	98
<그림 5-14> 사례 이미지(어촌정비구간)	99
<그림 5-15> 사례 이미지(어항정비구간)	99
<그림 5-16> 연계(Network) 계획	102
<그림 5-17> 소프트웨어 정비방안	103
<그림 6-1>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사업 정책방향과 군발위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5대과제 분야와의 관계	107
<그림 6-2> 어업외 소득 모형	109
<그림 6-3> 송림을 파괴하는 개발(좌), 어촌 횃집 간판의 돌출(우), 바닷가를 막는 시설물(아래 좌)	111
<그림 6-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114
<그림 6-5> 해양수산부 업무 체계도	115
<그림 6-6> 해양수산부의 전문위원회 구성도	115
<그림 6-7> 실무 워킹 그룹 구성도	116
<그림 6-8> 해양수산부 사업 개요	119

ABSTRACT

Making an Attractive Town to Live in - A Study on Making a Comfortable Fishing Village to Live in and an Attractive Sea Area to Go to -

People in our society are interested in how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response to this common interest,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an ongoing project called, “Creating an Attractive Town to Live In”. This study will give concrete shape to the governmental project. In addition, this study will provide a direction to accomplish a political goal “Creating a Comfortable Fishing Village to Live In and An Attractive Sea Area to Visit”, which is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conditions, problems and future development in coastal areas, fishing villages, harbors, and fishing ports along with extensive case studies and surveys. By analyzing the conditions of the coastal environment, we have found environmental pollution, natural disasters and coastal erosion in the areas. In the fishing villages, the population and income were reduced, and conditions in culture, welfare and education worsened. In the harbors and the fishing ports, we found several problems including abusive development, lack of tourism resources and future maintenance plans. Coastal areas, fishing villages and harbors are the core areas for the governmental project “Making an Attractive Town to Live In”. In light of the future prospect about these areas, we concluded that they need to be transformed into areas where they are harmonized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being safe, comfortable and environmentally clean areas. In addition these areas should be full of amenities and attractive areas for tourists. Based on our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the coastal areas and considering the political goal of the governmental project and the vision and project of MOMAF, we have established a direction for the project “Making an Attractive Town to Live in” for the coastal areas.

Future development of the coastal areas should consider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roles of fishing village settlements, sea zones, sea services and supply functions, along with environmental recycling to create a synergistic effect.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conditions, improving the fishing villages’ incomes is more urgent in order to accomplish the creation of comfortable fishing villages to live in. To make a marine area attractive and appealing to visit and live in, the scenery and the environments of the coastal fishing villages should be improved to be more attractive places,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coastal areas and cities should be greatly encouraged. To advance this project more efficiently, the first thing that should be accomplished is for MOMAF to establish a close network among coastal areas, fishing villages, ports, and harbors. For the improvements needed for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which MOMAF cannot carry out, MOMAF should develop some exploratory joint projects so that they can cooperate with other ministries to perform these tasks. If they can sustain this direction of political cooperation, our goals for making a comfortable fishing village to live in and an attractive sea area to go to will be realized even sooner than we had previously expected.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미래 사회는 삶의 질 향상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켜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모토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안 공간, 어촌공간, 항만 공간분야의 향후 기본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기존 연구가 주로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여론분석을 토대로 한 새로운 바다지역에 대한 개념과 정책 방향이 요망됨
- 한편 연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연안의 환경개선, 갈등의 개선 차원에서 연안통합 관리방안(2000) 등이 검토되었고 연안관리법도 제정되었으나 어촌, 어항/항만 등과의 연계는 미흡하였음
- 따라서 연안과 어촌의 전반적인 삶의 질, 공간의 질, 환경 등 종합적 측면에서 연안 어촌 지역을 고찰하고 이들 각 분야를 보다 발전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3.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연안과 어촌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과 미래상에 대하여 검토하며 관련사례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함
- 이를 통하여,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위한 개발모델 및 사례 적용 방안,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을 연구함
- 그리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사업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제도 개선 분야, 추진체계, 분야별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함

4. 연구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는 시·군 단위의 연안, 어촌, 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여건분석을 위해 각종 통계지표와 연구 자료를 토대로 문헌 조사를 실시함
- 또한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연안공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연안, 항만, 어촌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고 이들의 향후 개선 요망 사항 등을 검토하여 수요평가와 더불어 개선 방향을 도출함
- 해외 우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지 조사 및 개발 구상은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로 추진함

5.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연안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개념 도출과 더불어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기반을 마련함
- 도시민들의 어촌과 바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도시와 어촌의 상호 교류 증대를 이루는 기회를 제공함
-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연안지역 주민들의 환경여건 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제2장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1. 연안분야

1) 연안경관·서식지 부문

- 연안공간은 1960년대부터 대규모 매립·간척과 무분별한 인공구조물 조성으로 자연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연안경관과 생태계의 훼손이 늘어남
- 대표적인 연안경관이며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인 연안습지는 1987년 3,203km²에서 2005년 2,550km²로 약 20%가 매립 등으로 사라짐

2) 연안재해 부문

- 지구온난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은 연간 최고 0.6cm씩 높아져 2100년에는 59cm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
- 최근 태풍과 해일 피해도 잦아져 연안지역의 침수 피해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태풍 발생시 전국대비 연안재해 피해비중이 약 40% 정도)

3) 연안 수질환경 부문

- 부산, 인천, 경기 연안도시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 육상 기인오염원에 의해 해양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
- 연안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증가로 COD 기준 I등급 해역은 줄어들고 일부 오염우심해역은 수질 III등급 이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4) 연안이용 갈등 부문

- 연안공간은 ‘한정된 공간과 자원의 이용(use)과 배분(allocation)’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간의 충돌과 갈등은 늘 잠재해 있음
 - 시화호 간척·매립사업, 해상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구역 지정·관리과정, 바다모래 채취, 자치단체간 해상경계설정 등

2. 어촌분야

1) 우리나라 어촌의 실태

- 지난 10년간 어가인구는 4.4%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어가인구 비중은 1996년 0.7%에서 2005년에는 0.2%포인트 감소한 0.5%로 나타남
- 2006년 현재 어가소득은 평균 3천만원이며 이는 농가소득대비 92.9%,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72.6% 수준임
- 어가소득 감소 등 수산업 경영여건의 악화로 1995년 대비 2006년 어가 소득은 1.6배 증가했으나, 어가부채는 3.1배 증가함

2) 어촌의 구조적 문제

- 어촌의 활력저하
 - 어업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로 어촌사회의 활력이 저하됨
 - 향후 어촌개발정책은 정주여건이 구비된 휴양·레저·관광 공간 구축 정책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도시민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높음
- 경쟁력 있는 전문 어업인 양성 미흡
 -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예 수산경영인 육성이 절실하나, 어업인의 수산경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어업인 후계자 교육훈련을 생산기술 중심에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유통·가공, 경영 등에 대한 전문 훈련으로 전환 필요
- 생활정주여건 열악
 - 어촌은 주택시설, 상수도 보급 등 정주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미흡
 - 어촌의 교육/문화/복지/의료시설 등도 도시부에 비해 대단히 취약함

3. 항만/어항 분야

1) 연안항 및 어항 현황

- 연안항 및 어항은 그 배후에 대부분 어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어업활동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연안항/어항의 역할과 기능
 - 어업활동의 지원 및 생산기지 역할
 - 수산물의 유통기지로써 위판장 등을 통한 수산물 거래, 판매시설과 수산 가공시설로의 역할
 - 어촌과 연안 농촌지역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이자 랜드마크의 역할
 - 어항은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사회를 연결하는 교통정보기지이자 어촌의 중심기지 역할

2) 어항의 문제점

- 어촌·어항의 난개발
 - 수산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어촌은 난개발로 접근성에 제한이 따르며 시설 과밀로 인하여 방문객의 이용기피 현상이 발생
 - 어항을 중심으로 경관이 좋은 지역은 회집, 숙박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밀집되어 경관자원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
- 어항의 관광자원화 미흡
 - 어항시설을 어선과 수산물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토목구조물이자 유통 시설로 인식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다양한 역할이나 기능부여가 미흡
 - 수산업 중심의 활동기능을 강조하여 어항의 환경여건 또한 크게 열악하며 관광자원화시키기 어려움
- 사후 평가 및 관리 방향의 재정립 필요
 - 어항개발, 관리, 평가, 재정비 등의 종합 관리체계 구축 마련을 통하여 향후 이용방향을 다변화시키도록 유도
 - 어항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생산유통기능이 활성화된 곳은 보다 효과적인 생산유통기능으로 지원
 - 생산유통기능이 미흡하거나 상실된 곳은 어항재정비를 통해 관광자원화, 국민여가 공간화, 지속가능한 친환경공간으로 전환

제3장 미래여건 변화와 기존 사례 검토

1. 미래여건 변화

1) 연안공간 미래상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연안 만들기
 -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연안생태계를 보전·회복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 만들기
 - 연안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연안 지형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구축
 -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지역사회 주도의 연안 만들기
 - 지역차원의 지지와 협력의 공감대 조성
 - 지역주민 참여방안의 마련으로 스스로 관리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 어촌공간 미래상

- 도시민 이주를 위한 복합생활공간으로서 어촌
 -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가와 건강을 추구하는 풍토가 나타나면서 어촌/농촌 등에서의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함
 - 여가 및 건강을 위해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은 연고가 있거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선호함
 -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선호하는 도시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주가능 생활공간으로서 어촌은 많은 매력을 가짐
- 어촌관광지로의 변모
 - 어촌은 해수욕장, 일출/일몰, 다도해 경관, 갯벌, 어항 등 다양한 경관을 형성함
 - 생태관광 등장 이후 해양스포츠, 생태체험, 해수욕, 바다낚시, 경관감상,

역사·문화 탐방 등의 관광활동이 어촌지역에서 발생하며 관광활동 대상으로 부각됨

- 향후 어촌은 해변관광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실버타운, 세컨드 홈으로서 새로운 복합생활공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음

3) 항만/어항 미래상

○ 항만/어항 ULTRA화

- 항만은 기존 물류유통기능의 첨단화, 주변 도시기능의 흡수, 관광레저기능의 도입, 환경기능의 강화 등으로 종합항만으로 성장
- 미래에는 도시와 어촌의 종합기능을 수용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리딩(leading)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고효율·친환경의 ULTRA port로 변화
- ULTRA port는 U(ubiquitous)-port, L(leisure)-port, T(telecommunication)-port, R(recycling)-port, A(amenity)-port의 기능이 통합된 미래형 항만을 지칭

○ 어항의 다기능화

- 어항의 개발은 수산업 중심기능 외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산물유통·가공, 어촌관광, 교통, 생활거점기능 등을 포함하도록 개발 진행
- 어업활동과 함께 교통, 유통, 가공, 관광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다기능 어항의 개발

2. 사례 검토

1) 중국 샤먼 - 환경보호와 연안도시 조성 경제발전의 조화된 사례

○ 개요 :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된 연안도시 조성사례

- 1984년에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된 이후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해 해양 오염, 서식처 파괴 등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
- 1994년부터 시행한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모범적인 환경관리지역으로 변모

- 주요내용
 - 위안당호 복원사업 추진
 - 친환경적 해안순환로 건설과 굴랑섬 관광개발 등

2) 일본 - 어장·어항·어촌 통합관리정비 사례

- 추진목적: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 해양환경보전을 통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환경의 보전, 아름답고 안전하며 생동감 넘치는 해안 조성
- 사업내용
 -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기반 정비: 지역밀착형 어항·어장 만들기, 어항·어장기능 강화, 수산물 유통 효율화, 패각을 이용한 어항·어장 정비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환경 보전: 풍부한 바다의 숲 만들기, 자연조화·활용형 어항 만들기
 - 안전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안 조성: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 안전한 해안 만들기, 주민참가형 어촌 커뮤니티 만들기

3) 국내사례

- 연안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한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재개장
 - 해안침식, 난개발 등으로 폐장되었던 송도해수욕장을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재개장시켜 부산서부 해안 명소로 변화시킴
 - 해수욕장의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소득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 강진 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마량항의 다기능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 어항 및 배후지역 정비를 통하여 어촌생활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원 개발

제4장 연안공간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본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연안공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용실태,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실시함
 - 조사대상 :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 성인 남녀 중 2006년 연안/해안 공간지역 방문 경험자(유효표본 350개)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인면접조사
- 주요 조사항목
 - 연안/해안공간 지역 이용실태 파악 : 연안공간 방문횟수, 만족도, 방문시 주요 활동, 향후 희망활동
 - 연안공간에 대한 평가 : 연안공간의 문제점과 관리실태 평가
 - 향후 연안공간의 관리방향 : 연안공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향후 항만/어항 공간의 개발방향, 연안 이용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개선점

2. 인식도 조사결과 분석

- 설문조사 분석결과, 연안지역 방문빈도에서는 2회(27.1%)와 5회 이상(26.9%) 방문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바닷가지역에 대한 방문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바닷가지역 방문자들의 주요 활동으로는 수산물 먹거리 체험 및 쇼핑, 해양레포츠활동, 경관감상 등이 있으며 향후 희망활동으로는 해양레포츠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무분별한 연안매립으로 인한 연안경관과 생태계파괴, 연안수질의 악화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연안공간의 부문별 문제점을 평가한 결과, 어촌에서는 어업인 소득을 다양화시키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며 어항과 항만공간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연안공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연안의 각종 생태자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제5장 개발모형 및 사례 연구

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전과 실천 과제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에서는 인구집중, 생태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농어촌에서는 인구유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역사회의 유지 자체가 곤란한 문제 등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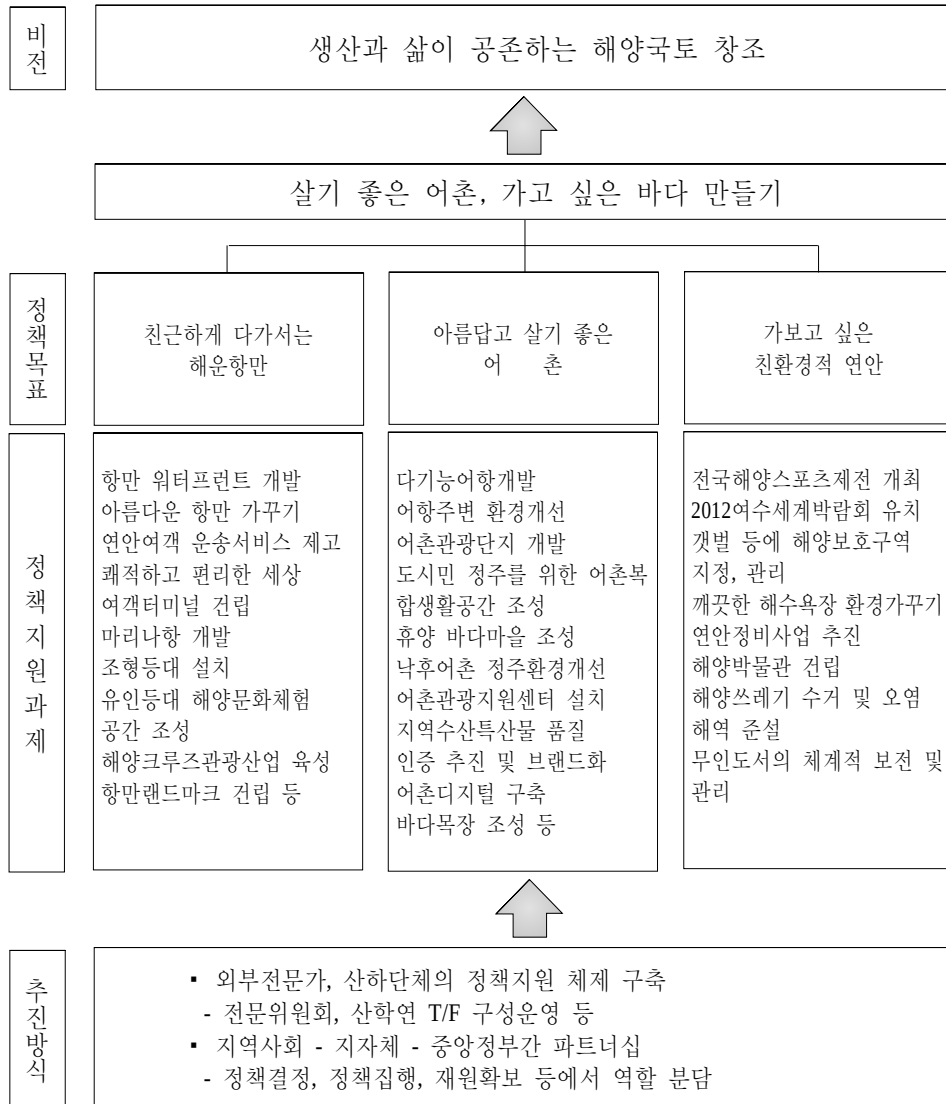
- 도시와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도시와 농촌의 상생, 개발과 환경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병행, 세계화와 지방화의 융합 등과 같이 ‘균형발전 개념의 확대’와 체계화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품격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살고 싶은 지역사회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함

2) 비전과 실천과제



2. 해양 수산 분야의 비전 및 모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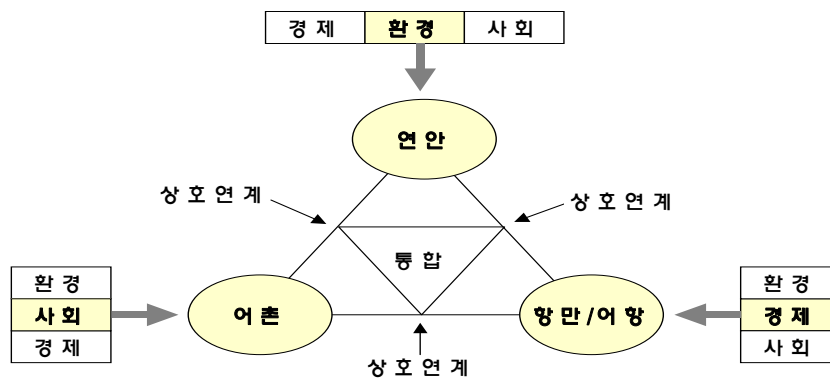
1) 비전



2) 모형 수립

- 연안 지역 : 살아있는 생태환경 유지, 방재 등의 가보고 싶은 친환경적 공간 조성
- 어촌 : 경관적으로 아름답고 편안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
- 항만/어항 : 효율적인 생산지원 및 물류의 공간이나 여기에 국민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는 친근하게 다가서는 공간 조성
- 항만-어촌-연안 통합 관리 모델 :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상호 연계되게 개발하여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 관리

연안-어촌-항만/어항간 연계와 지속가능성 모델



3) 해양수산부 분야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분야(사업 수)	대상 사업
친근하게 다가서는 해운항만(9개)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 연안여객 운송서비스 제고, 쾌적하고 편리한 해상 여객터미널 건립<신규>, 마리나항 개발, 조형등대 설치, 유인등대 해양 문화 체험 공간조성, 해양크루즈관광산업 육성, 항만랜드마크 건립 등<신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어촌(11개)	다기능어항개발, 어항주변 환경개선<신규>, 어촌관광단지 개발, 도시민 정주를 위한 어촌복합, 생활공간 조성<신규>, 휴양 바다마을 조성<신규>, 낙후어촌 정주 환경 개선,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행사,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신규>, 지역수 산특산물 품질 인증 추진, 및 브랜드화, 어촌디지털 구축, 바다목장 조성
가보고 싶은 친환경적 연안(8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갯벌 등에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 가꾸기, 연안정비사업 추진,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신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오염 해역 준설, 무인도서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3. 사례지역 연구

1) 대상지 선정

- 사례연구지의 선정은 연안지역의 다양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여건을 토대로 선정함
 - 국가 지정 연안항/어항 중 연안, 항만, 어촌 등이 집적해 있을 것
 - 항만/어항을 포함한 연안부에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지역
 - 다양한 항만/어항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
 -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항의 장소적 인지성이 높으며 다양한 문제점이 공존하는 지역
 - 어촌관련 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여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
- 사례지구 선정 : 각 연안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검토와 더불어 선정요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주문진항을 사례지구로 선정함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례검토 및 구축

- 대상지역의 비전 설정
 - 살기 좋은 주문진 조성
 - 가고 싶은 주문진 바다 조성
 - 청정한 Blue wave 주문진 조성
- 대상지역 발전 방안
 -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

구분	전략(발전방안)	주요시설	시너지효과
어촌	•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휴게시설 도입 • 다양한 여가 수요를 고려한 편익시설도입 • 관광객접근을 고려한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 • 신리천변을 주민 체육공원으로 조성	• 바다어린이 놀이터 • 위판시설 주변 편익시설 • 취미광장 및 생활체조 광장 • 이야기가 있는 테마형 쌈지공원	• 주민 체육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계
연안	• 기존 연안침식 보호시설을 활용한 환경학습 유도 • 일부구간 해안 경관립 조성 및 자연암을 이용한 조수 체험시설 도입	• 연안침식환경 학습장 • 바위놀이터 • 바다숲	• 환경학습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연계
항만	• 테마가 있는 항만 친수시설 도입 • 다양한 조망 컨셉이 있는 친수시설 도입 • 5감을 만족시키는 감성체험 친수프로그램 도입	• 오감만족 방파제 친수거리 • 주문진 이야기 거리 • 주문진 빛의 거리 • 대물낙시터	• 친수관광형 프로그램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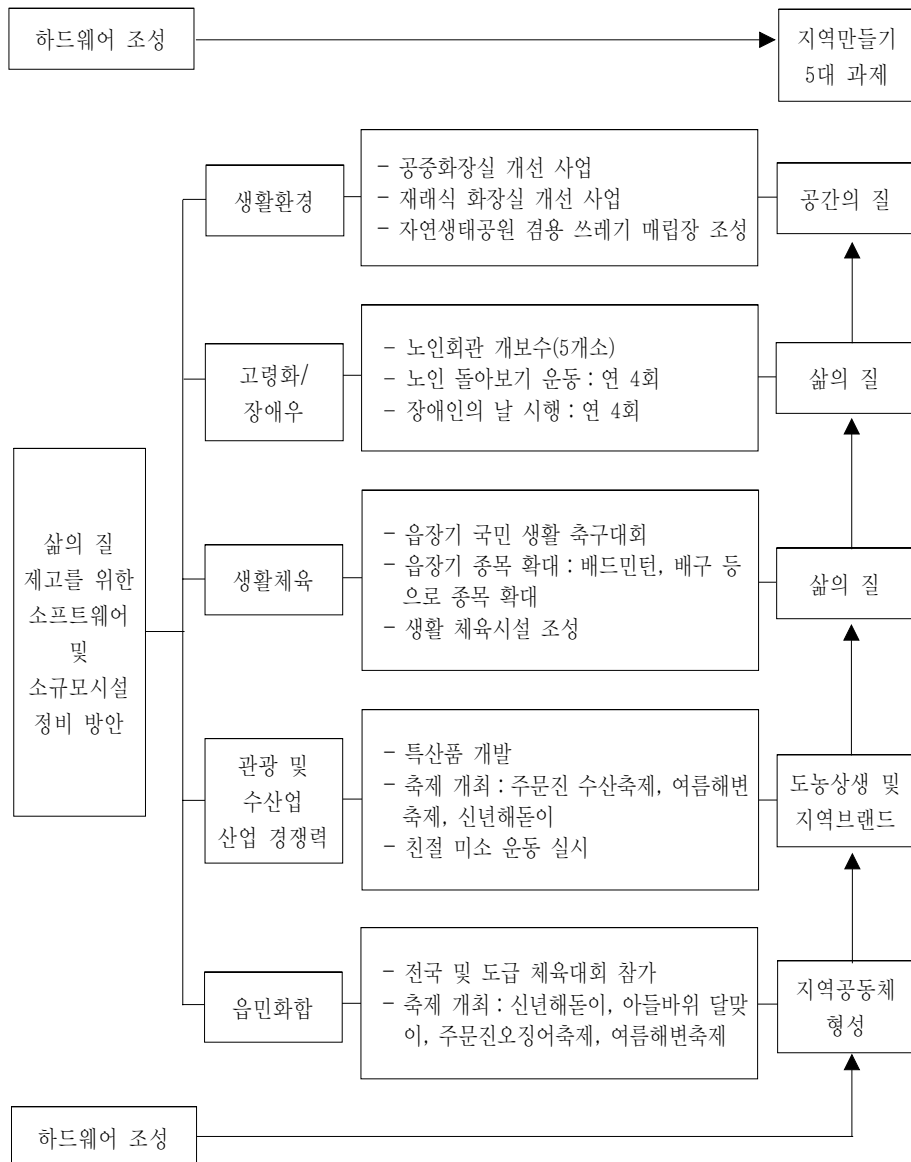
- Recycle 계획

구분	전 략(발전방안)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어촌	•폐어구를 활용한 시설물 조성 •폐어선을 활용한 편의시설 조성	•기존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어구조형물 만들기 •목선 파고라, 배 어린이 놀이터, 휴게 쉼터
연안	•인공 양빈을 도입한 Recycle System 도입 •기존 보호물을 적절히 활용하는 인공양빈 계획 수립	•인공 양빈 관련시설 •연안 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학습 프로그램 개발
항만	•해수유통 System의 적절한 유지관리로 항 내수질 향상 •항내 오염시설 관리 •지속적 준설로 발생하는 모래를 활용하는 인공 양빈계획 수립	•Recycle 홍보 및 안내 System 구축을 통한 환경학습 프로그램 개발

○ 연안·항만·어촌 연계(Network) 활성화 방안

구 분	연계활성화 자원
문화·휴게 연계망 (Network)	어촌문화마당 → 진입광장 → 어민문화광장 → 멀티구장 → 취미광장 → 전망광장 → 근린체육시설 → 문화센터
환경학습 연계망 (Network)	연안환경학습장 → 연안환경 학습 데크 → 취미광장 → 친수이벤트광장 → 하수처리장 → 건강산책로 → 어촌문화관 → 월류제
해양관광 연계망 (Network)	친수이벤트광장 → 수상광장 → Blue Wave광장 → 관광형 선박 접안 잔교 → 돌출형 전망광장 → 해중분수 → 스카이프라자 → Blue Wave Way 1 → 썬샤인테크1 → 친수체험테크 → 썬샤인테크 2 → Blue Wave Way 2 → 주문진 상징광장

○ 소프트웨어 정비방안



제6장 정책 추진 방향

1. 정책 방향

- ‘살고 싶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라는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두 분야를 고려한 정책 방향의 수립이 요망됨

1) 살고 싶은 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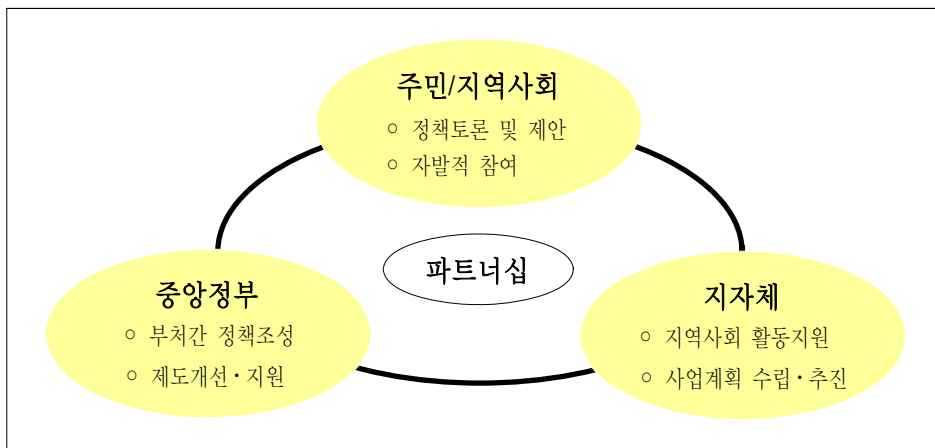
-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마을이 되려면 정주 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소득이 유지되어야 함
- 정주여건 개선 방안
 - 어촌의 주택, 상하수도, 도로, 마을 경관 등 생활환경 개선
 -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의 각종 환경 개선
 - 해양수산부 자체사업과 더불어 타 부처사업들과의 연계 필요
- 소득 증대 방안
 - 어촌의 소득 증대는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외 소득의 다양화가 가장 필요함(어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킴)
 - 어촌의 미이용자원 활용측면에서 어촌과 관광을 연계시키도록 함
-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민들 내부의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외부와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함

2) 가고 싶은 바다의 조성

-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은 국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바다로서 느낄 수 있는 바다 즉 항만, 어항 및 연안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의 검토와 대책이 필요
- 가고 싶은 바다의 조성은 매력도(Attractiveness)를 증진시키는 데 있으며 연안공간의 매력도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증진되어야 함
 - 연안경관, 환경의 질 제고(어메니티 증진을 통한 매력도 향상)
 - 연안이나 어촌에 부존하는 문화자원, 유적 등 전통문화의 유지
 - 지역 특성화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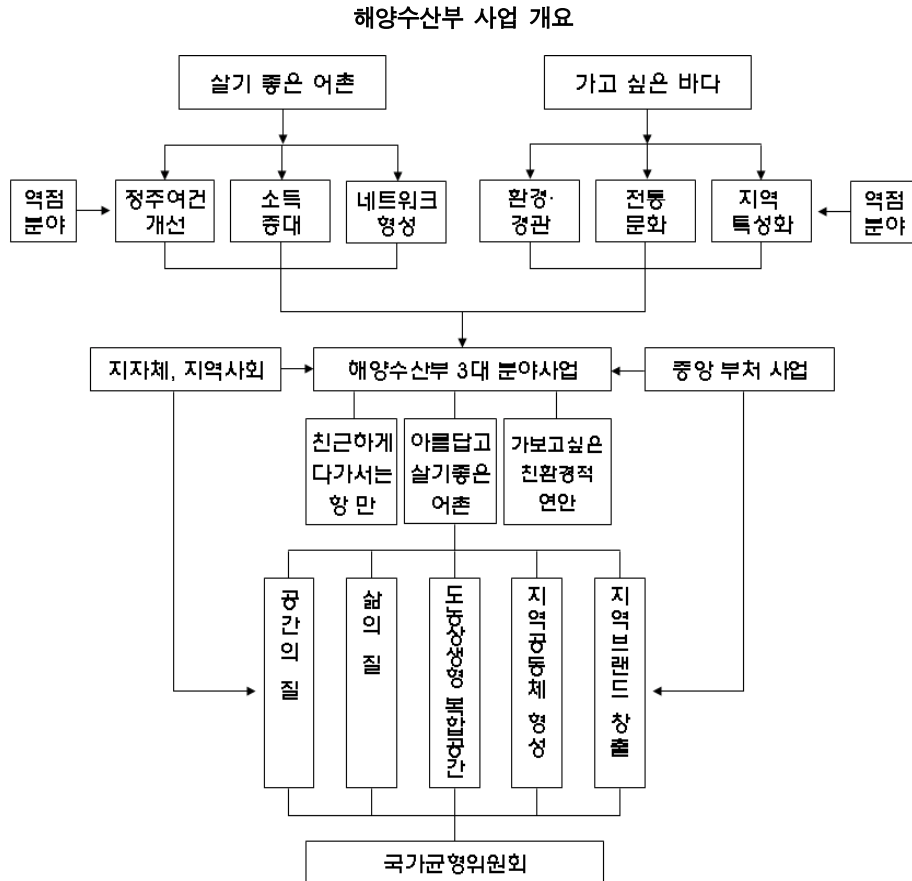
2. 추진 체계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를 연계시켜 각 부처간 공동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 내에서는 항만, 어촌, 연안 분야 등을 협력하여 시행하되 시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조력을 받도록 함
 - 전문위원회는 주요 사업을 연계하고 자문하며 관련 안건을 심의하여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국가 전체 사업 체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전후 연관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 지자체도 해양수산부나 정부 각 부처의 지원과 조화되게 각 사업을 조정하여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3. 수행 정책 방안 검토

-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의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대처하여 나가야 함
- 부처간 협의 창구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설하고 이를 통해 먼저 후보지역을 선정, 지역과 연계하여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함



제7장 결 론

- 본 연구는 국정현안 과제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안공간, 어촌공간, 항만/어항공간 등 연안을 둘러싼 제반환경여건을 살펴보았으며 연안공간에서는 환경오염, 태풍 등 재해, 연안 침식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됨

- 어촌에서는 인구 및 소득 감소,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항만/어항지역은 난개발, 관광자원화 미흡, 향후 정비 방안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됨
- 연안공간의 미래상에 대한 검토결과,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어메니티가 넘치는 어촌·어항지역으로의 변화와 관광의 활성화 등이 예상됨
- 사례연구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안/해안 공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연안공간의 질적 수준은 육지 공간에 비하여 다소 열악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함
- 여건분석과 더불어 국정과제의 정책목표, 해양수산부의 비전과 과제를 바탕으로 연안공간에 대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함
- 추진방향에 대한 분석결과, 연안환경정비와 더불어 어촌정주기능, 수역 기능, 물류 등 배후 지원기능 간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요망되며 환경적인 리사이클 기능 고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이를 토대로 주문진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 공간 기능별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의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에 관한 비전과 과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함
- 한편 본 사업의 정책 방향으로서 살고 싶은 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 여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위해서는 연안 어촌의 경관, 환경의 질 제고, 전통 문화의 유지, 지역 특성화 작업 등을 통한 매력도 증진으로 도시·연안 어촌 교류의 증진이 필요함
-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내의 연안, 어촌·어항, 항만 등 각 분야 간의 조율이 긴밀히 이루어지되 전문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시행 안건 조율, 검토 등이 요망됨
- 한편 해양수산부의 관련 27개 과제 분야를 분석해 보면 타 중앙부처 사업

들보다 공간의 질 개선, 지역특화브랜드 창출에 치중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도농상생형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약하여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제의 보완 등이 요망됨

- 아울러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 문화, 복지 등을 타 부처들과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동 시범사업의 발굴도 필요함
- 이러한 정책 방향 기조를 유지한다면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의 조성이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래 사회는 소득의 증대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의한 여가 시간의 증대로 삶의 질 향상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생활 공간도 기존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복지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고 지역간 격차도 해소하려는 국가적 정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현재 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국정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각 부처별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해양수산 부문의 방안 수립도 요망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켜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모토로 하여 몇 가지 사업을 시행중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개념적인 검토는 없었다. 이에 따라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안의 마련이 본 기본과제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특히 연안 공간, 어촌 공간, 항만 공간 등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핵심 분야이므로 현재 이들 분야 연구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맡아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들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연구 분야인 연안, 어촌, 항만/어항 등에서 고려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안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 연안은 과거 육상개발을 대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됨에 따라 대규모 매립과 간척을 통한 산업단지, 항만, 관광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무분별한 연안개발로 연안환경과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규모 연안재해에 의해 연안공간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연안공간의 고밀도 이용·개발에 의한 생태계 파괴, 연안자원의 고갈과 연안재해를 미리 경험한 연안관리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비해 해안선 관리, 해역수질보호, 생태계 보전 등 연안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권고한 ‘연안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¹⁾ 개념을 받아들여 연안 이용·개발·보전의 수요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연안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어촌 분야에서는 어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령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해 볼 때 어촌의 살기 좋은 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인들에 비해 낙후된 어촌에서의 생활의 질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어촌을 포함한 전체 바다의 경관과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 갈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망된다.

항만 분야에서는 현재 신규 조성 항만이나, 기존 항구별로 노후화된 항만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보고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이나 문화공간 조성 등에 많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항만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사례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새로운 친수공간 조성지에 대한 검토가 크게 요망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연안의 공간과 항만 지역 및 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연안과 항만, 어촌에 도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아울러 도시민들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연구 위주로 이루어져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메니티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 등에 의해 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경관의 보존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국민들이 연안, 바다 등에 대해 살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바다지역에 대한 개념과 정책 방향의 정립 등 정책적인 검토도 요망된다.

1) 연안·해양공간과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개발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정책결정과정(Cicin-Sain & Knecht, 1998).

한편 연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연안의 환경개선, 갈등의 개선 차원에서 연안 통합 관리방안(2000) 등이 검토되었고 연안관리법도 제정되었으나 어촌, 어항/항만 등과의 연계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된 보고서들은 대개 그 내용이 지엽적인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연안과 어촌의 전반적인 삶의 질, 공간의 질, 환경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과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여 종합적 측면에서 연안 어촌 지역을 고찰하고 이들 각 분야를 보다 발전적으로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망 되기에 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안과 어촌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이들 지역의 여건 변화와 국민의식 조사, 벤치마킹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연구,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위한 개발모델 및 사례 적용 방안,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이 연구되어진다.

먼저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연안측면에서 연안관리제도, 연안 환경적 측면과 연안정비(호안, 침식) 등이 검토된다. 어촌측면에서는 어촌의 생산공간으로서의 여건을 검토하고 어촌에서의 어업인들의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검토한다. 항만/어항측면에서는 어항 수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재정비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국민여가 공간화, 국민이용 증대, 친수공원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총체적인 연안 이용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연안공간, 어촌공간, 항만/어항공간의 각 측면에서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들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통하여 연안공간에 대한 국민 인식도나 선호도 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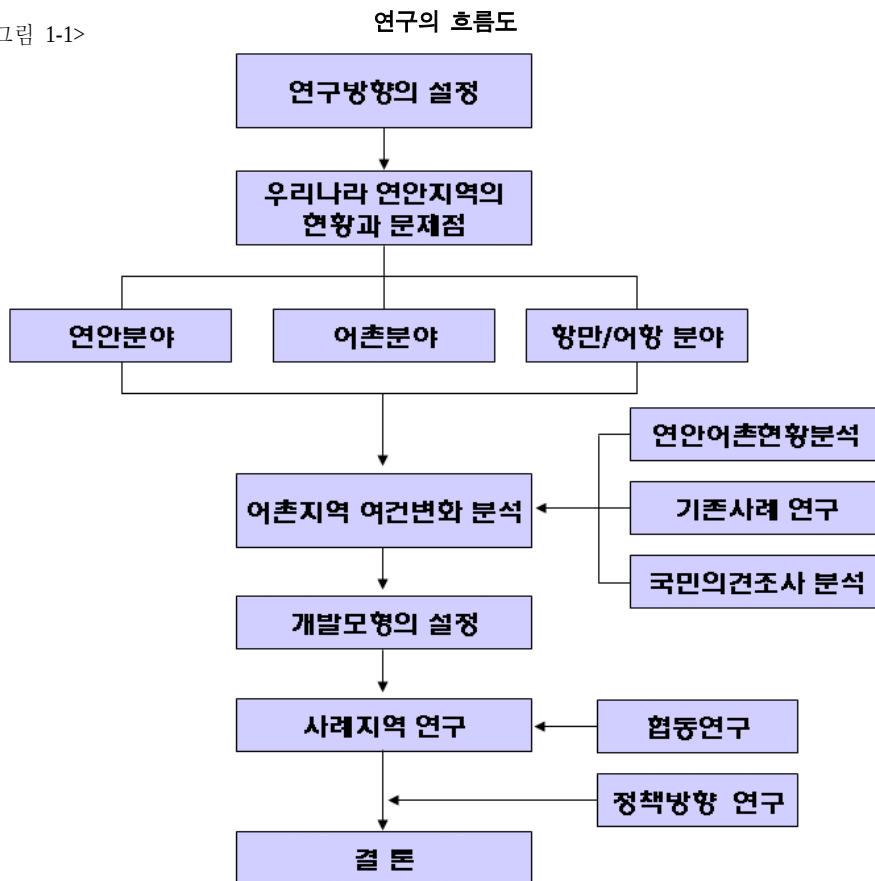
국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환경 보전, 경관 조성, 어메니티 제고, 해양 이용편의 증진, 해양레저 증진, 항만/어항기능 증진, 생산기능 증진, 어업인들의 소득과 연계 방안 제안 등의 측면에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례는 연안, 어항, 어촌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통합되어 바람직한 상을 구현한 벤치마킹 가능한 지역들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각종 여건분석을 토대로 살기 좋고 가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연안, 어촌, 항만의 통합적 비전의 수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도록 한다. 항만/어항의 생산 물류의 공간이나 교류의 공간-삶의 공간으로서의 어촌-배후지 환경, 완충 공간으로서의 연안이 상호 연계되는 모델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 적용 연구에서는 연안, 항만(어항), 어촌 등 세 분야의 특성을 갖는 지역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만(어항), 배후어촌, 인근 연안 정비 등의 문제를 갖는 연안항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적용 사례 연구에서는 대상지역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대상지역 비전 제안, 대상지역 발전방안 검토, 대상지역 향후 개발 방안 등을 제안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그림 1-1>



수행되게 된다. 여기에서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제도 개선 분야, 추진체계, 분야별 정책 방향 등이 제시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 제언을 하게 되며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연안지역민들의 소득, 생활환경, 복지의 건실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수행중인 각종 친수공간, 어촌·어항, 항만, 해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되는 여건과 법제도 등을 검토하여 어촌의 건실한 성장과 어업인들의 생활환경 제고 방안 등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도시민들보다 열악한 어촌들의 문화, 복지, 소득, 공동체 형성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시로 연안 어업인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4.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범위는 공간적으로 시·군 단위의 연안, 어촌, 어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주로 통계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문헌조사에서는 연안, 항만, 어촌에 대한 국내외 각종 여건 변화를 위주로 검토하였다.

또한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연안공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연안, 항만, 어촌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고 이들의 향후 개선 요망 사항 등을 검토하여 수요평가와 더불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외의 우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 자료 관련 전문가와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을 자문하였다. 특히 이들에게는 연안, 항만친수공간, 어촌 공간 및 생활의 질적, 구조적인 문제 등 전문분야를 자문받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지 조사 및 개발 구상은 외부 전문업체와 공동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공동 연구 대상 항목으로는 어촌·어항 내에서의 개발, 환경, 정비 등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연안어항어촌 중 여러 가지 시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 도출과 연구 잠재력이 높은 주문진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다.

항만분야에서는 국민들이 방문하거나 접근하기 힘든 국제 무역항, 산업항 등은 제외하고 연안항과 어항만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다.

5.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새로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지원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에서 각종 연안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나 현황 및 미래 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한 정확한 개념 도출을 통해 국가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운항만, 연안지역 바다 공간의 경관화, 친수공간화 등을 통한 공간의 질 및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서 부여된 해양수산부의 교육 정책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도시민들의 어촌과 바다 지역에 대한 애호심 및 교류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살기 좋은 연안어촌 만들기를 시행하고 가고 싶은 바다를 만들어 도시민들의 바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시·어촌간 관광 등 교류를 증대시키게 된다.

아울러 연안지역민들의 소득, 생활환경, 복지의 견실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수행 중인 각종 친수공간, 어촌·어항, 항만 사업을 수행하는 정책 기반 조성과 관련되는 여건과 법제도 등을 검토하여 어촌의 견실한 성장과 어업인들의 생활환경 제고 방안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도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촌지역 주민들의 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시로 연안 어업인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제 2 장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1. 연안분야

1) 연안경관·서식지 부문

우리나라 연안²⁾은 갯벌, 도서, 모래해안, 해식에 등 다양한 해안지형 등 수려한 해안경관과 중요한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가 분포해 있다. 서남해안은 해안선 길이가 길고 많은 도서와 만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한편, 동해안은 해안선의 굴곡이나 만입이 적게 나타나는 단조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³⁾ 그러나 연안공간은 1960년대부터 육상개발을 대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됨에 따라 대규모 매립·간척과 무분별한 인공구조물 조성으로 연안의 자연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연안경관과 생태계의 훼손은 증가되고 있다.

<표 2-1>

연안습지 면적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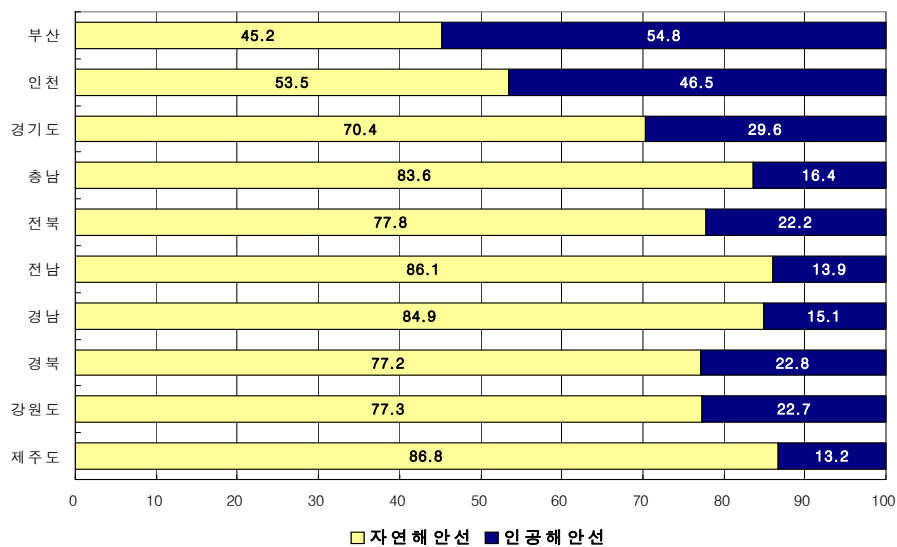
구 분	1987년		2005년		증감면적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전체면적	3,203.5	100%	2,550.2	100	△653.3
경기(인천)	1,179.5	36.8	914.6	35.6	△264.6
충남	434.2	13.6	367.3	14.4	△66.9
전북	321.6	10.0	132.0	5.2	△189.6
전남	1,179.1	36.8	1,017.4	39.9	△161.7
경남(부산)	89.1	2.8	118.6	4.7	29.5

자료 : 2006~2010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해양수산부, 2006.

- 2) 연안(coastal zone)은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만나 독특한 환경을 이루는 환경공간인 동시에 해역이용행위와 육상이용행위 등 다양한 인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임. 전 지구면적의 20%에 불과한 연안·해양공간은 전 세계 어업생산량의 90%, 생물생산성의 25%, 인류에게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 중 68%를 차지하는 동시에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거대도시의 70%가 분포해 있음.
- 3) 서해안은 넓은 갯벌, 해안사구 등이 잘 발달해 있고 한강, 금강, 만경·동진강 등 하구가 분포해 있음. 남해안은 화원반도, 해남반도, 광양만, 거제만 등이 분포해 있고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식에, 자갈해안 등이 잘 발달해 있으며, 동해안은 모래해안, 해안사구와 석호가 잘 형성되어 있음.

특히 대표적인 연안경관이면서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인 연안습지는 1987년 3,203㎢에서 2005년 2,550㎢로 약 20%가 매립 등으로 사라졌다. 또한 우리나라 육지부 해안선 6,359km 중 자연해안선 대 인공해안선 비율은 80:20으로 자연해안선 비율이 높으나 고밀도의 연안이용·개발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인공해안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부산연안의 인공해안비율은 45.2%, 인천연안은 46.5%, 경기연안은 29.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공해안에 조성된 연안친수공간에는 해안도로, 공단, 항만, 발전소가 입지해 있어 연안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고 연안 수변공간에는 횃집, 콘도, 펜션 등이 입지해 있어 연안경관과 조망을 훼손하고 있다.

<그림 2-1> **육지부 자연해안선 대 인공해안선 비율 현황**



자료 : 해양수산부 연안관리정보시스템(www.coas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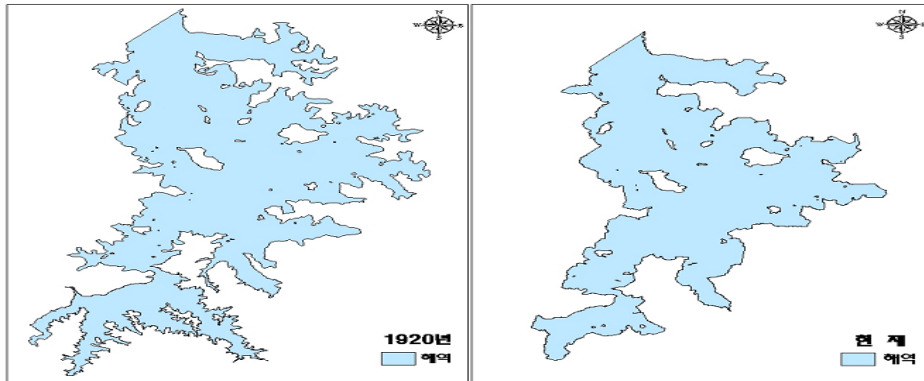
최근에는 주5일제 근무, 삶의 질 추구, 경제성장 등으로 해양관광·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해안으로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자연 상태의 갯벌이 잘 보전되고 있는 가로림만만 하더라도 과거 연안어업의 중심지로 패류, 해조류 양식이 성행하였으나 최근 조력발전계획, 각종 관광지 개발, 항만 개발과 산업단지 유치계획 등 대형국책사업 등이 마련되어 해안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2> 가로림만 연안의 해역·해안선 변화

구 분	해역 면적(km ²)	해안선(km)	비 고
1920년	138.16	324.9	육지부 해안선 128.7km 중 53.1%인 68.4km가 인공해안
2004년	112.57	161.8	
증감율	19.0% 감소	50.2% 감소	

자료 : 해양수산부,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 2006.

<그림 2-2> 해역 및 해안선 변화



이렇듯 연안매립, 방조제, 호안, 해안도로 등 인위적인 자연해안의 물리적 변형은 해양서식지 파괴뿐만 아니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친수공간을 파괴하고 있고 2차적으로 연안침식이나 퇴적현상을 발생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안 매립 등으로 조성된
광양만 여수화확산업단지 전경

<그림 2-3>



촬영 : 최지연(2004)

해양오염이 심각한
폐쇄성 내만인 마산만 전경

<그림 2-4>



촬영 : 최지연(2006)

2) 연안재해 부문

국립해양조사원은 온난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연간 최고 0.6cm씩 높아져 2100년에는 59cm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면서⁴⁾, 최근 기후 변화로 슈퍼 태풍과 해일 피해도 잦아져 연안지역의 침수 피해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로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5.6m,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8.0m, 2004년 태풍 ‘메기’ 때는 5.7m의 해일이 일어났다. 그 결과 2003년 태풍 ‘매미’로 사망 117명, 이재민 10,095명, 농경지 3만 8천ha 침수, 재산피해는 4조 7천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바닷가 매립지에 조성된 부산녹산공단은 입주업체의 43%인 388곳이 침수돼 총 57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⁵⁾ 지난 2006년 10월과 2007년 3월 7m 정도의 국지성 해일로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의 방파제는 약 1km 정도가 완전히 부서졌다.⁶⁾

<표 2-3> 우리나라 주요 태풍피해 현황

연 도	태풍명	내 용
1959년	태풍 사라	- 초대형 태풍으로 남해안 극심한 해일 피해 유발
1968년	폭풍해일	- 강원도에 내습한 태풍에 의한 해일 피해
1981년	태풍 아그니스	- 집중호우 동시 발생으로 제주·동해 피해
1987년	태풍 셀마, 다이너	- 강풍과 집중호우로 동해안 피해
1989년	태풍 Judy	- 강풍과 집중호우로 서울외 전 지역 피해
1991년	태풍 글래디스	- 강풍과 집중호우로 부산, 강원, 경북, 경남 등에 피해
1995년	태풍 제니스	- 집중호우로 경기, 강원, 충청도 피해
1998년	태풍 예니	- 집중호우로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상도 피해
1999년	태풍 올가	- 집중호우로 전국 피해
2000년	태풍 프라피룬	- 호우발생으로 전국 피해
2002년	태풍 루사	- 강한 바람과 호우로 전국 피해
2003년	태풍 매미	- 한반도 폭풍해일 사상 최대 규모의 해일 피해

주 :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2006년까지는 대부분 국지성 호우피해를 동반한 중소형 태풍임.

자료 : 국립방재연구소, 2004.

4)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부산 연안의 해수면은 지난 34년 동안(1973~2006년) 7.8cm 상승했고 제주 연안은 지난 43년 동안(1964~2006년) 21.9cm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100년 후 연안침수 위기」, 2007. 6. 5일자)

5) 1992~2002년까지 연도별 시설별 자연재해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에 사망 384명(26%), 침수 면적 피해는 91,629정보(24%), 건물 421억원(47%), 공공시설 1조 2,490억원(23%), 농경지 1,070억원(22%) 피해가, 1993년에 선박 139억원(30%)으로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재민 30,408명(30%)으로 199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음(소방방재청, 「2002년 재해백서」, 2002).

6) 오마이뉴스, 「폐허된 백사장 해수욕장, 안전사고 위험 높다」, 2007년 6월 12일자.

과거 재해기록을 살펴보면 1516년부터 1837년까지 우리나라에 내습하여 피해를 일으킨 폭풍해일은 약 43회가 기록되어 있고 19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지나면서 해일을 일으킨 태풍은 총 67회로 기록되어 있으며,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태풍에 의한 연안재해 피해현황만 보더라도 전국대비 연안재해 피해비중이 약 40% 정도로 매우 높다.⁸⁾

1985년 태풍 브렌다로 울릉도 저동항 피해
<그림 2-5>



출처 : 이호준(2007)

2003년 태풍 매미로 부산 해상호텔 전복
<그림 2-6>



출처 : 이호준(2007)

**2007년 해일로 태안군 백사장
해수욕장 방파제 훼손**
<그림 2-7>



출처 : 오마이뉴스(2007. 6. 12일자)

매년 태풍, 온대성 저기압 등 기상악화로 발생한 자연재해는 해상의 큰 파도, 해일, 이상해면 상승 등을 수반하고 이로 인한 범람은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 방

7) 이호준, 우리나라 연안재해환경과 대책, 『재해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8) 소방방재청, 『재해백서』, 2003.

조제, 어항, 항만, 양식시설 등 연안의 시설물을 붕괴시키고 해안침식을 초래함에 따라 연안환경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발고도가 낮은 저지대의 환경사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연안지형구조는 연안재해에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해 연안정비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각종 재해는 연안어촌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위상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3) 연안 수질환경 부문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일어난 부산, 인천, 경기연안 등은 도시와 공단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으로 해양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현재 연안해역의 평균수질은 COD 기준 2mg/L 이하로 해수수질 Ⅱ등급의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마산만, 광양만, 시화호, 인천연안, 부산연안 등 산업단지, 항만, 도시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COD 기준 Ⅱ등급, Ⅲ등급, 등급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⁹⁾. 또한 정부의 해양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안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증가로 COD 기준 Ⅰ등급 해역은 줄어들고 일부 오염우심해역은 수질 Ⅲ등급 이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방조제나 하구둑이 조성되어 있는 시화호 내측, 천수만 북쪽연안 등은 Ⅲ등급, 마산만과 광양만 등 산업단지와 도시가 인접한 해역은 만성적인 부영양화 또는 적조가 발생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적조발생건수는 45건으로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다만 1990년대 이후 유해 적조가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어업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4> 우리나라 연안해역 수질 변화 추이(COD 기준)

등 급		Ⅰ 등급	Ⅱ 등급	Ⅲ 등급	계
1996년	정점수	151	80	60	291
	비율(%)	51.9	27.5	20.6	100
1999년	정점수	161	70	49	280
	비율(%)	57.5	25.0	17.5	100
2004년	정점수	75	222	50	347
	비율(%)	21.6	64.0	1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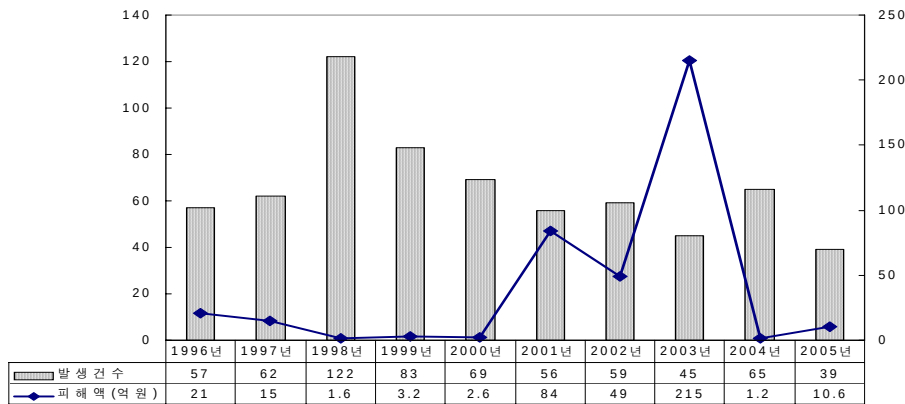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조사연보, 각년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2006에서 재인용.

9)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2005, 2006~2010.

이로 인해 연안에서의 종합적인 환경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2-8>

최근 10년간 전국 연안 적조 발생 건수



자료 : 해양수산통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4) 연안이용 갈등 부문

연안공간은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한정된 공간과 자원의 이용(use)과 배분(allocation)’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잠재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분출된 연안·해양을 둘러싼 갈등은 시화호 개발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서부터 해상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보호구역 지정, 바다모래 채취, 자치단체 해상경계설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다. 특히 연안의 갈등은 양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그 형태도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순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갈등은 우리 사회 전체에 단기 간에 회복될 수 없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줄 수 있다.¹⁰⁾ 특히 최근 들어 보호가치가 높은 연안공간과 자원을 대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두리 해안사구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내부의 개발의지와 지역외부의 보전의지가 상충되면서 심화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 차이로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¹¹⁾

10) 남정호·최지연, “연안·해양 갈등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활용방안”,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

11) 자세한 사항은 최지연, “신두리 해안사구를 둘러싼 갈등분석”, 『월간 해양수산』, 2005 참조.

<그림 2-9>

신두리 해안사구를 둘러싼 갈등 현장



촬영 : 최지연(2001)

대부분 연안공간·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갈등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반의 부재에서 비롯되며, 이해관계자의 가치관 및 이해관계에 따라 심화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연안 거버넌스의 실현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정보 공유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2. 어촌분야

1) 우리나라 어촌의 실태

(1) 어가 및 어가 인구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어촌’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동 지역 중에서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 기준만으로는 어촌지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 확보의 용의성과 본 과제의 목적성에 부합되도록 어촌의 정의를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면서 생업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漁家)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한다.

2005년 현재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0.5%에 해당하는 79,942가구이며, 어가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는 총 221,132명이다. 대부분의 어가는

면부(61.5%)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8.8%에 불과하다.

<표 2-5> 어가 및 어가인구

구 분	가 구			인 구		
	전 체	어 업	비중	전 체	어 업	비중
전 국	15,988,274	79,942	100.0%	47,278,951	221,132	100.0%
동 부	12,826,173	15,061	18.8%	38,514,753	46,694	21.1%
읍 부	1,326,369	15,749	19.7%	3,943,827	44,185	20.0%
면 부	1,835,732	49,132	61.5%	4,820,371	130,253	58.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어업총조사」, 2005.

200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가 있는데, 이 중 바다와 접해 있는 연안지역 지방자치단체는 11개 시·도, 74개 시·군·구이다(<표 2-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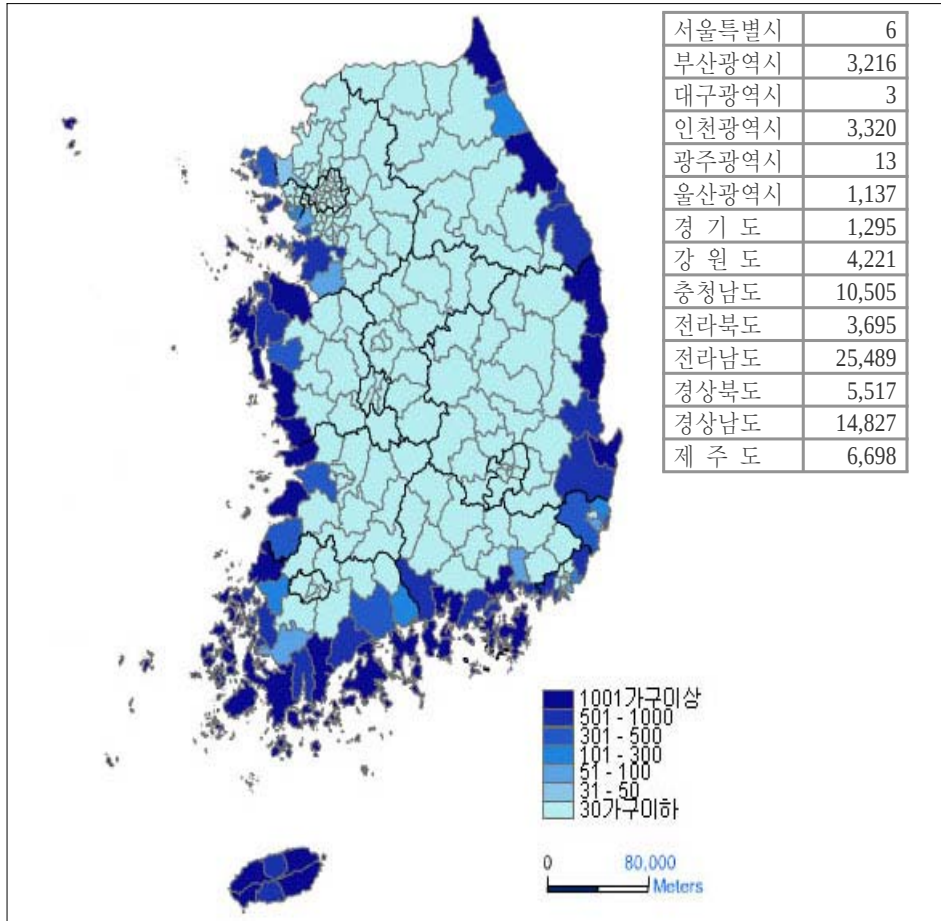
<표 2-6> 연안 시·군·구

시도	시·군·구		
	전체	연안	연안 시·군·구 이름
서울	25	0	-
부산	16	10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대구	8	0	-
인천	10	6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5	0	-
대전	5	0	-
울산	5	4	울주군, 북구, 동구, 남구
경기	31	5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김포시
강원	18	6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충북	12	0	-
충남	16	7	당진군,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아산시
전북	14	3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전남	22	15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경북	23	5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울릉군
경남	20	9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제주	4	4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전체	234	74	-

주 : 제주도는 통계 이용의 편의상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이 중 어촌이 발달한 지역은 해안선이 긴 전라남도(25,489가구), 경상남도(14,827가구), 충청남도(10,505가구)이며 전체 어가의 63.6%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그림 2-10> 참조).

<그림 2-10> 전국 시·군·구별 어가 분포



주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표 2-7>은 지난 10년간 어가인구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기간 우리나라 인구는 0.6%의 플러스 성장을 보인 반면 어가인구는 4.4%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어가인구 비중은 1996년 0.7%에서 2005년에는 0.2%포인트 감소한 0.5%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1차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

역시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수의 감소는 도시화 과정에서 1차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한 인구이동과 어촌의 각종 여건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7>

어가인구 추이

(단위 : 천 명)

구 분	1996	1998	2000	2002	2004	2005	증감률
어가인구	330	322	251	215	210	221	-4.4%
농가인구	4,692	4,400	4,031	3,591	3,415	3,433	-3.4%
전체인구	45,525	46,287	47,008	47,622	48,039	48,138	0.6%
어가인구 /전체인구	0.70%	0.70%	0.50%	0.50%	0.40%	0.50%	-4.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2005.

(2) 수산업 여건과 어촌 소득 변화

소득 2만 달러 시대와 주5일 근무제에 걸맞는 어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크고 관광, 정보통신, 영상 등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어촌 개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WTO-DDA 협상에 따라 직간접 보조금 및 관세가 철폐 내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FTA 협상(칠레, 싱가포르, EFTA 3개국 타결, EU 등 협상 중) 등이 추진됨에 따라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취약한 어가경제의 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크게 요망된다.

2006년 현재 어가소득은 평균 3천만원이며 이는 농가소득 대비 92.9%,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72.6%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농업 및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소득격차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일정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어가소득 감소 등 수산업 경영여건의 악화로 현재 어가 1가구당 부채도 1995년 1천 1백만원에서 1995년 3천 4백만원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어가 부채비율은 1995년 11.4%에서 2006년에는 23.4%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5년 대비 2006년 어가소득은 1.6배 증가했으나, 어가부채는 3.1배 증가하여 수산분야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부채가 누적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어가경제지표 추이

<표 2-8>

항 목	1995(A)	2000	2005	2006(B)	B/A
어가소득(A)	18,780	19,618	28,028	30,006	1.6
어업외소득률	32.4	37.9	33.5	34.5	1.1
이전수입률	17.4	19.2	23.8	26.8	1.5
농가소득(B)	21,803	23,072	30,503	32,303	1.5
도시근로자가구소득(C)	22,933	28,643	39,010	41,321	1.8
어가자산(D)	97,125	121,073	127,397	147,274	1.5
어가부채(E)	11,033	22,293	34,531	34,422	3.1
어가소득비율(A/B)	86.1%	85.0%	91.9%	92.9%	1.1
어가소득비율(A/C)	81.9%	68.5%	71.8%	72.6%	0.9
부채비율(E/D, %)	11.4%	18.4%	27.1%	23.4%	2.1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각년도.

수산자원회복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1980년대 1,000만톤이던 수산자원량이 2004년에는 790만 톤으로 감소되고 연근해 어업생산은 2000년 119만톤에서 2005년 110만 톤으로 감소되어 단기간 내에 수산자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체 어선의 90% 이상(6만 4천 척)이 소형 연안어선(8톤 이하)이고, 생계유지형 어업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어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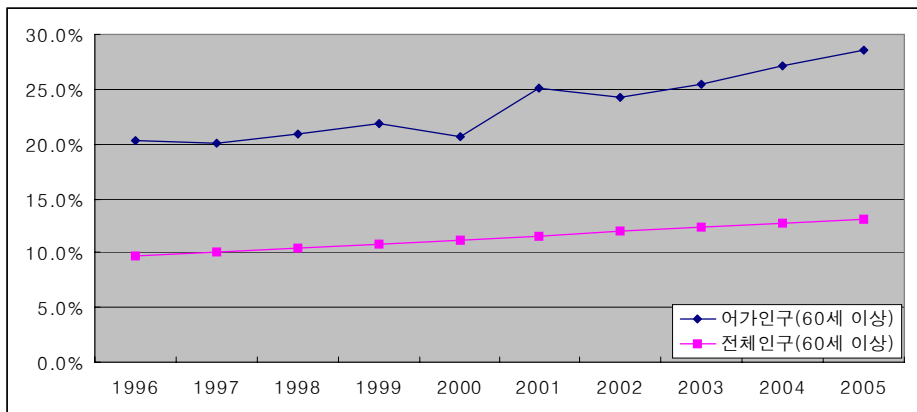
2) 어촌의 구조적 문제

(1) 어촌 활력 저하

우리나라의 어촌은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 중심의 개발로 여전히 전통적인 어업생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업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꾸준한 어선감척에도 불구하고 어업경비 상승, 자원고갈 등으로 그 효과가 상쇄되고, 어가소득은 정체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젊은 노동인구의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어촌사회 혼주화(混住化)와 어촌의 60세 이상 어가인구 비율(28%) 등 고령화의 진전을 고려할 때, 향후 어촌개발정책은 정주여건이 구비된 휴양·레저·관광 공간 구축을 정책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도시민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1> 어가 인구의 노령화 추이



(2) 경쟁력 있는 전문 어업인 양성 미흡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예 수산경영인 육성이 절실하나, 어업인의 수산경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수산경영인 수는 2000년에 794명이었으나 2003년 673명, 2005년 526명 등으로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어업인 후계자 교육훈련을 생산기술 중심에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유통가공, 경영 등에 대한 전문 훈련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부문은 농업전문대학(3년제)을 설립하여 분야별로 정예화된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중이나 수산분야에서는 전문기술을 가르칠 전문대학이 전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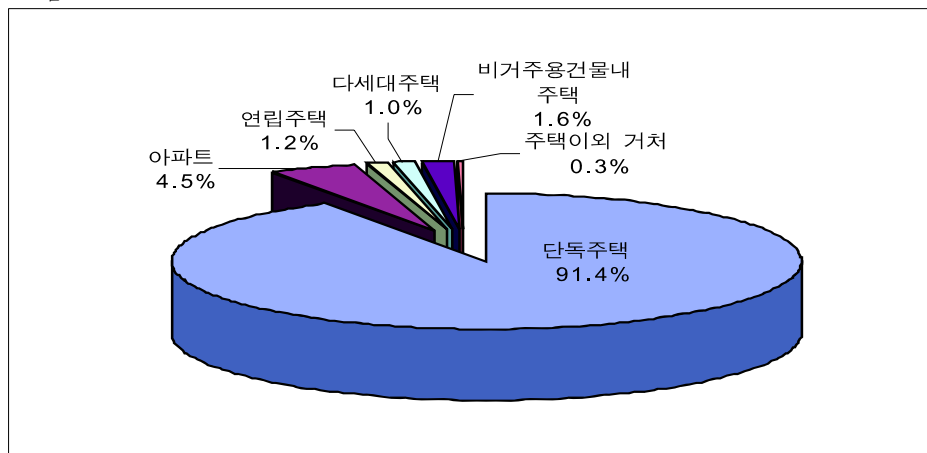
이 외에도 어업환경 악화 등으로 업종별·지역별 어업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3) 생활정주여건 열악

① 주택

어촌지역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이 91.4%로 단연 많고, 그 외 아파트(4.5%), 연립주택(1.2%), 다세대 주택(1.0%) 등이 있다.

<그림 2-12> 어가의 주택 현황



주택시설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진 결과, 대부분의 어가에서 입식부엌(96.8%), 온수목욕시설(93.0%),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82.2%)을 이용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률이 전체가구(94.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표 2-9> 어가 주택시설 현황

구분	전체 어가 (가구)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비중	수세식	비중	온수시설	비중
어가(가구)	79,942	77,381	96.8%	65,679	82.2%	74,320	93.0%
동부	15,061	14,547	96.6%	12,936	85.9%	13,741	91.2%
읍부	15,749	15,349	97.5%	12,582	79.9%	14,745	93.6%
면부	49,132	47,485	96.6%	40,161	81.7%	45,834	93.3%
전체 가구 (천가구)	15,988	15,554	97.9%	14,935	94.0%	15,227	95.8%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2005.

② 생활환경

<표 2-10>은 어가의 지역별 상수도보급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 현재 상수도 공급을 받는 어가의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상수도 공급률(89.3%)에 못 미치는 51.3%로 나타나, 아직 어촌지역의 광역 상수도 보급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0> 어가 상수도보급 현황

구분	전체 어가	상수도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자가(전용) 수도		없음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어가	79,942	40,975	51.3%	22,637	28.3%	2,112	2.6%	14,218	17.8%
동부	15,061	12,446	82.6%	1,578	10.5%	357	2.4%	680	4.5%
읍부	15,749	10,676	67.8%	2,387	15.2%	521	3.3%	2,165	13.7%
면부	49,132	17,853	36.3%	18,672	38.0%	1,234	2.5%	11,373	23.1%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2005.

(4) 어촌 교육·의료·복지의 미비

① 교육 시설의 낙후

어촌은 도시에 비해 각종 교육시스템이 미비하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각종 학교 시설이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또한 사교육을 받기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이로 인한 학령기 가족들의 인구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1> 어촌지역의 교육시설 현황

구 분	학 교					학교당 학급수
	전 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국	18,951	8,275	5,646	2,935	2,095	13.7
연안 군	1,797	727	597	300	174	6.5

자료 : 각 시도 교육통계연보(2005).

② 문화복지 시설의 낙후

문화복지 시설의 질이나 숫자가 도시에 비해 크게 낮아 고수준의 문화복지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되고 있다.

<표 2-12> 어촌지역의 공연시설 현황

구 분	인구당 (개소/십만명)	면적당 (개소/천km ²)	공연시설(개소)					
			합 계	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	소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전 국	2.50	12.26	1,221	17	66	72	970	96
연안 군	1.00	1.19	20	0	2	0	9	9

자료 : 각 시군구 통계연보(2004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

③ 보건의료 시설의 낙후

보건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농산어촌의 경우 평균 29.9분이 걸리는 데 비해 도시는 17.5분이 소요되며 각종 병상시설도 연안 시군부가 도시부에 비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3>

시·군별 의료기관 및 병상 수

구 분		기관수			병상수		
		군부	시부	합계	군부	시부	합계
총합계		6,156	43,171	49,327	53,447	326,274	379,751
일반 병의원	의 원	3,354	22,058	25,412	14,832	79,140	93,972
	병 원	142	652	794	19,835	70,632	90,467
	종합병원	15	275	290	3,324	117,404	120,728
	소 계	3,511	22,985	26,496	37,991	267,176	305,167
한방 병의원	한방병원	10	136	146	405	8,133	8,538
	한의원	1,255	8,510	9,765	178	494	672
	소 계	1,265	8,646	9,911	583	8,627	9,210
치과 병의원	치과병원	1	122	123	-	225	225
	치과의원	1,282	11,238	12,520	-	2	22
	소 계	1,283	11,360	12,643	-	247	247
요양 병원	노인전문병원	14	22	36	1,184	3,796	4,980
	요양병원	32	135	167	3,869	15,159	19,028
	치매병원	2	8	10	142	1,351	1,493
	소 계	48	165	213	5,195	20,306	25,501
특수 병원	결핵병원	-	3	3	-	1,373	1,373
	정신병원	23	79	102	8,545	27,707	36,252
	한센병원	1		1	1,000	-	1,000
	소 계	24	82	106	9,545	29,080	38,625
부속병의원		20	167	187	161	687	848
조산원		5	41	46	2	151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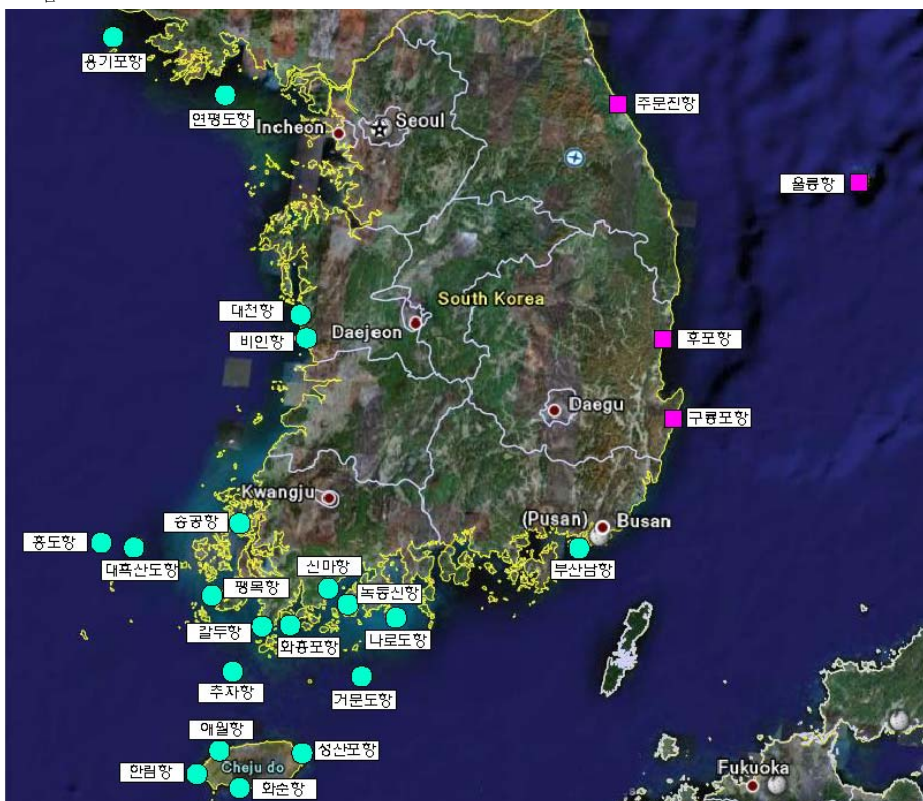
3. 항만/어항 분야

본 연구에서는 삶의 공간과 더불어 여가활동 공간으로서의 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무역 및 산업항만을 제외하고 어항적 성격의 연안항, 일반어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연안항의 현황

우리나라의 어항 중 연안이나 어촌과 더불어 어업인들의 삶의 공간이 되는 경우는 대개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을 일일이 조사하여 연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범위로는 어항 구역을 갖고 있는 연안항, 지정어항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안항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연안항 내의 어항 구역이 중요한 어항의 역할을 하며 그 배후에 대부분 어촌이 형성되어 어항과 어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연안항이 24개소로서 <그림 2-13>과 같이 지역별로 지정되어 개발·이용되고 있다.

<그림 2-13> 우리나라 연안항 위치도



2) 일반 어항

(1) 어항의 개념 및 지정어항 현황

어항의 개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상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어촌·어항법에서 어항은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 제17조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여건에 따라 지정된 어항을 의미한다.

어항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어업활동의 지원 및 생산기지 역할이다. 어항은 어선의 안전정박으로부터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어획물의 처리, 보관시설과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는 수산물의 유통기지로서 위판장 등을 통한 수산물 거래, 판매 시설과 수산가공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어촌과 연안 농촌지역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이자 랜드마크의 역할이다. 어항은 어업인에게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사회를 연결하는 교통정보기지이자 어촌의 중심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성을 가지는 시설물이다. 네 번째로 어항은 도시지역 주민에게는 해양관광 및 레크리에이션과 바다체험학습 장소로서의 휴식처 역할도 수행한다. 최근 해당 역할과 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니즈(needs)의 다양화로 어항의 역할과 기능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어항의 종류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항 등 3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항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의미한다.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자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을 말하며, 어촌정주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말한다.

<표 2-14> 어항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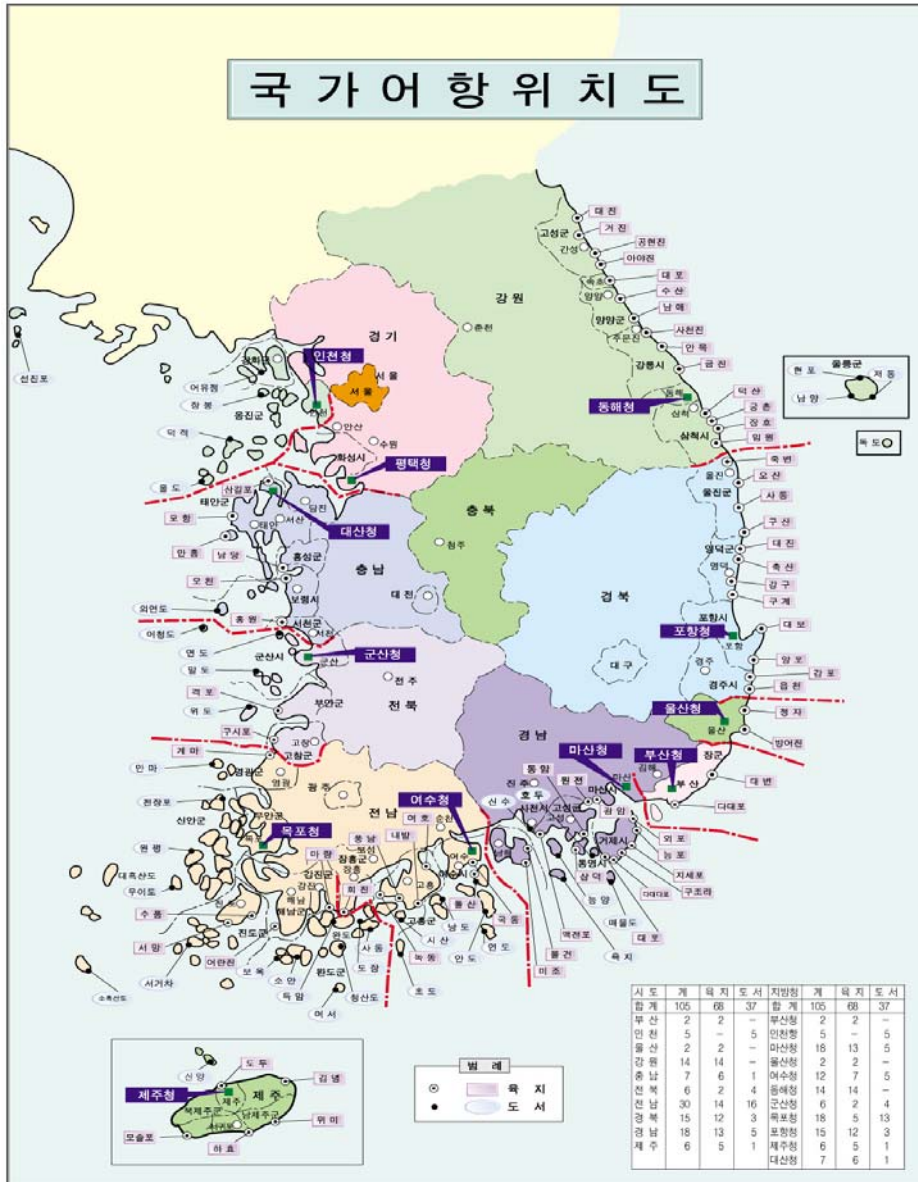
항 종		항 수	이 용 범 위	관 리 청
법정항	국가어항 (구 1, 3종 어항)	105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광역시장, 시장·군수
	지방어항 (구 2종 어항)	289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정주항	521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시장·군수 구청장
비법정항	소규모항	1,393	지정항 이외의 포구	〃

자료 :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2006년 말 현재 국가어항 105개소, 지방어항 289개소, 어촌정주어항 52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비법정항인 소규모항은 1,393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림 2-14>

국가어항위치도



자료 : 해양수산부, 「어항편람」, 2004.

3) 어항의 문제점

(1) 환경변화에의 대처 부족

세계적으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가 생활편의시설, 교통기반 및 문화적 환경 측면에서는 선진화되고 있으나, 인구집중, 교통체증, 자연녹지공간의 부족과 환경오염, 과도한 스트레스의 일상화, 수입농산물 범람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촌은 농촌과 함께 도시 문제와 상반되는 공간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지속되는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야기된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는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이고, WTO 출범, DDA 협상, FTA 확대, 경제 블록화 등으로 경제 사정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 측면에 있어서도, 어촌 고유의 특성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경관이 파괴되고 연안수질 환경까지 오염되는 등 어촌다움을 잃어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이처럼 도시와 농어촌의 문제점, 양극화와 함께 농어촌의 문제점이 자연스럽고 공익적 가치와 환경보전 차원에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 및 학계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경관, 전통문화 그리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계기로 어항과 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어촌·어항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어촌·어항의 문화와 환경자원을 어촌주민의 소득증대로 연계시키기 위해 어촌관광을 장려해 왔으나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2) 어촌·어항의 난개발

수산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어촌지역은 어항시설을 중심으로 과밀, 난개발이 되어 어항자원의 생산시설 기능이 저하되거나 어촌 접근성 제한, 관광시설과의 기능 충돌 등으로 관광객들의 이용기피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유명 드라마 세트장, 수려한 경관, 수산물 등이 풍부한 지역에는 어항을 중심으로 상업, 식당, 여가시설 등이 체계적인 계획수립 없이 기존 자연 시가지와 단순 연계된 난개발 형태로 입지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집객 시설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어항을 중심으로 경관이 좋은 지역은 횃집, 숙박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밀집되어 경관자원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주문진항으로 어항 주변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어항의 상징성, 쾌적성, 기능성 등 생산기능과 관광기능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사례이다.

<그림 2-15>

주문진항 주변 난개발 현황



(3) 어항의 관광자원화 미흡

어항시설을 단순히 어선과 수산물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토목구조물이자 유통 시설로 인식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다양한 역할이나 기능부여가 미흡한 상황이다. 어항시설의 관광자원화는 어항 이외에 주변 어촌지역의 주요한 수익창출 요인으로 FTA 등 외부환경 변화에 위축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또한 주5일 근무가 정착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촌을 중심으로 한 해양 관광의 중심에 있는 어항시설은 생산을 위한 단일 기능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최근 어항의 다기능화가 도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항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어촌지역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어항시설은 관광객들을 가장 쉽게 유인할 수 있는 마을의 랜드마크(landmark)와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어업 활동과 관련한 각종 체험활동과 어항시설의 다기능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레저 활동 겸용 등 다목적화된 공간이용을 통해 어촌공간의 활성화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관광자원화의 필수조건인 어항환경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후 평가 및 관리 방향의 재정립 필요

어항개발에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항개발의 사후적인 시설평가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그러한 평가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물론 어항의 이용 및 어업의 현황,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전망 등에 대한 제한요인이 있으나 다양한 접근을 통해 어항의 경제성 가치와

환경성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항개발과 관리의 사후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정부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어항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어항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등을 사후 평가함으로써 어항의 정비 및 관리에 피드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어항개발의 사후적인 평가는 개발 이전에 사전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질 때 비교 가능하게 된다.

어항의 사후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면 그 평가와 관리 정도에 따라 어항시설의 재정비를 통해 어항의 생산유통기능이 활성화된 곳은 보다 효과적인 생산유통기능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기능이 미흡하거나 상실된 곳은 어항재정비를 통해 관광자원화, 국민여가 공간화, 지속가능한 친환경공간(시설)으로 전환하는 등 어항개발, 관리, 평가, 재정비 등의 종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 3 장 미래여건 변화와 기존 사례 검토

1. 미래여건 변화

1) 연안공간 미래상

최근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증대되고 있고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을 제고하여 연안공간의 질을 향상하려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살기 좋은 연안을 만들기 위한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안공간의 상태와 미래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연안 만들기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연안 생태계 파괴, 해안경관 훼손, 연안오염, 연안의 접근성 제약 등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였다. 특히 연안의 대규모 개발과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지속적 증가로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였고, 육상폐수 및 쓰레기, 해상 투기물, 폐어망·어구 등 해양폐기물 등으로 연안 경관은 더욱 황폐해져 갔다. 따라서 지난 40여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선점식 난개발의 대상이 되어온 연안공간을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연안생태계를 보전·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 만들기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와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지역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안재해의 위험성과 취약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연안재해의 피해규모 최소화와 사후관리 차원의 대비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연안 지형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구축·가동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 주도의 연안 만들기

살기 좋은 연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지지와 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안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현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연안의 중요한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가 담긴 비전을 함께 세우고 공유함으로써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선호도 조사, 교육과 의견교환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방안을 제시하여 스스로 관리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어촌공간 미래상

(1) 어업인구의 변화

우리나라의 어촌사회는 어업소득에 의존하기보다는 어업외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어 사회구조가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령인구로 대부분 구성된 노동력 구조가 향후 10년 이내에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어업소득 수준의 향상에 비례하여 청장년층의 유입도 일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어업인구는 2004년 21만 명에서 2015년 약 15만 명, 어업종사자수는 2004년 12만 2천 명에서 2015년 약 10만 명 수준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¹²⁾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볼 때 어촌의 도시민 이주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은 더욱 높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촌의 향후 미래 잠재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2) 도시민 이주를 위한 복합생활공간으로서 어촌

최근 여가와 건강을 추구하는 풍토와 함께 노령인구의 증가로 시골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¹³⁾, 전국적으로 농어촌 정주주택단지 423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에 도시민 10,717호가

12) 해양수산개발원, 「수산 부분 전망을 위한 모형의 구축」, 2004, pp. 119~123.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정책 대안 개발」, 2006.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 정착하게 된 동기는 건강, 휴양, 여가생활을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50.9%)을 거주지로 선택하고 있었다.

즉 여가 및 건강을 위해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은 연고가 있거나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며, 특히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선호하는 도시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이주가 가능 생활공간으로서 어촌은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3) 어촌관광지로의 변모

어촌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관물은 바다가 제공하는 해수욕장, 일출/일몰, 다도해 경관, 기암괴석 등이다. 또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역에는 갯벌, 철새도래지, 하천 및 하구언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과 수목 및 화초 등도 어촌의 경관을 빼어나게 한다. 또한 어항을 비롯한 어구, 죽방림 등의 어촌풍경도 하나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다음 <표 3-1>은 어촌만의 고유한 경관과 경관을 형성하는 부존자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 어촌 고유의 경관

경 관	부존자원
해수욕장	2005년 현재 346개소 308.90km
기암괴석 해안절벽	전체 어촌의 46.6%가 보유(2001년 10월)
다도해적 경관	전체 어촌의 33.0%가 보유(2001년 10월)
바다 갈라짐	전체 어촌의 11.8%가 보유(2001년 10월)
해안경관지	일출/일몰지, 바다경관
갯벌	세계 5대 갯벌의 하나 면적 : 2,552.2km ² (2003년)
철새도래지	국제적 중요철새 3종 이상 연안 도래지 20개소
방풍림	전체 어촌의 26.0%가 보유(2001년 10월)
하천, 하구언	전체 어촌의 14.8%가 보유(2001년 10월)
수목 및 화초	전체 어촌의 18.3%가 보유(2001년 10월)
어항	국가·지방어항 412개소, 소규모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약 2,000여 개소
어촌풍경	어부림, 죽방림, 독살, 어선, 어구 등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00.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동하는 주 목적은 건강, 휴양, 그리고 여가인데, 어촌으로 가면 해양스포츠, 생태체험, 해수욕, 바다낚시, 경관감상, 역사·문화 탐방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표 3-2>는 어촌에서 누릴 수 있는 활동을 나열하고 있다.

<표 3-2>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

여가 활동	시 기	장 소
해양스포츠	봄, 여름, 가을	해양스포츠 적지
생태체험	연 중	갯벌, 철새 서식지, 어장
해 수 욕	하 계	비치발달지역
바다낚시	연 중	어항 및 갯바위 등
경관감상	연중 및 특정시기	일출/일몰 바다 갈라짐 다도해 등
역사·문화 탐방	연중 및 특정시기	역사유적지, 축제 등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지침 연구』, 2001.

어촌은 이러한 어촌 고유의 특성뿐만 아니라, 농업과 겸업하는 어가가 많고 임야가 발달해 있어 농·산촌의 경관 및 활동도 즐길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어촌은 해변관광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실버타운, 세컨드 홈으로서 새로운 복합생활공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기대된다.

3) 항만/어항 미래상

(1) 항만/어항 ULTRA화

최근 도시는 급격한 인구집중과 함께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획일적 생활환경과 생태환경 파괴로 삶의 질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이다. 반면, 주5일 근무제 정착, 국민소득의 증가와 과거의 개발지향주의 탈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개선 및 여가 활동의 증대 등으로 쾌적한 환경공간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주5일 근무가 정착된 1980년대 후반에 국민관광수요가 약 15% 증가하였고 새로운 친환경 마을만들기 운동 “마찌즈구리(まちづくり)”가 태동한 시점으로 우리나라 역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공간에 대한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년 해양관광관련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21조원에 이르고¹⁴⁾ 향후

14) 해양수산부, 해양관광기반조성 연구용역, 2006.

연간 9~12%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어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도 생활환경변화와 같은 궤적을 그리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⁵⁾. 특히, 항만도시 혹은 어촌 등 연안지역의 거주민들은 과거 접근이 제한된 항만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지역민 참여를 통한 친환경,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항만공간의 기능을 변화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다. 항만기능의 다양화를 통해 산업항만, 상업항만, 관광항만 등 그 기능을 구분하고 주민의 생활에 큰 상충관계가 없는 상업항만, 관광항만 등에 해수순환형 방파제, 항만환경 정화시설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화하고 방파제 낚시터, 해양전망대, 해양박물관, 해양공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친화형 항만으로 그 기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항만공간의 종합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항만은 기존 물류

<표 3-3> 미래항만의 변화 모습

종류	변화방향	비고
U-Port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효율의 자동하역 시스템, 지능형 터미널 운영시스템 등 최첨단의 항만 기술이 적용된 U 기반 스마트 항만의 건설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모든 산업에 도입되어 새로운 영역의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L-port	개념은 지속적인 신규시설 개발과 항만(무역항, 연안항, 어항) 기능 재편 등으로 마리나와 크루즈시설 확충을 통해 현재 일부지역 혹은 시설에 편중되어 있는 레저항만 기능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후도시의 시민들과 국내의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레저 기능을 보유한 레저항만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T-port	개념은 항만을 화물과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정보통신기능이 이동하고 집적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칭한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과 항만재개발 지역에 정보통신관련 다수의 기업들이 입지를 통해 항만기능의 증진과 함께 항만을 T-port화 하고 있으나 2030년 이후에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모든 항만들이 T-port 기능을 항만 내부에 기본기능으로 가지는 공간으로 기능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R-port	개념은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오염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항만도시 혹은 배후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후도시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환경지원과 보존기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항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생태계 및 환경을 고려한 해안 매립제,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한 연약지반 개량제 등을 개발하여 친환경적인 항만 공간을 건설하고 있다.	
A-port	개념은 노후항만 재개발과 리모델링, 친수공간 확보 등을 통해 항만의 심미성을 높이고 항만주변 시설물에 대한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여 항만공간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skyline)과 매력적인 경관(landscape)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항만환경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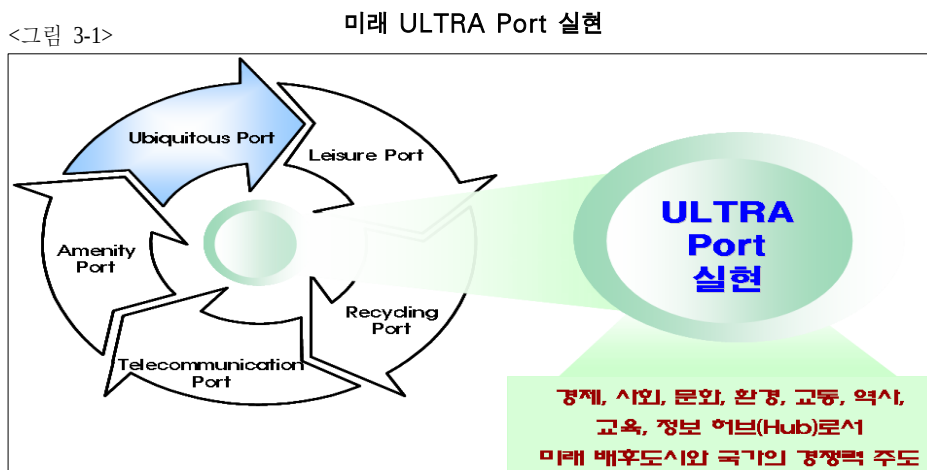
15) 해양수산부(ADL작성), 「2016미래 국가 해양전략」, 2006.

유통기능의 첨단화, 주변 도시기능의 흡수, 관광레저기능의 도입, 환경기능의 강화 등으로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항만으로 성장할 것이다.

미래 우리나라 항만들이 도시와 어촌의 종합기능을 수용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리딩(leading)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고효율·친환경의 ULTRA 항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ULTRA port는 U(ubiquitous)-port, L(leisure)-port, T(telecommunication)-port, R(recycling)-port, A(amenity)-port의 기능이 통합된 미래형 항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2020년 이후에는 U-city 구축과 함께 도시(연안, 어촌 포함)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간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하는 항만의 경우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 U-city의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한 초고효율·친환경 U-Port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21세기 우리나라 항만은 전국 연안지역의 주요 도시와 어촌지역에서 위에 언급한 5가지 기능을 흡수하여 최고의 효율을 갖는 친환경공간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 역사, 교육, 정보의 허브로서 연안 배후지역과 함께 국가의 경쟁력을 주도해 나가는 ULTRA 항만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어항의 다기능화

어항에서는 다기능항 조성이 국가 정책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미래에도 하나의 추세로 정착될 전망이다¹⁶⁾. 참고로 우리나라 어촌사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다른 어촌관광정책의 도입 및 어항의 개발방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촌과 어항의 개발방향은 수산업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

즉, 어항의 개발은 수산업 중심기능 외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 어촌관광, 교통, 생활거점기능 등을 포함하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다기능 어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기능 어항은 광의적 개념으로 어업활동과 함께 교통, 유통, 가공, 관광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어항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그림 3-2> 같이 교통어항형, 유통어항형, 관광형 어항, 복합다기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2>



그리고 이러한 다기능 어항의 개발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어항의 다목적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이루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쾌적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형 어항개발

- 체험어장, 해양스포츠, 해양관광, 문화 등과 연계하여 도시민과 어업인이 어우러진 휴식공간 제공 ⇒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16)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다기능어항에서의 마리나 개발방안 연구」, 2006.

- 어항구역내 오·폐수차집관로 설치 확대
- 어항내 수질보전을 위한 해수교류형 방파제 및 부방파제 시설 도입
- 둘째, 어항을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생산의 장으로 활용
- 어항 내에 종묘생산 및 중간육성장 시설 확충
- 고급 활어의 수요증가에 맞추어 활어 일시 보관장소 및 양식업 유치와 청정 해수 공급장소로 활용 ⇒ 양식장 피해 예방 및 어업인 소득 증대
- 셋째, 민간자본 적극유치로 어항기능 및 이용 활성화
- 어항배후 여유부지를 민간에 매각 및 민간자본유치 어항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어항시설관리권, 저당권 등) 부여
- 수산물시장·직매장, 냉동·가공공장 등 유통·가공시설 및 회센터, 숙박·목욕, 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유치

현재 정부에서는 13개소¹⁷⁾에 다기능 어항의 개발을 실시하여 어촌지역의 소득 다양화 및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에도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다기능 어항모델 개발이 향후의 추세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연안 지역을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본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한다.

2. 사례 검토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해외 사례

본 연구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들고 있는 해외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례를 보면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¹⁸⁾.

17)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I 모델은 7개소, II 모델은 6개소에 150억원 이상을 들여 2009년까지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8) http://www.balance.go.kr/policy/policy8_2.php?t_menu=1&l_menu=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구분	지 역	사 례 내 용
생태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 독일의 환경수도 - 도시내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등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자연에너지(태양열, 열병합) 활용 및 환경산업 발달
	콜롬비아 보고타	- 차없는 도시(사이클로비아) - 사람 1순위 차 2순위 정책에 따라 차량운행제한,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통하여 인간중심의 도시로 변모
문화역사 도시	스페인 빌바오	- 세계적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문화도시 - 제철산업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해 문화산업육성(구겐하임미술관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도시의 브랜드가치 제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을 관광산업에 활용(관광객 및 지역인구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첨단과학 산업도시	프랑스 소피아앙띠폴리스	- 유럽지식기반선도지역 - 지중해의 자연조건과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연구소(IBM)와 고급인력 유치를 통하여 세계 10대 지식기반 선도 지역으로 발전
	일본 토요타	- 세계최고의 자동차 산업도시 - 1차산업 쇠퇴(농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및 관련부품산업 유치로 인구증가(5만→35만명) 및 지역회생에 기여
교육도시	미국 보스턴	- 대학도시의 모범사례 -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한 30개 대학입지, 지역주민과의 교류(전문교육, 평생교육)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킴
	독일 하이델베르크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R&D파크 - 하이델베르크대학(1386년)을 중심으로 바이오테크 분야 최첨단 연구시설을 결집, 대학도시의 아이덴티티 부여
귀향마을	미국 선시티	- 은퇴자들의 고향마을 - 세계 최대의 노인마을로 은퇴자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병원, 요양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위락시설을 마련
	미국 사이프러스 빌리지	- 자연환경속의 공동체마을 - 은퇴자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을 배치, 마을 단위 공동체활동이 유지되도록 관리자를 두고 지속적 교류활동 지원

2) 중국 샤먼 -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된 연안도시 조성 사례

(1) 일반 개요

샤먼시는 중국의 후지안(Fujian) 성 남쪽, 대만해협 서쪽에 위치하고, 6개의 행정 구역과 1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¹⁹⁾, 총인구는 2001년 기준 130만명, 해안선은

234km, 해역 넓이는 334km²이다. 샤먼시는 1984년에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된 이후 과도한 연안개발로 해양오염, 서식처 파괴, 수산자원 남획, 다양한 이용행위 상충 등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1994년부터 시행한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1995~2001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을 15.7%로 유지하면서도 모범적인 환경관리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샤먼시는 ‘건강한 도시(State Health City)’, ‘정원도시(State Gardening City)’, ‘환경보호 모델 도시(State Model City in Environmental Protection)’, ‘관광모델도시(State Model City in Tourism)’ 등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내고 있다.

(2) 주요내용

샤먼시는 살기 좋은 연안도시로 만들기 위해 1994년부터 연안공간·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연안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12개 이상의 중앙·지방정부 부처와 전문가, 시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²⁰⁾

① 위안당호 복원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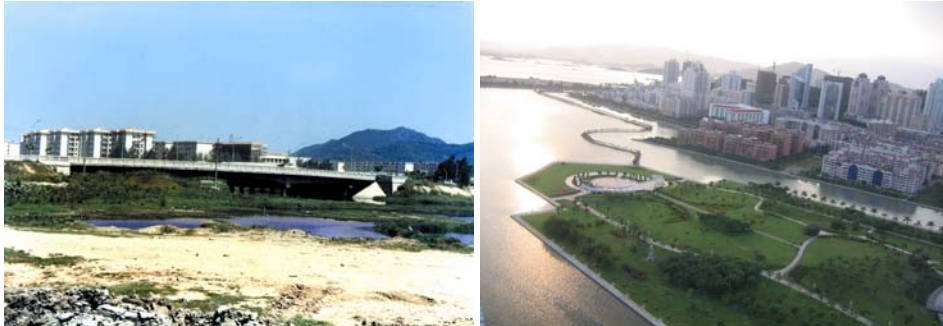
과거 위안당호는 1970년에 석호로 유입되는 해수를 차단하기 위해 석호 입구에 제방을 축조하고 매립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위안당호는 도시와 공단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수 및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10년도 채 되지 않아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어류자원과 백로(egret)도 사라졌다. 위안당호의 수질은 악화되고 유해가스(황화수소)가 방출됨에 따라 심한 악취가 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샤먼시 정부는 위안당호 복원사업을 추진하되, 본 사업의 기본목표를 위안당호의 환경 개선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이루어 모범사례로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정부에서는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위안당호를 정화하기 위해 4,3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 결과 수질이 개선되어 사회경제·환경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오수배출에 부과된 수수료, 토지가격 상승 및 세수증가에 따른 세입은 정화를 위한 투자비용을 초과하게 되었고, 위안당호 지역은 많은 투자자에

19) Kaiyuan, Siming, Gulangyu, Hulin, Jimei, Xinglin Districts와 Tongan County.

20) 샤먼시는 ‘샤먼 연안통합관리사업 조정위원회(Xiamen ICM project Coordination Committee, PCC)’의 통합체계에 따라 과거 다양한 부처에 의해 연안·해양관련 쟁점사항을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 즉, 정책간 단절 및 관련 부처간 상충, 관리범위와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의해 사업 적지로 선정되어 투자가 확대되었고, 1997년에는 국내외 투자, 관광, 거주지 개발을 위한 신도시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²¹⁾

<그림 3-3> 위안당호 정화사업 이전(좌)과 이후(우) 모습



출처 : Hong(2004)

촬영 : 최지연(2004)

② 친환경적 해안순환로 건설과 굴랑섬 관광개발

과거 동측연안에 해안도로의 건설을 시작으로 인공구조물이 무절제하게 설치되었고, 차량이 증가하면서 해변의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샤먼시는 동측해안의 자연해안선 보호와 개발을 위한 ‘해안 순환로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해안 순환로는 총 42km 길이로, 양방향 6개의 도로로 건설되었고, 녹지면적은 1,500천㎡, 녹지비율은 50~64% 정도로 설계하였다.²²⁾ 샤먼시 정부는 해안 순환로를 건설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는 환경보호와 도로의 기능성을 조화롭게 하되, 심미적 가치와 관광적 가치를 함께 고려할 것, 둘째, 자연해안선을 따라 길을 만들고 아름다운 해안선과 모래해변, 해안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할 것, 셋째, 도로가 모래해변을 점유하지 않도록 하며,

21) 비록 정화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사업 종료 후 얻어진 경제적 이익도 매우 높았다. Hao와 Peng(1998)의 연구에 따르면, Yuandang호 환경정화 사업의 총 비용(토목 건설, 운영, 매립 사업비 포함)은 제1단계 사업 시행 이후 USD 135.5million으로 평가하였고, 이익은 USD 12million에서 USD 1,230million으로 평가함에 따라 정화사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투입비용에 비해 9배 이상을 초과하였다.

22) 해안순환로의 녹지와 경관은 자연해안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경관은 ‘사람, 환경, 자연’이라는 원칙에 따라 디자인하였음(해변식생 보호 : 자연 해변식생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해변시스템 유지, 바다쪽의 도로 녹지화 : 바다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녹지화, 도로의 완충지대로 녹지조성 및 언덕 인근의 도로 녹지화).

해변을 가리는 커다란 나무와 건물을 제거할 것, 넷째, 해변개발과 보호의 조화, 모래해변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었다. 현재 샤먼 동측해안 개발, 연안관광산업 증진,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된 해안 순환로는 해안선·해빈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건설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모래해안과 해안선을 보호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생태경관으로 변화하였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되는 등 관광적 가치를 제고하여 많은 개발자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해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없고 경관이 뛰어난 샤먼의 해안 순환로는 환경보호와 개발 조화의 상징물이 되었다.

동측 모래해안(좌)과 해안사구를 안정화하기 위해 식재한 사구식생(우)
<그림 3-4>



촬영 : 최지연(2004)



촬영 : 최지연(2004)

파랑의 영향을 최소화한 방조제 조성(좌)과 해안순환로 건설(우)
<그림 3-5>



촬영 : 최지연(2004)



출처 : Hong(2004)

굴랑섬은 면적 1.78km², 2만여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나 매년 수백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굴랑섬에는 중국풍과 유럽풍의 많은 건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천연모래와 바위, 아름다운 해변 등 역사·문화적 자산과 자연자산이 풍부하다. 샤

<그림 3-6> **샤먼 시내와 굴랑섬 전경**



촬영 : 최지연(2004)



촬영 : 최지연(2004)

먼시 정부는 섬의 생태관광을 위해 오염원 근절 및 주거지 확장을 제한하였고, 특히 자동차 통행을 완전 제한했다. 섬내에서 통행은 보행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광이나 공공목적에 한해서만 대기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샤먼시 정부는 굴랑섬 관리를 위해 개별 주택의 정원과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녹지축을 형성하고, 붉은 색 계열의 지붕과 수목의 높이에 제한을 두어 아름다운 연안경관을 조성하였다. 굴랑섬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함께 잘 가꾸어진 인공적인 환경을 통해 관광자원화에 집중된 지역관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7> **굴랑섬 내 해수욕장과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한 다리**



촬영 : 최지연(2004)

<그림 3-8> **굴랑섬의 차 없는 거리와 전기자동차**



촬영 : 최지연(2004)



촬영 : 최지연(2004)

3) 일본 - 어장·어항·어촌 통합관리정비 사례²³⁾

(1) 개요

일본 농림수산업성에서는 어장·어항·어촌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 정비와 해양 환경보전을 통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환경의 보전, 아름답고 안전하며 생동감 넘치는 해안을 조성하는 데 있다. 특히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연·문화자산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안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9>

어장·어항·어촌 정비사업 기본 개념도



(2) 주요 내용

어장·어항·어촌의 정비사업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목표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어업생산성 향상,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밀착형 어항·어장만들기’, ‘수산물 유통 거점 만들기’, ‘어항·어장기능 강화’, ‘수산물 유통 효

23) 일본 농림수산업성 어항어장정비부 웹사이트 참조(<http://www.jfa.maff.go.jp/gyokogyojo/index.htm>).

유희’, ‘폐각을 이용한 어항·어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역과 가장 가깝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어항과 어장을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의 수산자원 유지·증진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특히 폐각 등 어업부산물 등을 처리하는 곳이 없어 그동안 불법투기 등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어촌경관이 훼손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각을 활용한 복사재(覆砂材), 지반 개량재, 콘크리트 골재 등으로서 어항어장정비사업에 활용하고 동시에 강도·내구성이나 기능의 검증을 하는 모델사업을 실시하여 폐각을 활용한 어항·어장 재생사업 추진과 기술 이전 등을 도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어촌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어업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해 ‘풍부한 바다의 숲 만들기’, ‘자연조화·활용형 어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오니 등 오염원이 침적되어 있는 어장에 대해 준설, 복토사업을 통해 복원하거나 어장으로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 수산자원의 생식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촌의 아름다운 어항경관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주민들에게 연안에 안전하게 접할 수 있는 교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어촌의 공생·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 ‘안전한 해안 만들기’, ‘주민참가형 어촌 커뮤니티 만들기’ 사업이다.

<그림 3-10>

연안재해로부터 해안보호



출처 : <http://www.jfa.maff.go.jp/gyokogyo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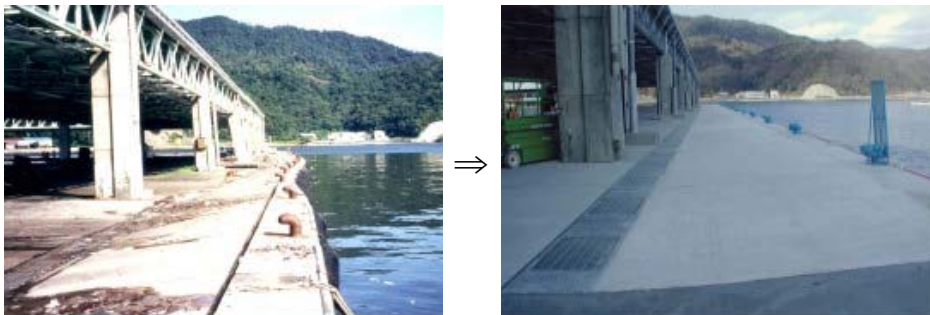
<그림 3-11>

어촌경관 정비

출처 : <http://www.jfa.maff.go.jp/gyokogyojo>

특히 일본은 자연재해에 우리나라보다 더 취약한 지형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지금까지 태풍, 지진, 쓰나미 등 많은 연안재해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한 해안을 만들기 위해 연안재해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과 어항·어장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3-12>

연안재해 복구사업

일본의 어촌·어항·어장 만들기 기본목표와 사업 유형

기본목표	사업유형	주요내용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기반 정비	지역밀착형 어항·어장 만들기	- 지역에 가장 가깝고 밀접한 ‘연안어업 및 증·양식의 진흥에 도움을 주는 어항’을 정하여 일체 정비
	수산물 유통 거점 만들기	- 어항과 그 주변 어장의 계획적인 정비에 의해 수산물의 생산·유통의 거점 만들기를 추진하고 국민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도모
	어항·어장 기능 강화	- 어항·어장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량하여 어항·어장이용을 증진시키고 수산자원의 생식환경을 보전, 품질·위생관리강화,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등 기존의 어항·어장시설 기능의 고도화, 다기능이용의 증대
	수산물 유통 효율화	- 어항과 간선도로 등을 연결하는 접근도로를 정비하고 어획물의 유통이나 어업용자재의 유통 합리화를 통해 어업생산의 근대화를 도모하고, 그와 더불어 어촌환경의 개선
	폐각을 이용한 어항·어장 정비	- 악취와 경관훼손에 주요원인이었던 폐각을 이용해 복사재(覆砂材), 지반 개량재, 콘크리트 골재 등으로서 어항어장정비사업에 활용하는 등 어항·어장 재생사업 추진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환경 보전	풍부한 바다의 숲 만들기	- 수산생물을 기르는 ‘풍부한 바다의 숲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자연환경과의 조화, 수산자원의 생식환경 등의 적극적인 보전·창조
	자연조화·활용형 어항 만들기	- 연안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어항·어장시설 등을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물, 기술도입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
안전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안 조성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	- 아름다운 어항경관을 증진시키고, 어촌의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제공 - 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촌의 풍부한 자연 등에 안전하게 접할 수 있는 교류공간을 제공하며, 도시와 어촌의 공생·교류의 촉진 도모
	안전한 해안 만들기	- 태풍, 지진, 쓰나미 등의 많은 연안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비해 조기 복구를 도모함 - 배후지가 협소하고 연안해역의 매립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공용지의 확보가 곤란한 장소에 있어 국토를 보전하면서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조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 보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주민참가형 어촌 커뮤니티 만들기	- 시정촌의 주도권 하에 지역 전체의 진흥계획에 근거한 신어촌커뮤니티 기반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적인 대처 지원 등의 소프트시책과 수산기반정비사업 등의 하드정비를 일체적으로 전개하고 주민참가형의 새로운 어촌커뮤니티 만들기를 추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업 어항·어장정비부 홈페이지(<http://www.jfa.maff.go.jp/gyokogyojo/index.htm>)

4) 일본 - 어항기능과 친수기능을 함께 갖춘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

(1) 개요(일본 나가사키 인근 어항)

개항 이래, 나가사키 지역은 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래서 도시의 임해부에 있는 항의 개발이 나가사키 지역의 장래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나가사키 어항에 있는 나가사키지구(이하 나가사키지구로 부름)의 특징은 [항]과 [강]에 접한 친수공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혹은 소규모의 워터프론트 개발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와 환경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나가사키 어항 친수공간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어항 친수공간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 나가사키지구에는 제1차(1951~1954)부터 제4차(1969~1972)의 어항정비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안벽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안벽의 일부는 노후화되어, 이후에도 어항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비를 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 졌다.

또한, 나가사키지구 및 주변에는 현청사의 건설, 나가사키역 주변 토지구역 정비 사업, JR(철도)나가사키 본선 연속 입체 교차사업, 큐슈신칸센(철도) 나가사키역의 정비, 도시계획도로 우라가미가와센의 정비, 아사히마찌지구 시가지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계획이 있고, 현민, 시민 및 관광객의 이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사업이 사업주체, 사업스케줄이 다른 역 주변 개발 등과 연대하여 상호 조정해 나가면서 일체적인 어항 친수공간 조성이 추진되었다.

(2) 어항 경관형성 사업

① 경관형성의 방침

나가사키시의 지역이미지는 ‘관광의 시가지’, ‘언덕(비탈)과 항의 시가지’로 정착되어 있었다. 한편 지역 이미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가사키에 오기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가사키에 오기 전에는 ‘이국정서가 풍부하여 로맨틱한 언덕과 항의 시가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나가사키를 다녀간 후에는 ‘언덕과 계단이 많은 독특한 지형’으로 인식하여 어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관광객이 나가사키시의 얼굴인 역 주변에 내릴 때, 항, 바다를 인식하지 못하고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고 험준한 지형에 의한 폐쇄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역 주변 지구에 있어서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사키어항지구에서는

각종 친수공간 관련 혹은 경관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바다, 항 등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매력적인 도시공간의 형성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나가사키어항지구의 바다, 항구, 하천 등의 환경자원을 활용하고 주변 대상지역과 연계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하였다.

- 가) 바다, 항구를 체험할 수 있는 대형공간의 확보(나가사키역~오노우에 지구)
- 나) 주변 시가지로의 조망 확보(오노우에 지구의 계획청사, 토지이용계획 전환)
- 다) 심벌이 되는 거점적 공간의 창출(현청남측 광장, 아사히마찌 재개발, 모미지가와 주변공원, 마루오 지구)
- 라) 주변시가지로부터 수면 및 수제선부로의 조망 확보
- 마) 중심시가지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경관 축의 창출(역~현청, 역~모미지하시 주변~마루오)

② 경관형성의 기본 컨셉

㉠ 주변으로부터의 도시골격으로서의 표현

무미건조한 어항 주변의 수변 분위기를 밝게 하고 경관의 방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해안 조망을 고려한 연속적인 녹지축을 구축하였다.

㉡ 보행자의 쾌적한 공간으로서의 표현

어항과 그 주변의 보행자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변의 산책로는 넓은 폭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③ 경관형성 계획

㉠ 데스크와 벤치의 배치

산책로의 기능을 높이고 휴식을 위한 체류공간으로서 해안의 많은 데스크와 벤치를 적절하게 해안선(100m 간격)에 배치하였다.

㉡ 산책로의 폭

배후지의 장래 토지이용의 확장 전환을 고려하여 임해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였다. 수변의 산책로는 하천의 계획 제방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현 지반 높이로부터 50~70cm 정도 높이로 계획하였고 산책로는 현재 어항의 에이프런 부분을 활용해 5m 정도의 폭으로 우라가미가와 해안에서 이나사바시까지 연장하였다.

㉔ 가로수

기본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산책길과 주거지측의 보도에 연속적인 가로수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경관을 위해 산책로의 임향도로측에도 연속적인 가로수를 배치한다.

㉕ 도면

산책로의 포장은 폭을 넓게 느낄 수 있도록 보도를 직각방향으로 디자인하였고, 임향도로의 차도 및 보도부분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땅”이라고 하는 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㉖ 조명

도로의 야간 밝기를 확보하고 해안에 대한 빛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가로수 배후(도로와 차도의 경계부)에 조명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 조명은 해안에 대하여 산책로의 연속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눈부심이나 색온도가 낮은 기구를 선택하였다.

㉗ 산책로의 지주, 지지대

산책로의 지주는 내구성을 고려하고 눈에 띄지 않는 색으로 하였다. 지지대는 안전성을 고려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관형성계획을 모미지교, 아사히오교, 마루이 지구 등에 적용하였다.

(3) 경관형성 사업의 성과

과거 산만한 어항 분위기와 어항과 바다라는 상징성이 없었던 이곳을 임향도로, 가로수, 건축물 등을 경관측면에서 어항, 바다 중심으로 정비하고 주변 기반시설과 현청사 재건축 등에도 일관된 경관을 중심으로 한 보수 및 정비를 하여 어항의 환경과 상징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주변 어촌과 토지이용 측면에서 연결을 유도하였고 지역주민, 관광객, 배후도시민이 쉽게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한 것이다. 어항시설을 중심으로 경관이라는 요소를 잘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을 높이고 어항의 경관적 요소를 부각하여 관광객들을 유인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어항정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현재 펼치고 있어 어항 주변지역의 모든 구조물의 상세설계는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시민, 주민으로 조직된 협의체에 의해 검토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과거의 떠나는 어촌에서 어항을 통해 새롭게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어항어촌을 만든 좋은 사례가 되었으며 이는 생존의 기로에 있는 우리나라 어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재개장 사례

부산 송도해수욕장은 부산에서 1920년경에 가장 먼저 개장한 해수욕장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광안리, 해운대해수욕장이 개장되면서 해안 침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폐장되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을 지원 받아 해수욕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침식된 백사장에 대한 양빈사업과 더불어 침식을 막기 위하여 해상과 해중에 이안제(離岸堤)²⁴⁾, 잠재(潛堤)²⁵⁾를 설치하였다. 향후 도로 확장, 야간 경관 조명, 인공폭포 조성 등이 추가로 계획되고 있다.

송도해수욕장은 이를 계기로 2005년에 재개장하여 약 35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크게 성공적인 재개장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근의 상가나 편의시설들의 재활용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도와 송도해수욕장 인근을 잇는 대교가 건설 중에 있어 송도해수욕장이 새로운 부산 서부의 명물로 재부상하는 계기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도로 확장,

<표 3-5> 송도해수욕장 정비사업 내역

구분	개요	규격	사업비/비고
■ 외곽시설(방재, 사장유실 및 침식방지)-122억원			
1	잠재	L=300m, B=40m	80억원, 04, 6완료
2	이안제	L=140m, B=6m	15억원, 04, 8완료
3	연육제	L=73m, B=5m	10억원, 02, 5완료
4	송림공원 호안정비	L=200m, B=15m	7억원, 04, 10완료
5	거북섬 호안정비	L=84m, B=8m	10억원, 05, 11완료
■ 양빈 및 친수 조경공간조성			
6	양빈(사장확장)	L=800m, B=50~70m	87억원, 05, 7완료
7	친수조경공간	L=800m, B=25~40m	55억원, 05, 12완료
8	야간경관 조명	수목등, 스텝등 볼라드, 파고라	15억원, 05, 12완료
■ 해안도로 확장			
9	해안도로 확장	L=1,600m, B=12~15m	81억원, 05, 12완료
■ 송도관광테마공간 조성사업			
10	송도관광테마공간 조성사업	인공폭포, 송림공원 거북섬 정비 등	70억원, 07, 12완료

자료 : 중구청, 송도해수욕장 중간보고(요약), 2005. 9.

24) 해변과 평행하여 바다 위에 설치한 일자형 구조물로서 해변 침식을 막고 모래를 퇴적시키는 기능을 가짐.

25) 해변과 평행하게 수중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해변이 침식을 막고 파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중보(水中淤)라고 할 수 있다.

야간 경관 조명, 인공폭포 조성 등 기타 정비까지 마치면 부산 서부의 해변 명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3>

송도해수욕장의 정비사업 위치도



6) 강진 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사례

강진 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은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항내에 총 사업비 112억원으로 2005년 2월~2006년 9월 중에 조성되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물부가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관광모델 3가지 사업 중 ‘1모델’인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시설 내역을 보면 동부, 중앙, 서부의 3개 해상 데크형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상호 연계하고 배후의 레스토랑, 수산물 직판장, 수협시설, 어항시설 등과 연계하여 조성하였다.

배후와 인근에 있는 마량의 전통 성곽, 정다산 생가, 영랑 생가 등 문화역사 유적 및 까막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과 연계하여 관광이 가능하고 강진 청자 축제 등 각종 이벤트와도 연계가 가능하다. 본 시설 개발로 어촌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어 마량 어촌 내 각종 상점들의 수입이 증대되고 지역주민들도 이들 시설을 하나의 건강 체육공원 시설로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객들의 상생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14>

마랑항 개발 조감도



<그림 3-15>

마랑항 조성 현장



7) 평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국은 연안관리, 해안 정비, 어촌·어장·어항 통합사업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 공간, 환경, 삶의 질, 경관 등 연안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연안, 어촌·어항 등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부분적인 해결보다 통합적인 해결
- 과거보다 환경, 어메니티 제고 등에 노력
- 연안 지역의 차별화 방안의 정주적 모색

제 4 장 연안공간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연안공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용실태,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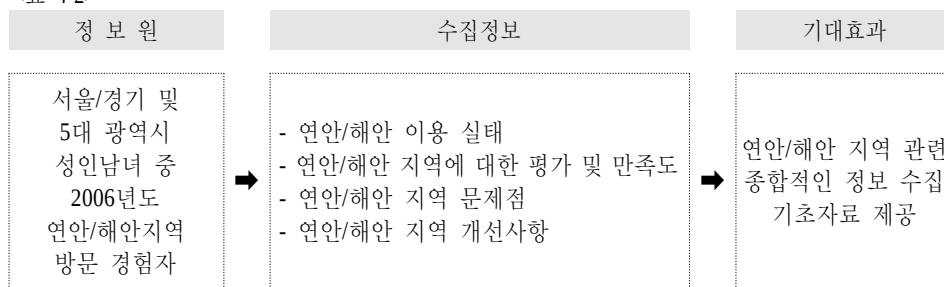
<표 4-1> 설문조사 조사설계

구 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 성인 남녀 중 2006년 연안/해안공간지역 방문 경험자
조사규모	유효표본 350개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인면접조사(조사수행기관 : 코리아리서치센터)
조사기간	2007년 6월(1개월)
주요 조사항목	- 연안/해안공간 지역 이용실태 파악 : 연안공간 방문횟수, 만족도, 방문시 주요 활동, 향후 희망활동 - 연안공간에 대한 평가 : 연안공간 문제점, 관리실태, 육지공간과의 비교 - 향후 연안공간의 관리방향 : 연안공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향후 항만/어항 공간의 개발방향, 연안 이용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개선점

본 설문조사는 서울/경기도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중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연안/해안공간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안공간의 이용 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 수행체계는 <표 4-2>와 같다.

<표 4-2>

설문조사 수행체계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표본의 특성

구 분	표 본 의 특 성	사 례 수	구 성 비 (%)
전 체	-	350	100
성 별	남성	172	49.1
	여성	178	50.9
연령분포	20대	77	22
	30대	87	24.9
	40대	85	24.3
	50대 이상	101	28.9
지역분포	서울	100	28.6
	인천	40	11.4
	경기	50	14.3
	대전	40	11.4
	광주	40	11.4
	대구	40	11.4

2. 인식도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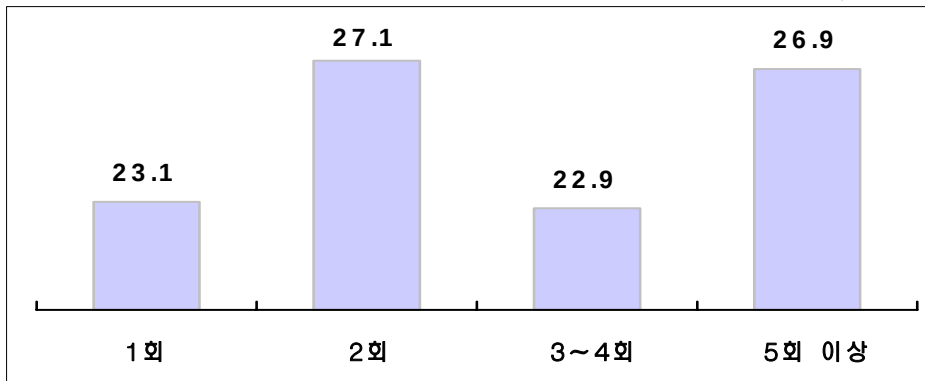
1) 연안지역 이용실태

연안지역의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바닷가 지역의 방문빈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연안 바닷가 방문횟수는 1회 23.1%, 2회 27.1%, 3~4회 22.9%, 5회 이상 26.9%로 나타나 2회 방문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연안(바닷가)지역 방문 빈도

<그림 4-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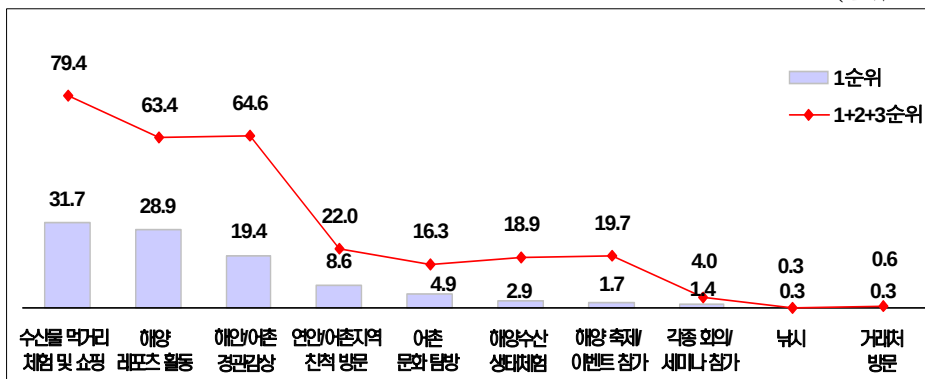
국내 연안/바닷가지역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방문목적은 1, 2, 3순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조사결과, 주된 방문목적으로는 ‘수산물 먹거리 체험 및 쇼핑’이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해양레포츠 활동’ 28.9%, ‘해안/어촌 경관 감상’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 2, 3순위를 모두 집계한 결과에서는 ‘해양레포츠 활동’ 보다 ‘해안/어촌 경관 감상’ 활동 비중이 다소 높게 집계되었으며 그 밖의 활동들은 1순위를 분석한 결과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년간 연안(바닷가)지역 방문 목적

<그림 4-2>

(단위 : %)



그리고 연안지역의 방문빈도와 방문목적은 상호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안(바닷가)지역 방문빈도와 방문 목적 비교

<표 4-4>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1회	2회	3~4회	5회 이상
전 체		(350)	23.1	27.1	22.9	26.9
성별	남성	(172)	23.3	23.8	22.1	30.8
	여성	(178)	23.0	30.3	23.6	23.0
연령별	20대	(77)	28.6	20.8	29.9	20.8
	30대	(87)	20.7	27.6	16.1	35.6
	40대	(85)	17.6	32.9	23.5	25.9
	50대 이상	(101)	25.7	26.7	22.8	24.8
직업별	화이트 칼라	(70)	17.1	34.3	22.9	25.7
	블루 칼라	(68)	14.7	30.9	22.1	32.4
	자영업	(106)	26.4	25.5	22.6	25.5
	학생	(30)	43.3	13.3	13.3	30.0
	주부	(71)	22.5	23.9	28.2	25.4
	무직/기타	(4)	50.0	25.0	25.0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방문 목적별	수산물 먹거리 체험 및 쇼핑	(111)	13.5	28.8	26.1	31.5
	해양 레포츠 활동	(101)	33.7	23.8	21.8	20.8
	해안/어촌 경관 감상	(68)	22.1	29.4	29.4	19.1
	연안/어촌지역 친척 방문	(30)	20.0	16.7	16.7	46.7
	기타	(40)	27.5	35.0	10.0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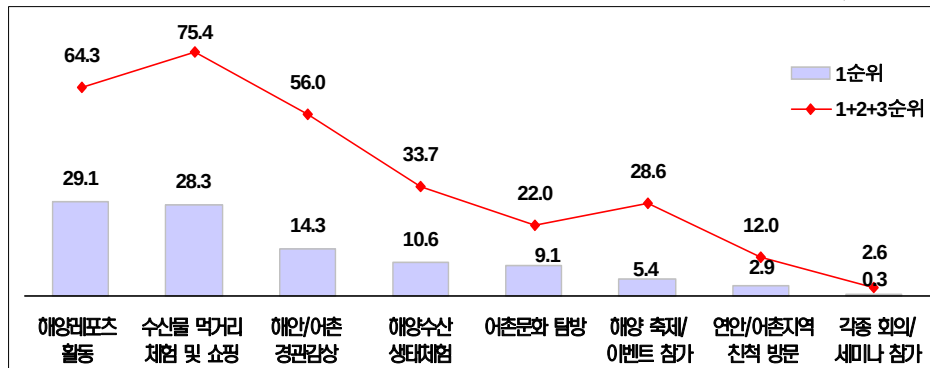
조사결과, ‘5회 이상’ 연안지역을 찾은 응답자들의 특성은 남성, 30대, 블루칼라, ‘연안/어촌지역 친척방문을 위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4회’ 방문자는 20대, 주부, 해안/어촌경관 감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향후 연안지역 방문 시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해양레포츠 활동’이 2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산물 먹거리 체험 및 쇼핑’ 28.3%, ‘해안/어촌 경관감상’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3> 참조). 그리고 1, 2, 3순위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수산물 먹거리 체험 및 쇼핑’이 ‘해양레포츠 활동’ 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의 어촌·어항 방문시 희망활동

<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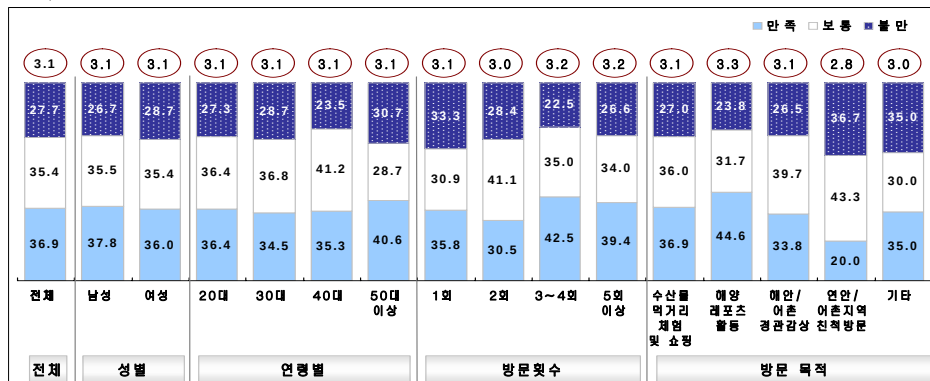
(단위 : %)



우리나라 연안/해안공간의 시설/환경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이 응답자의 36.9%가 국내 연안/바닷가 시설 및 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7.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 50대 이상, 3~4회 방문경험, 해양레포츠 활동 목적으로 방문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만족도



한편 ‘매우 만족’에 대한 응답을 5점, ‘약간 만족’을 4점, ‘보통’을 3점, ‘약간 불만’을 4점, ‘매우 불만’을 1점으로 하여(리커트 5점 척도화)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이 3.1로 나타나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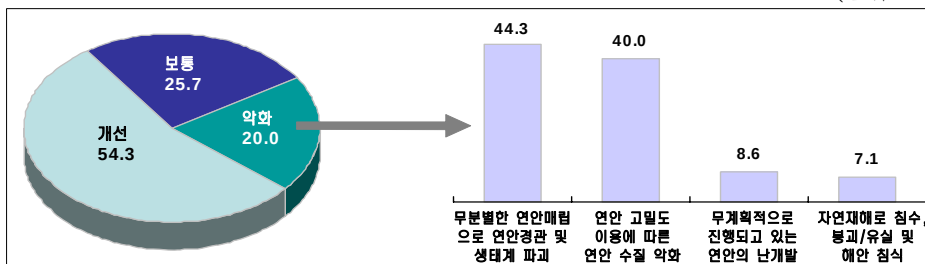
연안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연안/해안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연환경, 주거 환경, 각종 시설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하여 우리나라 연안/해안 공간의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3%가 과거에 비해서 연안/바닷가 시설 및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5> 참조). 그리고 보통이라는 의견이 25.7%, 악화되었다는 의견은 20.0%로 조사되었다.

한편, 과거에 비해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유로는 ‘무분별한 연안매립으로 연안경관/생태계 파괴’가 4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안 고밀도 이용에 따른 수질악화’ 4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안/해안공간의 여건에 대한 평가/원인

<그림 4-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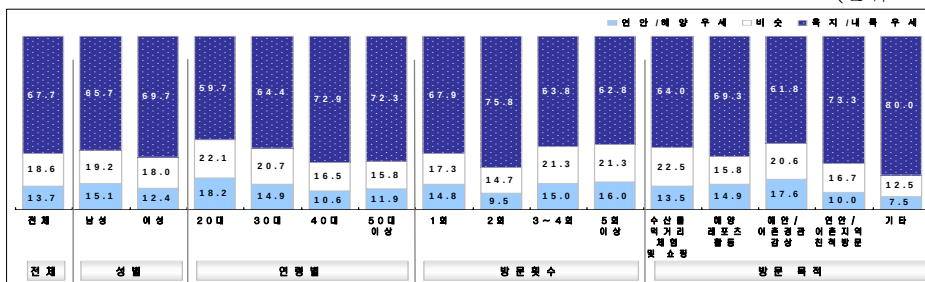


연안/해안공간의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도시 등 육지공간과 연안/해안공간의 질을 비교 평가한다면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우세한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6>과 같다.

육지공간 대비 연안/해안공간의 질에 대한 비교평가

<그림 4-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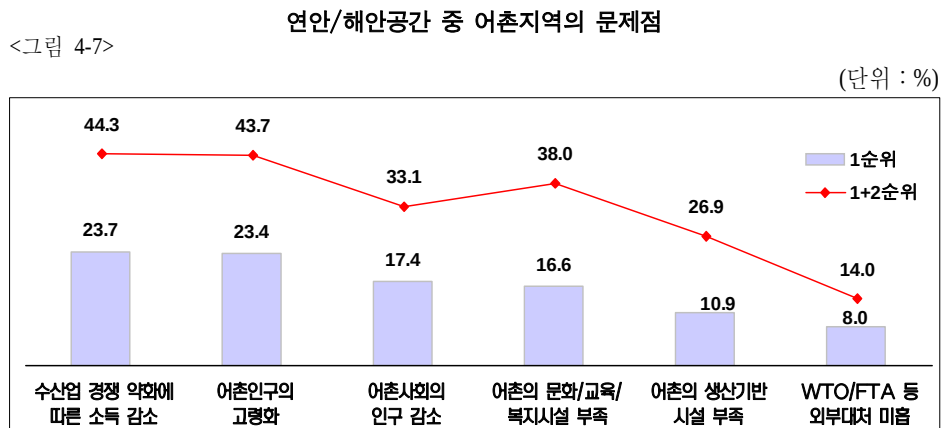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13.7%만이 육지/내륙공간에 비해 연안/해양공간이 우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육지/내륙공간이 우세하다는 응답은 67.7%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연안/해안공간보다는 육지/내륙공간이 질적 측면에서 다소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 20대, 해안/어촌경관 감상을 목적으로 연안/어촌지역을 방문한 응답자들에서 상대적으로 연안/해양이 우세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실태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연안/해안공간을 ‘어촌’, ‘어항’, ‘항만’, ‘연안’ 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어촌지역 문제점을 1순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산업 경쟁 약화에 따른 소득 감소’ 23.7%, ‘어촌인구의 고령화’ 23.4%, ‘어촌사회의 인구감소’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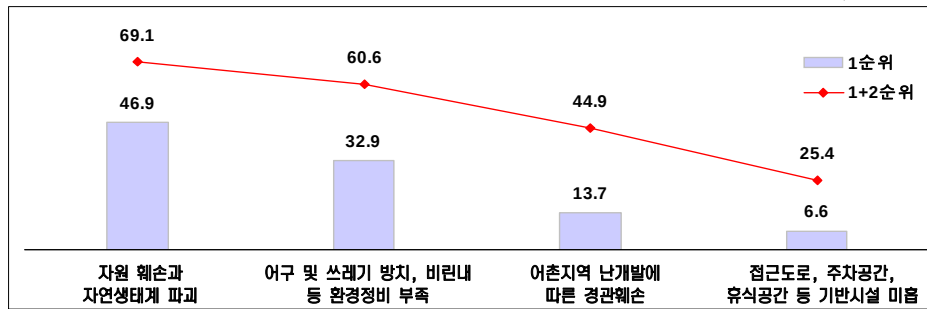


그리고 어촌 및 어항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1순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8>과 같이 ‘자원 훼손과 자연생태계 파괴’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환경정비 부족’ 32.9%, ‘어촌지역 난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안/해안공간 중 어촌·어항공간의 문제점

<그림 4-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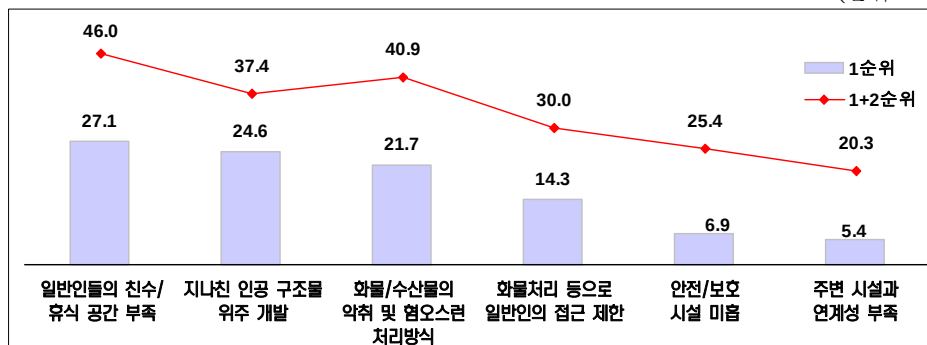


다음으로 연안/해안공간 중에서 항만/어항의 문제점을 1순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인을 위한 휴식공간 부족’ 27.1%, ‘인공구조물 위주 개발’ 24.6%, ‘화물/수산물 악취 및 혐오스런 처리방식’ 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9> 참조).

연안/해안공간 중 항만/어항의 문제점

<그림 4-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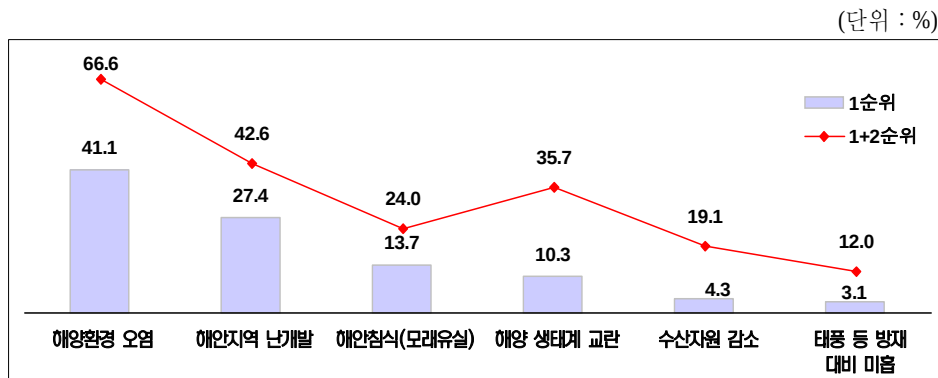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국내 연안지역의 문제점을 1순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10>과 같다.

분석결과, ‘해양환경 오염’ 41.1%, ‘해안지역 난개발’ 27.4%, ‘해안침식’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문제점

<그림 4-10>



우리나라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각 부문별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어촌의 측면에서는 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어항공간에서는 자연환경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만시설은 일반 대중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이나 휴식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연안이 해양환경 오염과 더불어 난개발로 인하여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환경보전과 더불어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우리나라 연안/해안공간의 관리방향

국내 연안/해양공간에 대한 부문별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관리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연안/해안공간의 관리 실태를 육지공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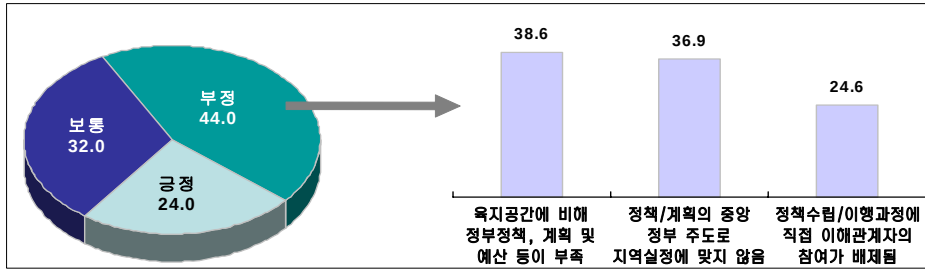
분석결과, 연안/해양공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응답은 24.0%로 저조하게 나타난 반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4.0%로 나타나 부정적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되었다.

한편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이유로는 ‘육지공간에 비해 정부정책, 계획/예산 부족’ 38.6%,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계획’ 3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참조).

연안/해안공간의 체계적 관리여부와 문제점

<그림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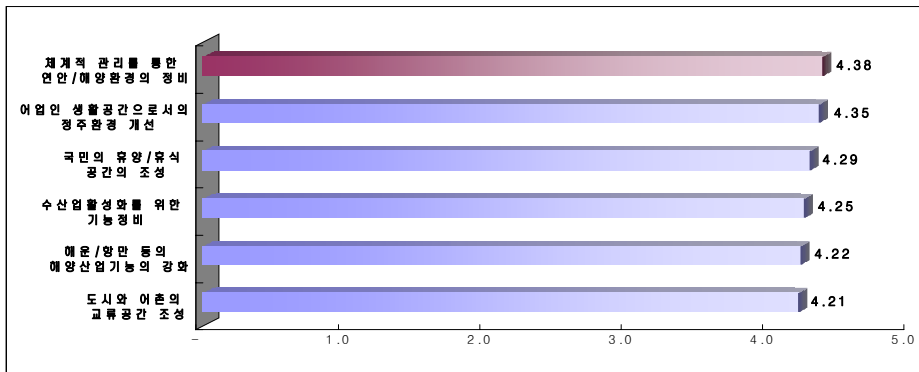
(단위 : %)



한편, 향후 ‘살기 좋은 해양/연안공간’ 조성을 위한 6가지 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12>와 같다²⁶⁾.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6개 항목 모두에 대하여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6개 항목 모두 4.2 이상으로 나타남). 그리고 6개 항목 중에서는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연안/해양환경 정비’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2>

연안/해안공간 개선을 위한 중요사항 평가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이나 바닷가의 기능 중에서 어떠한 기능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보면 <그림 4-13>과 같다. 응답자들은 연안/해안공간의 중요 기능으로 ‘휴양/휴식 기능(28.9%)’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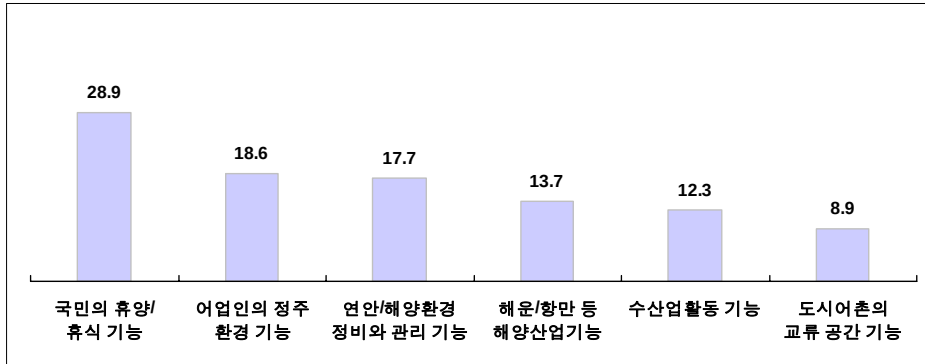
26) 리커트 5점 척도 평가 :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점에, 반대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점에 표시하여 평가함.

업인 정주환경’ 18.6%, ‘연안/해양환경 정비/관리기능’ 17.7% , ‘해운/항만 등 해양 산업기능’ 13.7%, ‘수산업활동 기능’ 12.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연안/해안공간의 중요기능

<그림 4-1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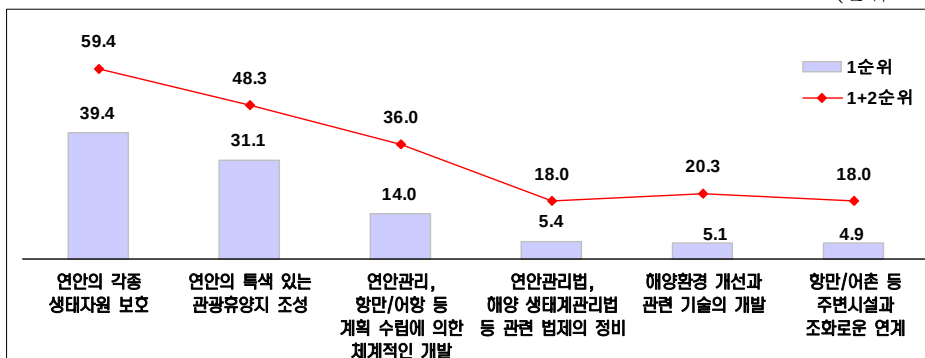


한편, 연안/해안 공간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각종 생태자원 보호’ 39.4%, ‘관광휴양지 조성’ 31.1%, ‘체계적인 개발’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14> 참조).

연안/해안공간 기능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그림 4-1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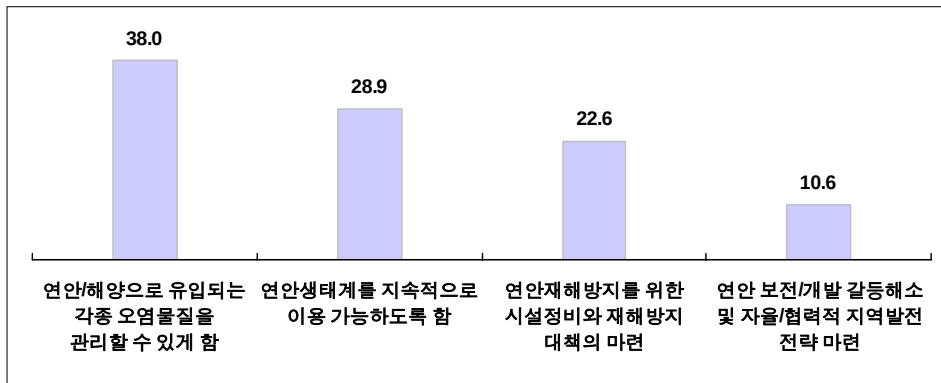


그리고 연안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각종 오염물질 관리’ 38.0%, ‘연안생물 서식지 관리’ 28.9%, ‘재해방지를 위한 정비/대책 마련’ 22.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15> 참조).

연안공간 질적 개선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그림 4-1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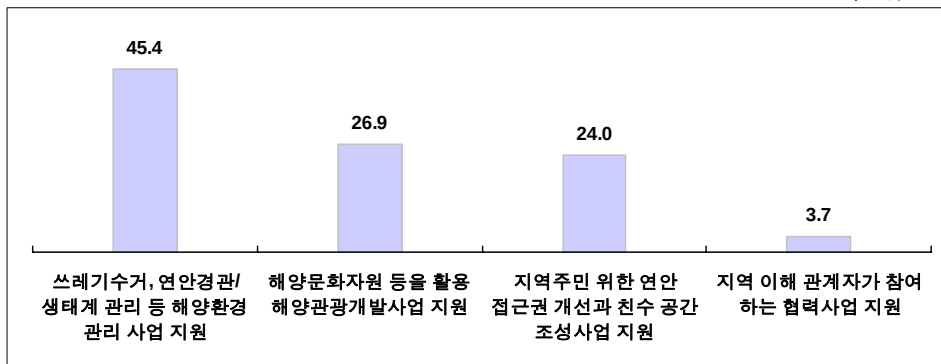


연안/해양공간 기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살펴 보면 <그림 4-16>과 같다. 분석결과,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으로는 ‘해양환경관리 사업 지원’ 45.4%, ‘해양관광개발사업 지원’ 26.9%, ‘연안 접근권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사업 지원’ 24.0%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해양공간 기능제고를 위한 정부차원 지원대책

<그림 4-1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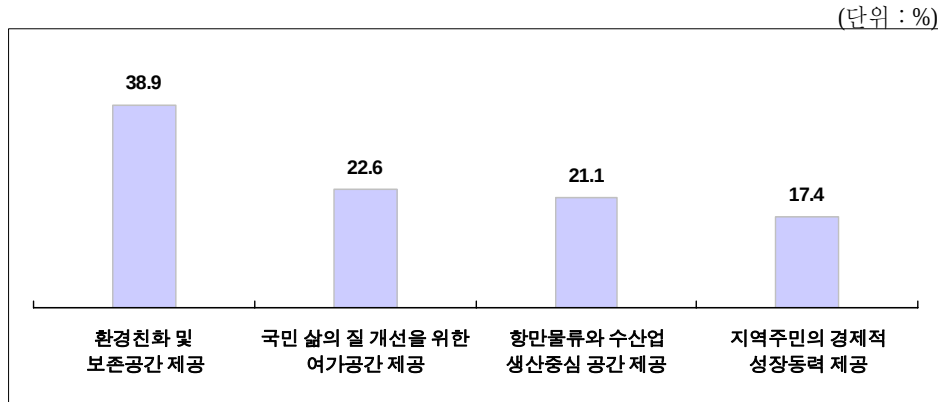


연안/해양공간 기능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와 질적 개선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응답자들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관광 및 휴식활동의 목적지로서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정책방향 또한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향후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연안/해안 공간의 발전을 위한 항만/어항의 미래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17>과 같다. 분석결과, ‘환경친화/보존공간 제공’ 38.9%, ‘여가공간 제공’ 22.6%, ‘물류/수산업 생산중심공간 제공’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환경과 더불어 여가공간에 대한 의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만/어항시설의 미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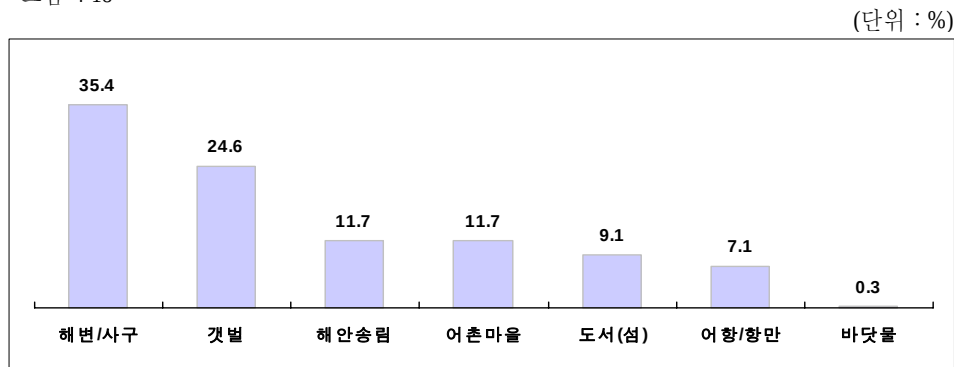
<그림 4-17>



마지막으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연안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해양자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18>과 같이 ‘해변/사구’에 대한 중요도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갯벌’ 24.6%, ‘해안송림’과 ‘어촌마을’이 각각 11.7%, ‘도서(섬)’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연안이 되기 위하여 관리해야 할 자원

<그림 4-18>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 국민의 연안공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서울과 경기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6년 한 해 동안 연안지역 방문빈도에서는 2회(27.1%)와 5회 이상(26.9%) 방문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바닷가지역에 대한 방문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바닷가지역 방문자들의 주요 활동으로는 수산물 먹거리 체험 및 쇼핑, 해양레포츠활동, 경관감상 등이 있으며 향후 희망활동으로는 해양 레포츠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를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해보면 보통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평가에서는 과거보다 여건은 개선되었지만 무분별한 연안매립으로 인한 연연경관과 생태계파괴, 연안수질의 악화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연안공간의 질을 육지공간과 비교해 볼 때, 육지공간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안공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연안공간을 어촌, 어항, 항만, 연안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문제점을 평가한 결과, 어촌에서는 어업인 소득을 다양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어항과 항만공간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공간의 부문별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서 우선 연안공간은 육지공간에 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연안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의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안공간의 관리 방향의 수립은 연안의 각종 생태자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연안공간을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 국민은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이용빈도와 더불어 향후 이용방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연안/해안공간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관심도에 비하여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연안공간의 질적 수준이 육지공간에 비하여 다소 열악한 위치를 차지한

<그림 4-19> 연안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종합분석



것은 기존의 정책적 관심이 육지공간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연안공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데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연안/해안공간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대처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이용방향이 자연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휴식활동 공간의 구성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안공간에 대한 정책방향 또한 보전적 활용방안의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개발모형 및 사례 연구

이 장에서는 먼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제시한 비전과 실천과제를 살펴보고 이와 연계된 해양수산부의 비전과 개발과제 등을 살펴보고 주문진 어촌 사례를 통해 이의 구현 방안을 검토하였다.

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전과 실천과제²⁷⁾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물질주의적 양적팽창과 환경파괴적 개발로 인해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함께 획일적 생활환경과 척박한 문화여건, 생태환경 파괴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농어촌은 인구유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역사회의 유지 자체가 곤란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삶의 질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도시와 농촌의 상생, 개발과 환경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병행, 세계화와 지방화의 융합 등과 같이 ‘균형발전 개념의 확대’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향후에 국민소득 2~3만불 시대와 지식·창조형사회로 이행하면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가치관·행동·정책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즉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에는 우수한 인재와 세계적 기업이 몰려 고부가가치형 창의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삶의 질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은 정부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주체인 동시에 정책수혜자인 주민들이 사업기획과 집행의 전 단계에 자발적 참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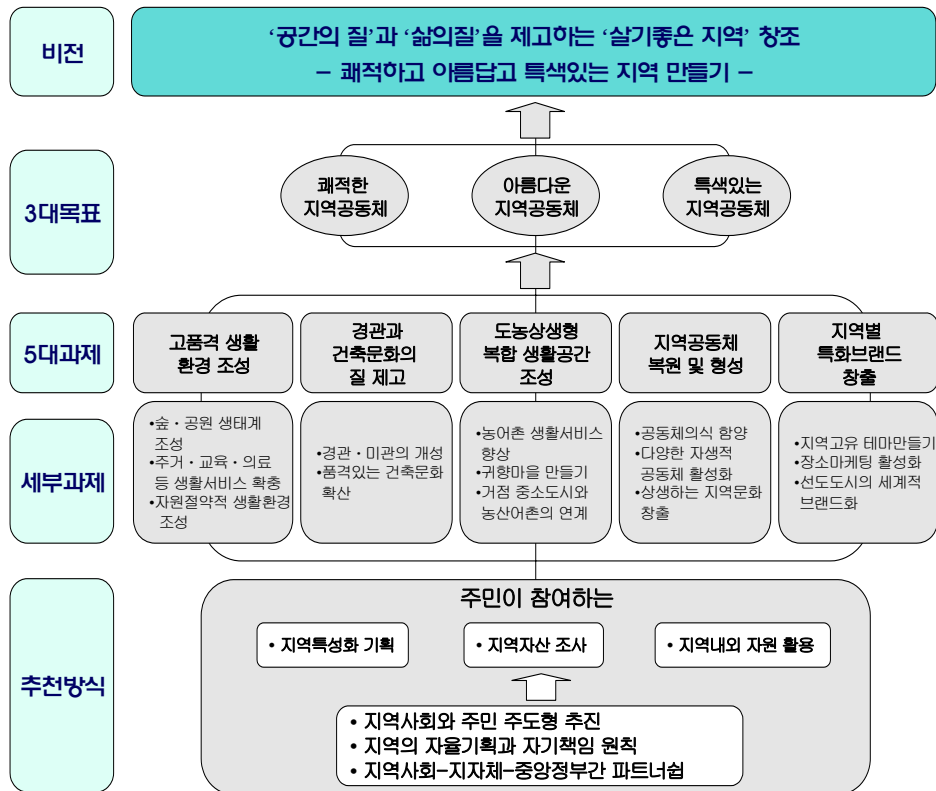
27) http://www.balance.go.kr/policy/policy8_2.php?t_menu=1&l_menu=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도시와 농촌을 품격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살고 싶은 지역사회로 재창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비전과 실천과제, 그리고 5대 과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비전과 실천과제

<그림 5-1>

비전과 실천과제



3) 5대 과제 사례 예시

(1) 고품격 생활환경(공간의 질) 조성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녹색도시 만들기	• 녹지 총량제 도입 등 녹지·공원 확충하기 • 학교 숲 만들기, 담장허물기와 한 평 공원 갖기 • 녹색길(Greenways) 만들기 •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만들기
사람중심의 녹색교통도시 만들기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보행자 친화적 가로 조성하기
수준높은 교육·의료·복지 등 생활서비스 제공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학교 만들기 • 주민수요 맞춤형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재해·범죄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2) 경관과 건축문화(삶의 질) 제고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미관 가꾸기	• 가로시설물 정비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 가로, 교량, 문화재 등 주요 시설물 조명 연출 • 구릉지·하천변 자연경관 살리기 •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만들기
품격있는 건축문화 확산하기	• 창조적 건축디자인 발굴·보급하기 •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건축문화 교실 • 전통 역사거리 복원하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	• 테마별 공연장·미술관·박물관 만들기 •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복지시설 등) • 생활권 도서관 늘리기 •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포럼 운영

(3)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도시민을 위한 귀향마을 만들기	• 기호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만들기 • 기존마을과 융화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 마을숲 조성하기
양질의 생활서비스 제공하기	•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소도읍·면의 복지, 문화기능 강화 • 인근중소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 배후중소도시의 의료지원기능 강화
귀향도시민의 여가 및 느린 생활 즐기기	•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농어촌 봉사운동 참여 • 느린 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친녹회, 동호회 등 지역 소모임 활성화

(4)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 만들기	•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꽃길 만들기 등) • 마을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만남과 교류 활성화
학교·의료 공동체 만들기	• 학교시설의 복합화 및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 방과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 •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한 환자방문과 간병하기 • 공공·민간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의료봉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마을 만들기	•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 확충하기 • 고령자와 장애인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계층혼합(Social Mix)으로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5)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지역고유의 테마 만들기	• 마을이야기를 발굴하여 추억 공간 만들기 •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상징 만들기 • 지역교육자산을 생태관광자원화 • 지역특산물을 브랜드로 키우기
장소마케팅 전개하기	• 세계에서 하나뿐인 고유의 마을 축제 만들기 • 지역고유테마를 활용한 해외지역과 교류하기 • 재래시장만의 특별한 이벤트 만들기
균형발전 선도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의 모델로 만들기	• 한국도시를 대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만들기 • 개성있고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 만들기 • 투자를 촉진하는 살기 좋은 기업도시 만들기

2. 해양수산 분야의 비전 및 모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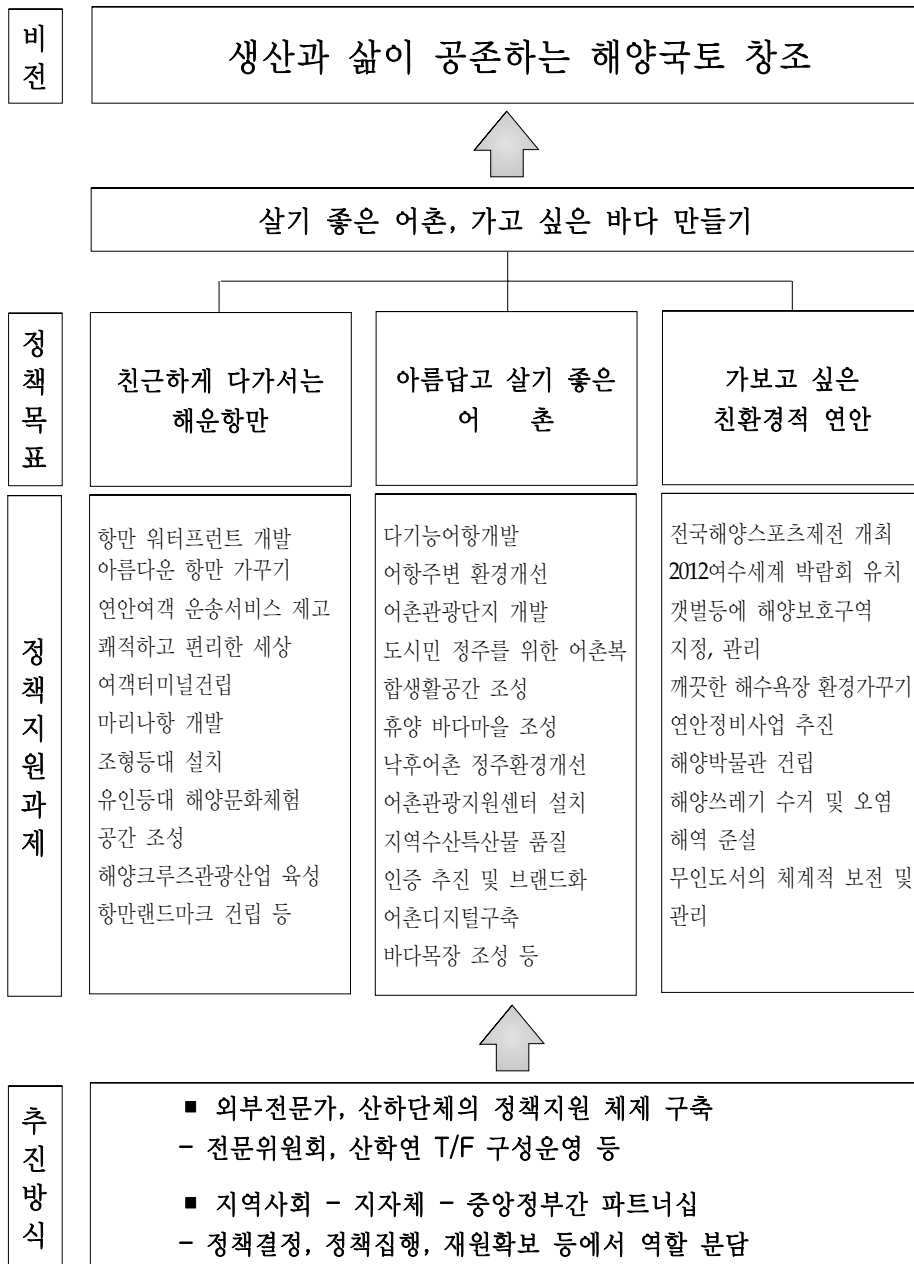
1) 비전

이와 같은 국가균형위원회의 비전과 과제 제시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의 비전과 과제, 공간기능 등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비전
 - 비전 : 생산과 삶이 공존하는 해양국토 창조

<그림 5-2>

비전 및 전략



2) 모형 수립

앞에서 제시된 해양수산부의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사업의 비전과 내용을 고려하여 각 연안의 각 공간별로 규범적인 측면에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안 지역 : 살아 있는 생태환경 유지, 방재 등의 가보고 싶은 친환경적 공간 조성
- 어촌 : 경관적으로 아름답고 편안하고 쾌적하고 삶의 공간으로 조성
- 항만/어항 : 효율적인 생산지원 및 물류의 공간이나 여기에 국민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는 친근하게 다가서는 공간 조성
- 항만-어촌-연안 통합 관리 모델 : 시너지(synergy) 효과가 발생하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상호 연계되게 개발하여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 관리함

(1) 공간 기능별 모델

어촌·어항 내의 공간을 기능별로 나누어 추구 이념과 시설 종류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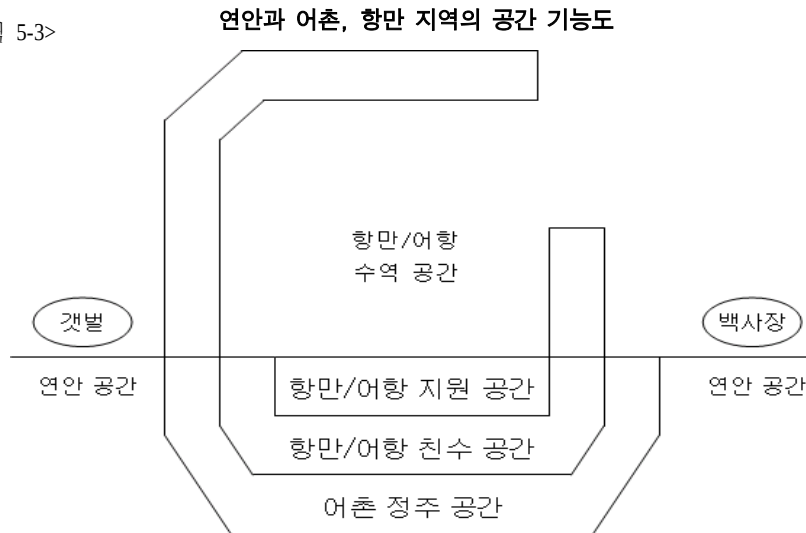
① 항만/어항 수역 공간 기능

- 추구 이념 : 항만/어항 수역은 화물선, 여객선, 레저선 등 각종 선박이 입출항하고 정박하게 되어 효율성, 편리성, 접근성의 용이 등을 추구하며 배후의 하천이나 하수, 배출물이 흘러드는 곳으로서 청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보전의 문제가 중요한 공간이다.
- 시설 종류로는 물류용 선박이 정박하는 수역, 유람 및 관광레저를 위한 정박지, 어항 관련 구역, 방파제 등과 연결된 방재를 위한 완충 구역 등이 있게 된다.

② 항만/어항 지원 기능

- 추구 이념 : 선박이 들어오면 양적하 등을 하므로 효율성, 편리성이 추구되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 시설 종류로는 화물 적치/보관/이동/양륙을 위한 시설, 수산물 양륙/판매/보완/유통시설, 기타 어항 관련시설, 여객터미널, 마리나클럽하우스, 배후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호안 등 방재 시설 등이 위치한다.

<그림 5-3>



③ 항만/어항 친수 공원 기능

- 추구 이념 : 항만 핵심 시설을 둘러싸고 어촌이나 도시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친수공원 등을 조성하여 어메니티 제고, 경관성 제고, 편리성 제고 등을 하게 되고 휴게·휴식을 하는 시설의 입지도 하게 된다.
- 시설 종류로는 임해 친수공원, 마을 이벤트/축제/영등제 등 교류 이벤트 공간, 주차장, 기타 편의 시설이 입지하게 된다.

④ 어촌 정주 기능

- 추구 이념 : 지역어업인과 지역민들이 혼재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쾌적성, 편리성, 안락성을 높여 삶의 질이 제고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 시설 종류로는 개별 주택 외에 교육, 복지, 문화, 회의 및 모임 등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이 입지하게 된다.

⑤ 연안 공간 기능

- 추구 이념 : 바다, 백사장, 갯벌, 도서 등 다양한 생태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인간의 레저 활동도 자원의 풍요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쾌적성, 보전성/보존성, 안락성 등이 제고되어야 한다.
- 시설 종류로는 비치나 생태보호 등 환경보존시설, 방재시설, 해수욕 시설, 생태방문객센터, 기타시설 등이 입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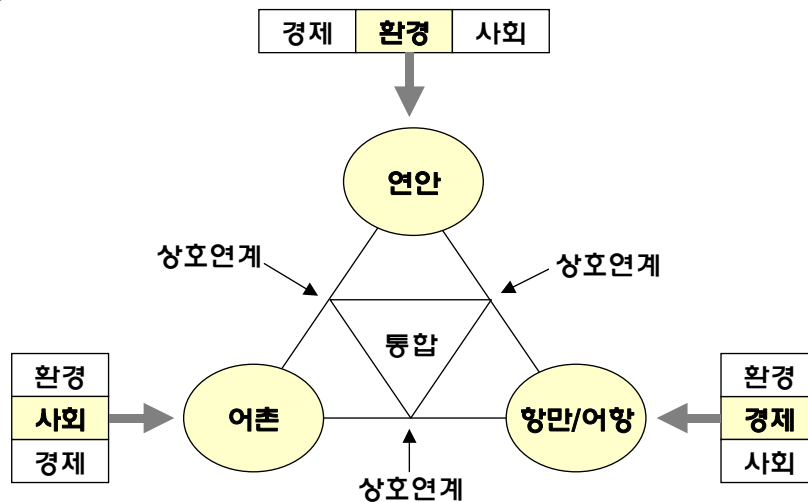
(2) 공간별 추구 이념

전체를 위요하는 이념은 지속가능성으로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연계 이념을 정립한다. 연안, 어촌, 항만/어항 등의 분야는 모두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되고 있으나 특히 연안은 환경 측면, 어촌은 사회적 측면, 항만/어항은 경제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게 된다.

- 경제적 지속가능성 : 소득의 창출과 시설 이용의 효율성 추구
- 환경적 지속가능성 : 전체 연안 환경의 건전성과 생태적 균형 유지
- 사회적 지속가능성 : 어촌 사회의 전통과 역사문화성의 지속적 유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Recycle 계획에 의거 자원재활용 등 자원 순환형 이용을 도모한다.

<그림 5-4> 연안-어촌-항만/어항간 연계와 지속가능성 모델



3) 어촌 유형과 사업 추구 전략

어촌은 주로 어업만을 영위하는 순수 수산형 어촌, 여기에 관광이 일부 가미된 수산관광형 어촌, 관광이 압도적인 관광형 어촌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른 대체적인 기능 제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유 형	기능 제고 전략	비 고
순수 수산형 어촌	• 생산지원을 위한 어항 기능, 유통기능 • 정주여건 개선	• 어항, 수산시장 • 마을 복지시설 등
(수산+관광) 어촌	• 생산, 정주 기능 외에 관광 기능 제고	• 관광시설
관광형 어촌	• 관광, 체험 기능 위주 제고	• 관광체험 시설 • 정주시설 개선

4) 대상 사업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사업은 해운항만 분야 9개, 어촌 분야 11개, 해양 분야 8개 사업 등 총 28개 사업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21개 사업은 기존 사업이고 7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표 5-1> 해양수산부의 분야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내역

분야(사업 수)	대상 사업	
친근하게 다가서는 해운항만(9개)	1) 항만 워터프런트 개발 2)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 3) 연안여객 운송서비스 제고 4) 쾌적하고 편리한 해상 여객터미널 건립<신규> 5) 마리나항 개발	6) 조형등대 설치 7) 유인등대 해양문화 체험 공간 조성 8) 해양크루즈관광산업 육성 9) 항만랜드마크 건립 등<신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어촌(11개)	1) 다기능어항개발 2) 어항주변 환경개선<신규> 3) 어촌관광단지 개발 4) 도시민 정주를 위한 어촌복합 생활 공간 조성<신규> 5) 휴양 바다마을 조성<신규> 6) 낙후어촌 정주환경 개선	7)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행사 등 8)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신규> 9) 지역수산물특산물 품질 인증 추진 및 브랜드화 10) 어촌디지털 구축 11) 바다목장 조성 등
가보고 싶은 친환경적 연안(8개)	1)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 2012여수세계 박람회 유치 3) 갯벌등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 4)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 가꾸기	5) 연안정비사업 추진 6)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신규> 7) 해양쓰레기 수거 및 오염 해역 준설 8) 무인도서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3. 사례지역 연구

1) 대상지 선정

(1) 대상지 선정 전제조건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실제로 사례에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 지정 연안항이나 어항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이미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는 사례 지역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여 대상가능지를 검토하였다.

<표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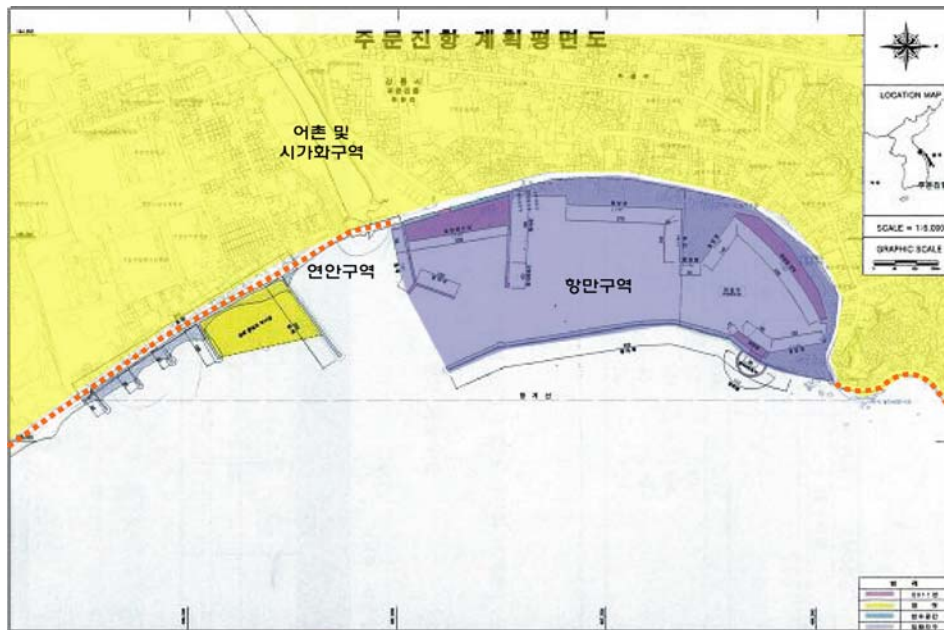
사례지구 선정 기본요건

- 국가 지정 연안항/어항을 대상으로 하며, 연안, 항만, 어촌 등이 집적해 있을 것
- 항만/어항을 포함한 연안부에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지역
- 다양한 항만/어항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
-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항의 장소적 인지성이 높으며 다양한 문제점이 공존하는 지역
- 어촌관련 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여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

(2) 사례지구 선정 1차 검토

위에서 제시된 요건을 바탕으로 국가지정 연안항이나 어항 중 장래에 다양한 시설 투자가 계획된 항만이나 어항을 검토하되 인근 지역에서 연안침식 등 대표적 연안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동해안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 한다. 국가어항보다는 연안항이 항만/어항, 배후어촌이 크고, 연안 환경 등의 갈등 관계가 심하며 공간이 넓어 연안, 어촌, 어항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연안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현장 실사 후에 이러한 선정 요건을 갖춘 동해안 연안항인 주문진, 울릉항, 후포항, 구룡포항을 2차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② 주문진항



검토 항목	내 용
시설밀집도	• 연안항 배후의 어촌+시가화지역 규모가 가장 크며, 건물이 매우 밀집해 있음 •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대학교 1개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음 • 주문진시장 등의 시설이 위치함
시설다양성	• 어촌+시가화지역 : 주거시설, 숙박시설, 어선수리소, 횃집, 조선소 • 연안 : 방파제, 해수교환시설, 물양장, 방사제, 준설토 투기장
연안환경문제점	• 기존 방사제시설이 있으나 지속적인 개발환경과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
장소적 특징	• 하천이 항과 맞닿아 있음 • 축제시 대규모 방문객 편의시설(주차장 등) 부족 • 복지시설 부재, 좁은 도로 등의 문제점 • 지자체의 '주문진항 정비 및 친수공간 개발계획'에 대한 조기 마무리 요구
종 합	• 어촌, 연안, 항만에 다양한 시설이 밀집하며, 다양한 문제점 산재

③ 후포항



검토 항목	내 용
시설밀집도	연안항 배후 어촌+시가화지역의 규모가 작은 편이며, 건물의 밀집도가 높지 않음
시설다양성	- 어촌+시가화지역 : 주거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 연안 : 물양장, 여객터미널, 방파제, 방사제, 해수욕장
연안환경문제점	동해안의 일반적 문제점인 연안침식의 문제점 발생
장소적 특징	하천이 연안과 만나며 대계축제등이 열리는 지역축제 장소로 활용됨
종 합	항만관련 산업시설 부족하며, 비교적 다양한 항만 및 어촌시설 밀집

④ 구룡포항



검토 항목	내 용
시설밀집도	- 연안항 배후지역 대부분에 어촌+시가화지역이 발달 - 건물,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으나, 남측으로는 발달하지 않음
시설다양성	- 어촌+시가화지역 : 주거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 연안 : 물양장, 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연안환경문제점	동해안의 일반적 문제점인 연안침식의 문제점 발생
장소적 특징	관광형 지방도가 항만배후부지를 직접 통과하며 우회도로 부재함
종 합	항만관련 산업시설 부족하며, 비교적 다양한 항만 및 어촌시설 밀집

⑤ 울릉항



검토 항목	내 용
시설밀집도	- 도동항 뒤편으로 어촌+시가화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나, 규모가 매우 작음 - 사동항 배후지구에 어촌 형성됨
시설다양성	- 어촌+시가화지역 : 주거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 연안 : 방파호안, 여객터미널, 물양장, 방파제
연안환경문제점	암이 발달하여 비교적 연안침식이 덜함
장소적 특징	- 섬에 입지한 항구로 육역부 연안항보다 접근성 떨어짐 - 배후부지 경사도가 높아 가용지 부족
종 합	어촌 및 시가화지역이 있으나 항만 배후 항만/어항 시설이 매우 단순함

⑥ 대상지 선정

이 중에서도 연안 어촌으로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며 수도권 주민들의 방문이 잦아 인지도가 높은 주문진항을 사례지구로 선정하였다.

검토 항목	내 용	선정
주문진항	• 어촌, 항만, 연안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을 보유, 지역개발 및 관광개발 수요가 높으며 가장 다양한 산업분야를 보유	●
후포항	• 어촌, 항만 분야에 다양한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규모 및 다양성, 개발가능성 등에서 다소 부족함	
구룡포항	• 항만분야의 검토대상 시설이 부족	
울릉항	• 연안 및 항만분야의 검토대상 시설 부족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례검토 및 구축

(1) 주문진항 개요

① 지역 개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을 주문진리에 소재하는 주문진항 일원으로서 인구 2만 2천여명이 주거하는 읍급 어촌이다. 주 산업은 수산업이었으나 최근에는 영동고속도로 IC가 접속되어 수도권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표 5-3> 주문진읍 현황

전체 가구	전체 인구	어업 인구	면적	행정 구역	주택(보급률)	사회복지 시설	차량	교육기관	기관/단체
8,963	22,043		60.55km ²	31개리	8,964(100%)	55개소	6,199대	초:3,중:1,고:2,대:1	23개/86단체

자료 : 주문진읍, 읍정보고, 2006. 12. 27.

주문진읍 어촌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보면 현재 어촌계원은 500여명(강릉 전체 1,200여명)이며 소득은 개선되고 있는 편이나 경비가 상승되고 있어 오히려 수익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어업인구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장년층 인구 감소가 크다고 한다.²⁸⁾ 주로 취업하기 위해 도시로 많이 이주하기 때문에 지역 수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자 지원체계 마련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

28) 30~40대 15%, 고령자 30~40%, 60대 이상 50% 이상.

주문진항 위치 및 전경

<그림 5-6>



하다. 주문진항은 주로 어업, 수산물 판매·가공 등이 이루어지며 어종은 오징어가 70%를 차지한다.

주문진(주문진항내) 어촌계의 현황(2005)

<표 5-4>

전체가구	어가구	전체인구	어업인구	어촌계원수	생산금액 (백만원)	생산량	어선 수	호당 소득금액
7,940	667	12,514	2,874	490	14,379	3,447톤	399척	27,000천원

자료 : 수협,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pp. 92~93.

② 주문진의 발달

1917년 부산 - 원산 간 기선항로가 개설되면서 중간 기항지가 된 주문진 항은 1962년부터 현재의 항세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동해의 정어리 어획의 중심지로 발달하였

주문진의 역사

<표 5-5>

구 분	내 용
1917년	• 부산 - 원산 간 기선항로 개설로 중간 기항지가 되면서 여객 및 화물선 처음 입항
1920년	• 항만공사 시작
1930년대	• 정어리 떼를 찾아 남, 북 각지에서 어선들이 모여들어 유동인구가 급증함 • 동해안 일대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경제적·사회정치적 구심점 역할
1962년 이후	• 오늘의 시설능력을 갖추
2001년 11월	영동고속도로 4—8차선으로 확장 개통 이후 관광객이 밀려 듬
2002년 11월 ~ 2003년 6월	• 총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물양장 1만 2,510㎡의 부지에 연면적 4,382㎡의 규모로 지붕을 덮는 옥개 시설 공사 ▷ 계절과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어업활동 가능해짐
2004년 4월	• 국내 최초로 해수교환 방파제 설치

다. 최근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진입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항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시내 도로가 정체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③ 주문진항 항만시설 현황

현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문진항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표 5-6> **주문진항 현황**

구 분		시 설 현 황(m)	비 고
외곽시설	방파제	920.0	
	방사제	299.0	
	돌제	559.0	
	호안	611.0	
접안시설	물양장	1,140.0	
	안벽	105.0	3,000DWT급×1선석

주 : 수교환시설 전면 호안 개축 물양장 90m는 연장에 포함.

(2) 대상지역 현황 및 문제점 제시

본 연구의 수행자들이 현장 방문시 나왔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현재 교육, 의료, 문화시설

- 초등학교(3개소), 중학교(1개소), 고등학교(2개소), 대학교(1개소) 등이 있으나 고등학교 이후 강릉시, 기타 외곽 학교로 많이 진학
- 의료시설은 기초의료는 주문진 읍내, 보다 심각한 경우 인근에 있는 아산현대병원과 강릉시 병의원 활용
- 문화복지시설은 주문진 읍내 문화복지 시설을 활용중이나 어업인 전용 복지시설 건립을 요망함(마을회관 21개소, 경로당 31개소, 기타 3개소 등 55개소)
- 주택 보급은 8,964호로 100% 보급됨

○ 동방파제 인근 해역

- 친수시설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항만정비 기본구상 마련 중
- 동방파제 직선화가 필요하며 등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 개발 필요

- 방파제에 연접한 회센터가 태풍 피해
- 배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신리천 하구
 - 방파제 끝자락과 마주보는 해역으로 파고가 3~4m 정도됨
 - 방파제 입구가 매우 좁아 겨울철 수심이 낮아져 사고 발생
 - 안전성을 고려한 재설계 필요
- 조선소 인근 해역
 - 녹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조선소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상문제로 지연되고 있음
 - 조선소는 필요하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이전 불가피
 - 현재 400여척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조선소 인근해역으로 침식 발생
- 활어 판매장 인근 해역
 - 관광객 유입을 위해 어항환경 주변 개조 필요(주차타워 조성 필요)
 - 먹거리 장소, 분수 어촌 문화의 거리 조성
- 회센터 활용도 제고 필요
 - 화진포 해수욕장 생태박물관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어촌·해양생물전시관을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이 필요함
 - 스파를 조성하여 대형 랜드마크로 이용하되, 유통센터와 고급숙박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수협 입주 후 활성화되어 99년과 98년 해수사우나 민자유치에 일조하였음
- 수질 검토
 - 조류소통구 등을 갖춘 방파제의 설치 등으로 항내 수질은 I 등급을 유지하여 큰 문제가 없음

<표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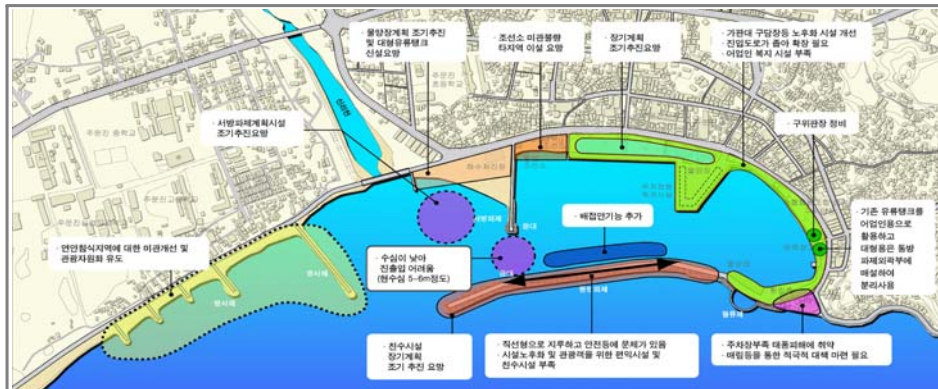
주문진항의 수질 검토

구분	층별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mg/ℓ)	용존 산소량 Do(mg/ℓ)	수소이온 농도 PH
1992	표층	4.20	6.40	7.70
1996	표층	2.10	8.24	7.92
2000	표층	0.87	8.19	8.10
2003	표층	1.60	9.52	8.09
2005	표층	0.85	8.74	8.04

○ 기타

- 인근 백사장에 철조망 제거사업 필요
- 주문진 시내 관광의 제약요인 : 도로협소(외곽에 주차장 조성하고, 내부에는 셔틀버스 운영 필요)
- 과거 항내 수질은 인근 황태 건조장에서 유입수로 오염이 심했으나 현재는 황태 건조장 이전과 방파제 소파공 시설로 수질의 문제는 없음

<그림 5-7> **현장 토론/인터뷰를 통한 행정기관 및 어업인 요구사항**



- 동방파제 직선화 및 노후화로 안전성 및 친수기능 부족



- 연안 침식방지용 방사제
- 환경학습 자원화



- 조선소 불량 경관



- 환경학습 자원화

<그림 5-8>

7번 국도에서 본 주문진 신리천변(좌), 주문진 신리천과 주문진 남부(우)
 <그림 5-9>



<그림 5-10> 7번 국도에서 본 주문진 북부(좌), 주문진 배후지 모습(우)



① 주문진읍 시정방향

주문진읍에서 2006년 12월에 수립한 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압축된다.

- 민간주도형 축제 정착
 - 주문진 오징어 축제 : 주문진오징어축제위원회
-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 주문진항 개발사업(물양장 개축): 1개소, 3,739백만원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아름다운 주문진만들기 조성사업(주요 도로변 및 해수욕장 꽃길조성): 3개소, 19백만원

② 기타

주문진항 정비 및 친수공간 조기 마무리를 위해 강릉시에서 건의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건의사항1: 주문진항 정비계획에 의거 2006년부터 추진중인 1, 2단계 공사 조기 마무리 → 국비 집중투자로 어업인의 조업활동과 관광객의 편의 도모(주문진항 계획은 부록 참조)
 - 건의사항2: 장래 구상(안)인 「중앙녹지광장」, 「주차장」 등을 2단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요망 → 정비사업효과 배가 및 「주문진항」 이미지 제고
 - 건의사항3: 주문진항 동방파제 선단부 연장 설치 요망 → 어선 출입항시 전복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 상존
- ※ 어업인 및 관련단체에서 공히 연장 건의(현재 920m→총연장 1,000m)

<그림 5-11>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대상지역 비전

- 살기 좋은 주문진 조성
- 가고 싶은 주문진 바다 조성
- 이를 통한 청정한 Blue wave 주문진 조성

<그림 5-12> 대상 지역 미래 비전



(6) 대상지역 발전방안 검토

① Synergy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

구 분	전략(발전방안)	주요시설	Synergy 효과
어 촌	•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휴게시설 도입 • 다양한 여가 수요를 고려한 편의시설도입 • 관광객접근을 고려한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 • 신리천변을 주민 체육공원으로 조성	• 바다어린이 놀이터 • 위판시설 주변 편의시설 • 취미광장 및 생활체조 광장 • 이야기가 있는 테마형 쌈지공원	• 주민 체육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계
연 안	• 기존 연안침식 보호시설을 활용한 환경학습 유도 • 일부구간 해안 경관림조성 및 자연암을 이용한 조수 체험시설 도입	• 연안침식환경 학습장 • 바위놀이터 • 바다숲	• 환경학습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연계
항 만	• 테마가 있는 항만 친수시설 도입 • 다양한 조망 컨셉이 있는 친수시설 도입 • 5감을 만족시키는 감성체험 친수프로그램 도입	• 오감만족 방파제 친수거리 • 주문진 이야기 거리 • 주문진 빛의 거리 • 대물낚시터	• 친수관광형 프로그램으로 연계

② Recycle 계획

구 분	전략(발전방안)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
어 촌	• 페어구를 활용한 시설물 조성 • 페어선을 활용한 편의시설 조성	• 기존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어구조형물 만들기 • 목선 파고라, 배 어린이 놀이터, 휴게쉼터
연 안	• 인공 양빈을 도입한 Recycle System 도입 • 기존 보호물을 적절히 활용하는 인공 양빈 계획 수립	• 인공 양빈 관련시설 • 연안 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학습 프로그램 개발
항 만	• 해수유통 System의 적절한 유지관리로 항내수질 향상 • 항내 오염시설 관리 • 지속적 준설로 발생하는 모래를 활용하는 인공 양빈계획 수립	• Recycle 홍보 및 안내 System 구축을 통한 환경학습 프로그램 개발

(7) 대상지역 모델 방안 제안

주문진 어촌은 공간의 특성과 시설 내역을 따라 5개 지구별로 나누어 검토하되 이들 지구별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촌정비구간은 앞의 모델에서 기능 공간상 어촌 기능을 갖는 곳이다. 어항

배후의 소외된 어촌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어항외곽지역에 간이 특산물판매대를 조성하고 배후지 공공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였다.

- 어항 배후의 소외된 어촌의 문화환경 개선
- 어항외곽지역에 간이 특산물판매대 조성으로 지역소득향상
- 배후지 주차장 등 공공 기반시설 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
- 배후의 신리천변의 산책로,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1차 정비구간은 항만/어항 수역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육상에서는 양륙 등 지원 기능도 갖는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기능 특성에 맞게 노후된 물양장 관련시설 정비 및 동선정비로 경관을 개선하되 부족한 관광기반 시설 도입, 항내 경관감상을 위한 전망공간 조성으로 장소성 극대화, 어선접안시설 확충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 노후된 물양장 관련시설 정비 및 동선정비로 경관 개선
- 부족한 관광기반 시설 도입
- 항내 경관감상을 위한 전망공간 조성으로 장소성 극대화
- 어선접안시설 확충으로 항내 환경개선

2차 정비구간은 친수공원 기능을 갖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어항·어촌·연안을 연계한 친수관광시설 거점으로 관광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친수시설 도입 및 기존시설 정비, 부족한 어업인복지시설 및 어항 주변 거주민의 생활환경 및 문화환경 개선, 기존 어항시설을 정비하여 다양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토록 계획하였다.

- 어항·어촌·연안을 연계한 친수관광시설 거점으로 관광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친수시설 도입 및 기존시설 정비
- 부족한 어업인 복지시설 및 어항 주변 거주민의 생활환경 및 문화환경 개선
- 기존 어항시설을 정비하여 다양한 친수공간으로 조성

3차 정비구간은 친수공원 기능, 수역 공간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특히 이곳에서는 21C 신개념 친수형 다기능 관광어항으로 발돋움할 주문진 Blue Wave의 핵심 공간 조성, 적극적 어항 친수공간 및 친수관광 시설 도입, 해양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축제 및 이벤트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고려하였다.

- 21C 신개념 친수형 다기능 관광어항으로 발돋움할 주문진 Blue Wave의 핵심 공간 조성

- 적극적 어항 친수공간 및 친수관광 시설 도입
- 해양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축제 및 이벤트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어항 구역 남측 밖의 연안 침식방지 대책 구간은 연안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특히 이곳에서는 기존 연안침식 방지시설을 활용한 환경 학습시설 조성,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학습장 및 자원 재활용 홍보 학습장 조성 등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 기존 연안침식 방지시설을 활용한 환경 학습시설 조성
-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학습장 및 자원 재활용 홍보 학습장 조성

<표 5-8>

주문진 어촌 발전 방향

구 분		기본방향	주요도입시설	조성방향
어촌 정비 구간		• 어항 배후의 소외된 어촌의 문화환경 개선	어촌 문화 마당	어촌외곽부의 매립 가능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공간 및 특산물판매대 등을 조성
			전망광장	주문진항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광장 조성
			취미광장	신리천의 산책로와 연계되는 지점에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광장 조성
		• 어항외곽지역에 간 이 특산물판매대 조성으로 지역소득향상	근린체육시설	생활체육 및 체력단련을 위해 다양한 근린체육시설 도입
			문화센터	문화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문화센터 조성
		• 배후지 공공 기반 시설 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	산책로	신리천을 따라 휴식 및 산책을 위한 산책로 조성
			지하 주차장(제안)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여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어항 정비 구간	1차 정비 구간	• 노후된 물양장 관련 시설 정비 및 동선 정비로 경관 개선	월류제 (갑문형)	태풍 피해 시 어선전복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형 갑문설치
			어선 접안용 잔교	동방파제 정비구간 선정하여 보수 및 어선 접안잔교 설치
		• 부족한 관광기반 시설 도입	물양장 정비	구위판장 정비를 통한 관광동선 및 물류동선 확보로 환경개선
			주문진항 담장제거	붕괴위험 및 경관저해요소인 주문진항 담장 제거로 경관정비
		• 항내 경관감상을 위한 전망공간 조성으로 장소성 극대화	진입광장	위판장 진입공간 정비 및 위판환경 개선을 위한 진입광장 조성
			Sky Plaza (3F신설)	기존 옥개시설 3층부에 주문진항 전경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 및 휴게공간 조성
		• 어선접안시설 확충으로 항내 환경개선	주차장	부족한 주차장시설 추가 확보로 가로변 보행환경 및 생활환경개선

주문진 어촌 발전 방향(계속)

<표 5-8>

구 분		기본방향	주요도입시설	조성방향
어 항 정 비 구 간	2 차 정 비 구 간	- 어항·어촌·연안을 연계한 친수관광시설 거점으로 관광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친수 시설 도입 및 기존 시설 정비 - 부족한 어민복지시설 및 어항 주변 거주민의 생활환경 및 문화환경 개선 - 기존 어항시설을 정비하여 다양한 친수 공간으로 조성	Blue Wave Way	친수어항 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동방파제 특 화포장 조성
			Sunshine Deck	일출 감상 및 외해를 조망할 수 있는 돌출형 전망데크 조성
			친수체험데크	조수체험 및 물을 만질 수 있는 친수체험데크 조성
			친수데크	항내 전경 전망공간 및 안전대피소로 조성
			어민문화광장	어민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광장 및 관광을 위한 조수체험광장
			해안경관녹지	회색빛의 어항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녹지 조성
			멀티구장	어민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어민복지관	다양한 어민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복지센터 조성
			어촌문화관	주문진항 홍보 및 역사전시관광 안내등을 담당할 센터 조성
			건강산책로	어민 건강증진 및 휴계를 위한 건강산책로 조성
			돌출형 전망광장	다양한 친수체험 및 관광어항 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광장 도입
			해중 분수	친수이벤트 및 스크린분수 등을 도입한 이벤트형 해중분수 도입
			주차장	관광어항 조성을 통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공간 조성
	3 차 정 비 구 간	21C 신개념 친수형 다기능 관광어항으로 발돋움할 주문진 Blue Wave의 핵심 공간 조성 - 적극적 어항 친수공간 및 친수관광 시설 도입	주문진항 상징광장	주문진항 관련 문화 인물 등을 소개하는 명예의 전당으로 조성
			Blue Wave Way 2	적극적 친수어항을 상징하는 신규 동방파제
			친수전망 데크	새롭게 조성되는 관광어항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수상광장	주문진항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친수 이벤트가 가능한 테마광장 조성

<표 5-8>

주문진 어촌 발전 방향(계속)

구 분		기본방향	주요도입시설	조성방향
어 항 정 비 구 간	3 차 정 비 구 간	- 해양레크레이션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축제 및 이벤트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관광형 선박 접안잔교	다양한 해양 레크레이션 도입을 위한 관광형 선박 접안시설 도입
			Blue Wave Plaza	주문진 Blue Wave 장소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징광장 조성
			친수이벤트 광장	기존 축제 및 다양한 해변축제를 여는 축제기반시설로 조성
			해안경관녹지	대규모 마운딩과 다양한 경관목을 식재하여 랜드아트형 경관녹지 조성
			주문진항 역사광장	주문진 Blue Wave의 역사광장으로 기념물전시 및 홍보공간 조성
			유류탱크	어항 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대형선박용 유류탱크 신설
연안 침식 방지 대책 구간		- 기존 연안침식 방지시설을 활용한 환경 학습 시설 조성 -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학습장 및 자원 재활용 홍보 학습장 조성	방사제(신설)	신규 조성되는 주문진 Blue Wave의 Cone Zone 안전성 확보
			연안환경 학습장	- 기존의 방사제 및 해안보호블럭 등을 활용한 환경 학습장 조성 - 폐어선 및 폐어구 등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학습장 조성
			연안환경 학습데크	- 전망이 뛰어난 공간에 해변학습데크 및 관광형 데크 조성 - 폐침목 등 재활용 목재 활용

<그림 5-13>

<그림 5-14>

사례 이미지(어촌정비구간)



<그림 5-15>

사례 이미지(어항정비구간)



<그림 5-15>

사례 이미지(어항정비구간-계속)

어촌문화관	건강산책로
	
해중분수	주문진 상징광장
	
친수이벤트 광장	주문진 역사광장
	
구위판장 정비	친수전망데크
	

(8) 연안·항만·어촌 연계(Network) 활성화 방안

앞서 제시된 연안·항만·어촌의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어지면 문화·휴게 거점인 어촌문화마당, 환경학습 거점인 연안환경학습장, 해양관광 거점인 친수 이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문진 활성화 프로그램이 구축될 수 있다.

먼저, 문화·휴게 연계망은 어촌문화마당을 중심으로 어항정비구간 배후지원시설인 근린체육시설과 문화센터를 연계하고 신리천의 생활형 체육시설을 연계하는 형태로 구축되어 그 기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환경학습 연계망은 연안환경학습장을 거점으로 하수처리장, 항내 근린공원의 환경학습 놀이시설을 거쳐 월류제의 항내수질학습까지 연계하여 어촌·어항·해안의 환경을 두루 보여줄 수 있는 환경학습 연계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연계망은 해양이벤트의 중심인 친수이벤트광장을 시점으로 수상광장의 다양한 친수경관 감상과 해양레저가 연계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조성, 기존의 어항을 연계하여 시식·구매프로그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구축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망 조성으로 공간과 프로그램간 시너지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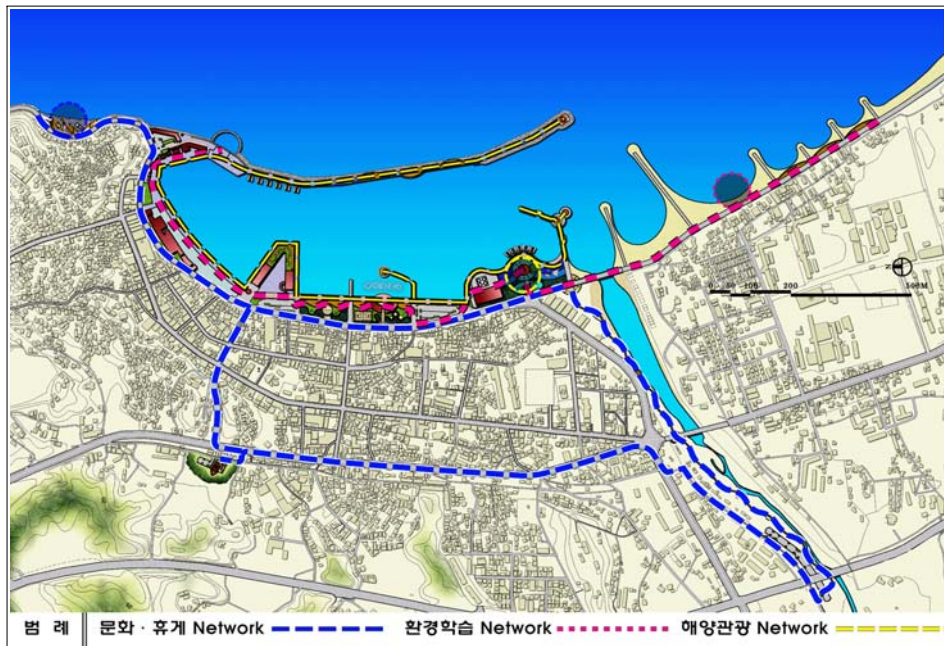
<표 5-9>

자원 연계 방안

구분	연계활성화 자원
문화·휴게 연계망 (Network)	어촌문화마당→진입광장→어민문화광장→멀티구장→취미광장→전망광장→근린체육시설→문화센터
환경학습 연계망 (Network)	연안환경학습장→연안환경 학습 데크→취미광장→친수이벤트광장→하수처리장→건강산책로→어촌문화관→월류제
해양관광 연계망 (Network)	친수이벤트광장→수상광장→Blue Wave광장→관광형 선박 접안 잔교→돌출형 전망광장→해중분수→스카이플라자→Blue Wave Way 1→썬샤인데크 1→친수체험데크→썬샤인데크 2→Blue Wave Way 2→주문진 상징광장

연계(Network) 계획

<그림 5-16>



(9) 소프트웨어 구성방안

앞에서는 주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주문진 어촌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는데 이 하에서는 소규모 시설 정비 및 소프트웨어 정비 방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생활 환경 정비를 위하여 2006년도 강릉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자연생태공원 겸용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및 재래식 개인 화장실들을 깨끗하게 정비토록 한다.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모자라는 주차장 확장은 이미 하드웨어 사업에 반영된 바 있다.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와 장애우 대책 사업으로서 노인회관 개보수 외에 노인 돌아보기, 장애인의 날 등을 매 분기마다 시행하여 이들을 좀 더 자주 돌아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생활 체육 분야에서는 현재의 읍장기 국민생활 축구대회 외에 노령인구 등의 참여가 용이한 배드민턴 등의 종목 확대가 요망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시설의 확대 조성도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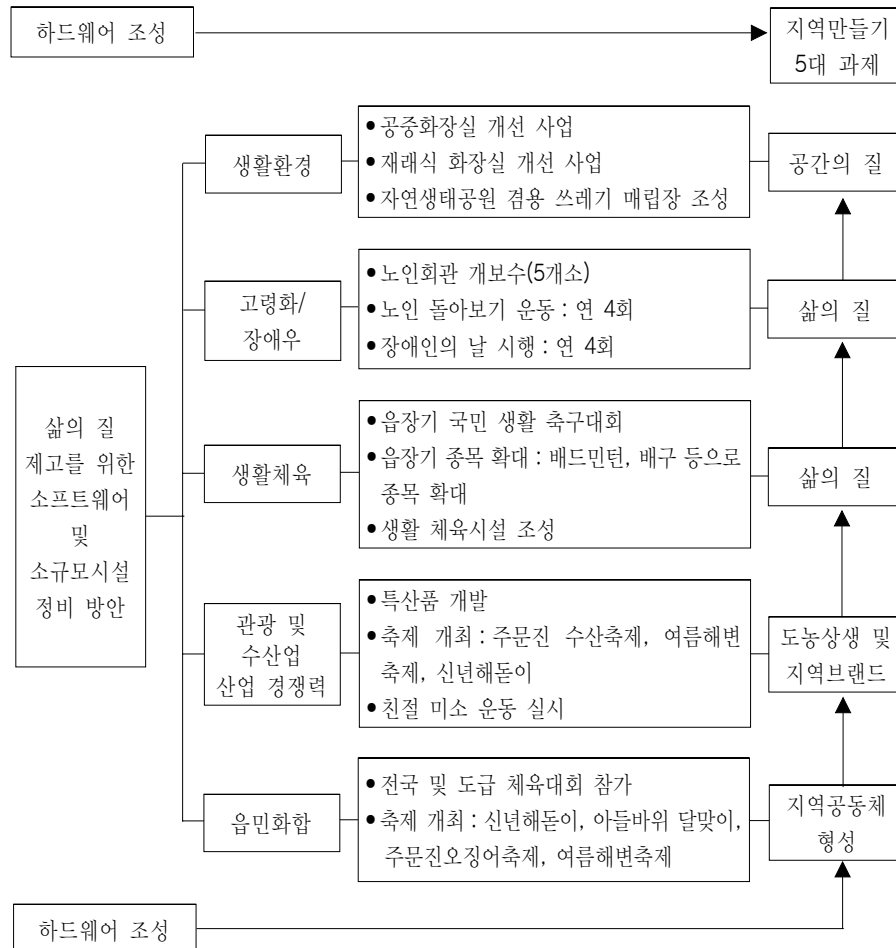
주산업인 관광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산물 개발, 오징어 축제를 확

대한 주문진 수산물 축제, 관광객들을 고려한 친절 미소운동 실시가 요망된다.

읍민 화합을 위해 전국 및 시도급 대회 참가 활성화, 축제로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신년 해돋이 축제 등의 지속적 확대 시행이 요망된다.

<그림 5-17>

소프트웨어 정비방안



(10) 개략 공사비 추정

전체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약 35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어촌 문화공간 조성에 193억원, 어항내 1, 2, 3지구별 정비에 총 131억원, 연안 친수공간 정비에 30억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주문진 투자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공사비	비고
어항정비구간	1차정비구간	일류제 갑문형으로 교체		-	-	-	-	
		어선 접안용 잔교		개소	6	40,000	240,000	
		물양장 정비		식	1	200,000	200,000	
		구위판장 정비		m²	8,000	20	160,000	
		진입광장	포장	m²	1,200	100	120,000	
			상징조형물	개소	1	200,000	200,000	
		스카이플라자(3F)	식재	m²	1,200	100	120,000	옥상정원
			포장	m²	400	120	48,000	
		주차장	식재	m²	800	50	60,000	아스콘
			포장	m²	2,000	30	40,000	
		소계1					1,188,000	
	2차정비구간	Blue Wave Way 1		m²	4,200	70	294,000	탄성포장
		썬샤인데크 1		m²	410	1,300	533,000	웬스포함(기초별도)
		썬샤인데크 2		m²	410	1,300	533,000	웬스포함(기초별도)
		친수체험데크		m²	410	1,300	533,000	웬스포함(기초별도)
		친수데크		m²	2,670	200	534,000	
		어민문화광장		m²	2,200	70	154,000	포장 및 경계석
		해안경관녹지 1		m²	1,400	50	70,000	
		멀티구장		m²	1,200	70	84,000	마사토
		어민복지관		m²	550	5,000	2,750,000	
		어민문화관		m²	530	5,000	2,650,000	
		해안경관녹지 2		m²	1,100	100	110,000	
		건강산책로	포장	m²	2,300	100	230,000	
			지압보도	m²	320	150	48,000	
		돌출형전망광장		m²	610	100	61,000	
		해중분수		식	1	500,000	500,000	
		주차장	포장	m²	3,200	30	96,000	
			식재	m²	600	50	30,000	
		소계2					9,210,000	

<표 5-10>

주문진 투자계획(안)(계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수량	단가	공사비	비 고	
어항정비 구 간	3차 정비 구 간	주문진상징광장		m²	550	100	55,000	
		Blue Wave Way 2		m²	3,060	150	459,000	탄성포장
		친수전망데크		m²	240	1,300	312,000	
		수상광장		m²	1,630	100	163,000	
		관광형선박접안잔교		개소	5	40,000	200,000	
		Blue Wave 광장	포장	m²	4,080	100	408,000	
			시설물	식	1	400,000	400,000	막구조파고라
		친수이벤트광장		m²	3,100	100	310,000	
		해안경관녹지 3		m²	2,600	70	182,000	
		주문진항역사광장		m²	2,200	100	220,000	
		유류탱크		-	-	-	-	
		방사제신설		-	-	-	-	
		소계3					2,709,000	
합계1(소계1+2+3)						13,107,000		
연안 침식	연안환경학습장			식	1	2,000,000	2,000,000	
	연안환경학습데크		목재마감	m²	2,500	400	1,000,000	기초포함
합계2						3,000,000		
어촌 정비	어촌문화광장	포장	m²	4,300	150	645,000		
		시설물	식	1	500,000	500,000		
	지하주차장			m²	6,260	2,000	12,520,000	가시설에 따라 다름
	문화센터	건축물	m²	740	1,200	888,000		
		주차장	m²	430	300	129,000		
		녹지	m²	630	500	315,000		
		포장	m²	520	800	416,000		
	근린체육시설	체육시설	개소	4	30,000	120,000		
		포장	m²	920	500	460,000		
	전망광장		데크	m²	150	400	60,000	
	취미광장		포장	m²	1,530	600	918,000	
	산책로		포장	m²	3,010	500	1,505,000	
	주차장	포장	m²	2,650	300	795,000		
식재		m²	30	500	15,000			
합계3						19,286,000		
총계(합계1+2+3)						35,393,000		

(11) 기대 효과

이 사례 연구를 통하여 앞에 언급된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만들기를 위한 이상적 모델을 사례 지역의 공간에 적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이 추구하는 이념은 지속가능성이지만 이러한 이념의 실현 정도는 사업 시행 이후에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간 기능간의 상호 연계, 공간간 균형적이고 통합된 발전을 어느 정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표 5-11>은 주문진 사업 중 해양수산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영역들이다. 주문진 사례도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 사업과 크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주문진을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주문진에 적용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수산부의 분야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들과 주문진 구상과의 관련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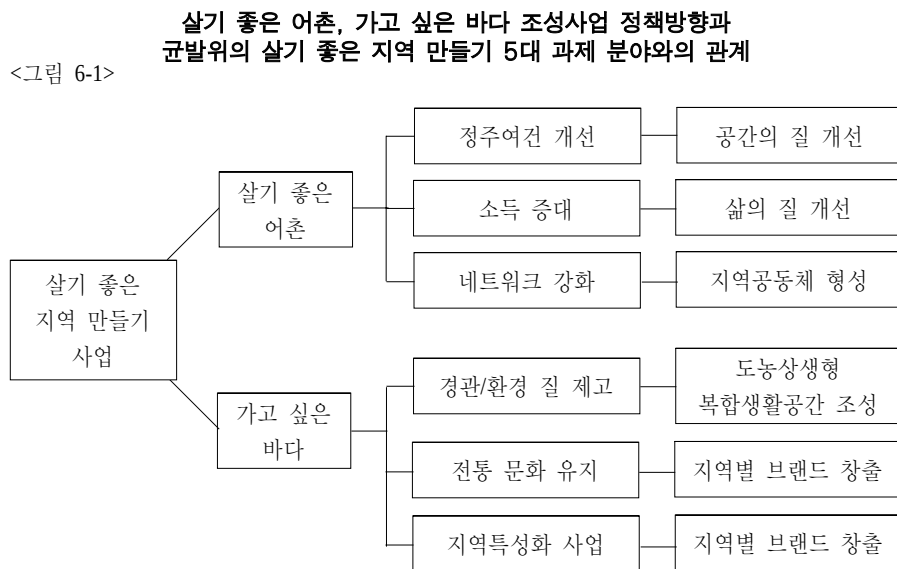
<표 5-11>

분야(사업 수)	해양수산부 정착 지원사업	주문진	해양수산부 정착 지원사업	주문진
친근하게 다가서는 해운항만(9개)	1) 항만 워터프런트 개발 2)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 3) 연안여객 운송서비스 제고 4) 쾌적하고 편리한 해상 여객터미널 건립<신규> 5) 마리나항 개발	✓ ✓	6) 조형등대 설치 7) 유인등대 해양문화 체험 공간 조성 8) 해양크루즈관광산업 육성 9) 항만랜드마크 건립 등<신규>	✓ ✓ ✓
아름답고 살기 좋은 어촌(11개)	1) 다기능어항개발 2) 어항주변 환경개선<신규> 3) 어촌관광단지 개발 4) 도시민 정주를 위한 어촌복합 생활공간 조성<신규> 5) 휴양 바다마을 조성<신규>	✓ ✓ ✓	6) 낙후어촌 정주환경 개선 7)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행사 등 8)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신규> 9) 지역수산물 특산물 품질 인증 추진 및 브랜드화 10) 어촌디지털 구축 11) 바다목장 조성 등	✓ ✓ ✓
가보고 싶은 친환경적 연안(8개)	1)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3) 갯벌 등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 4)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 가꾸기	✓ ✓	5) 연안정비사업 추진 6)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신규> 7) 해양쓰레기 수거 및 오염해역 준설 8) 무인도서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 ✓

제 6 장 정책 추진 방향

1. 정책 방향

살고 싶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라는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분야를 고려한 정책 방향의 수립이 요망된다. 이하에서 토의되는 내용들은 <그림 6-1>과 같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5대 과제와 바로 연결되는 정책과제들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살고 싶은 어촌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마을이 되려면 정주 여건의 개선과 아울러 지역민들의 소득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주 여건 개선

살고 싶은 어촌은 어촌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촌에

서의 삶의 질을 여하히 향상시킬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의 향상을 위해서는 열악한 어촌의 주택, 상하수도, 도로, 마을 생태 등 생활환경 개선,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의 각종 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정주 여건의 개선이 요망되는 바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해양수산부 자체 사업보다 타 부처사업들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타 부처와의 공동 수행 체계 확립이 요망된다.

(2) 소득 증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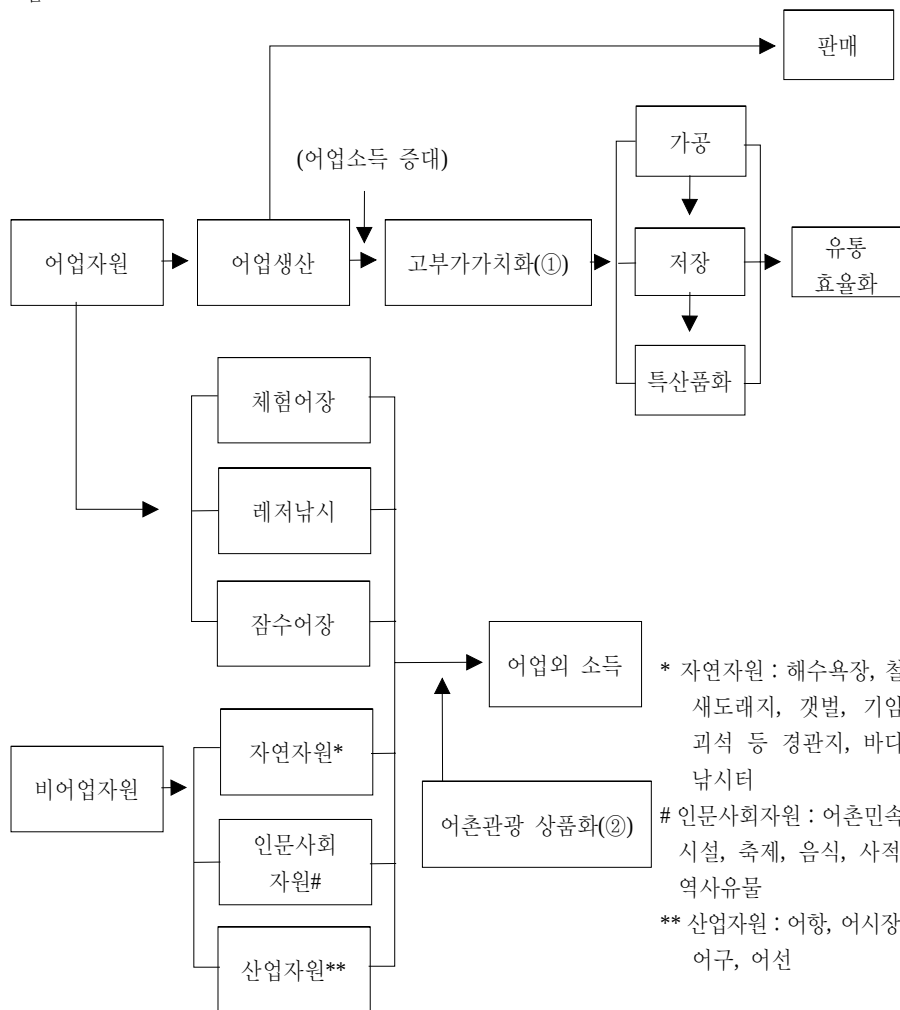
아울러 어촌에서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소득 증대는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안과 연계되는 것이다. 특히 어촌지역은 반농반어의 산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더불어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들 중에는 80%가 농어업 겸업, 그리고 나머지 20%가 어업을 전업으로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농어업 겸업을 가정하고 검토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먼저 어업인을 중심으로 소득 상황을 살펴본 바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업 소득이 40%를 약간 상회하고, 어업외 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어업 소득은 꾸준히 감소하나 어업외 소득은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기타 소득도 증대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원래의 소득원인 어촌마을 주민들의 농어업 소득은 상당히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농어업과 농어업외 소득 향상 방안을 보면 기존 농어업 이외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첫째, 가공, 저장, 특산물 유통에 의한 기존 농어업생산물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어업외 소득을 높이는 것이고(그림의 ①부분), 둘째, 농어업 및 비농어업자원의 농어업외 소득화 방안으로 각종 어촌자원의 관광상품화에 의한 소득 제고(그림의 ②부분)를 의미한다. 실제로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촉진을 위해서는 가급적 두 방안을 동시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특히 농어촌관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이외에 새로운 미이용자원의 활용으로서 농어업 관광의 증대가 크게 요망되고 있다.

<그림 6-2>

어업의 소득 모형



자료 : 김성귀, 홍장원, “어촌 소득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어업외 소득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Vol. 35, No. 2, 2004. 12.

(3) 네트워크 형성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혼자 살기 힘들어 다양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지역 사회에서도 주민들의 네트워크 형성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강하게 하여 탄탄한 연대가 이루어진 사회일수록 건강성이 넘친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간, 혹은 주민들 외부 세계와의 네트워크

형성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먼저 주민들 내부 간의 공동체 형성과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촌 사회의 고유성을 갖는 어촌계 조직이 이미 이러한 역할을 하므로 어촌계 주요 행사인 영등제, 어촌 풍어제, 마을 당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마을민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공동 외부 나들이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어촌에서 하는 아름다운 어촌가꾸기, 어촌체험마을사업 등 각종 공공주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공동 참여함으로써 상호 유대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어촌 외부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먼저 어촌 마을의 정보 발신을 위한 어촌공동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마을 내 소식 외부 알리기, 특산물 소개, 체험 관광 시설(낚시어선, 민박, 기타 행사 등) 등으로 외부와의 접촉 강화는 물론 방문객들과의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외부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실시하는 어촌정보사랑방 운영(해양수산부), 정보화마을사업(정보통신부) 등의 각종 사업을 활성화하여 어촌의 외부 네트워크 형성으로 상호 교류를 증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수협에서 실시하는 1어촌1사 운동 등도 실제 자매결연 어촌과 회사를 확대하여 이러한 외부 네트워크 구성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가고 싶은 바다 조성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은 국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바다로서 느낄 수 있는 바다 즉 항만, 어항 및 연안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큰 키워드는 매력도(Attractiveness)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고 싶은 바다와 연안, 항만/어항이 되려면 이러한 매력도를 여하히 높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매력도를 높이려면 연안 및 어촌의 경관과 환경의 질 제고, 전통문화의 유지, 연안 어촌으로서 특성화된 관리와 개발 등이 요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요소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관, 환경의 질 제고

연안 및 어촌에서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것은 어메니티의 증진이다. 이러한 어메니티를 늘리는 것이 연안 및 어촌의 매력도를 높이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의 경관은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경관이 질서 정연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의 모습이 한옥식, 양옥식, 슬레이트식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시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어촌의 큰 문제이므로 이를 위한 대책수립이 요망된다. 또한 기존의 송림, 비치, 뒷동산, 어항 시설 등은 중요한 경관 요소인데 난개발을 통해 이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변에 난립된 광고용 간판들도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아울러 바다 쪽의 조망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무너진 호안 등의 방치 등이 경관을 저해하기도 한다.

송림을 파괴하는 개발(좌), 어촌 횃집 간판의 돌출(우), 바닷가를 막는 시설물(아래 좌)

<그림 6-3>



이를 위하여 지중해 스페인이나 남부 프랑스의 연안 어촌에서는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도료를 나누어 주어 지붕, 벽색을 몇 백 년간 유지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유지하여 이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자체적인 연안 어촌의 특성이나 경관과 어메니티를 유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도서에서 연륙교를 만들기를 희망하는데 일부 도서는 이러한 도서가 도서 고유의 특성을 없앤다고 하여 불편해도 지금의 해운 교통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부 어촌에서는 배후의 평탄 지형에 대규모 고층 주택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마을 전체 경관을 해친다고 보아 이를 반대하고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소규모 펜션이나 관광 시설 도입을 우선적으로 요구함
- 어항 내의 무질서한 어구 등을 정비하여 모두 창고 내 보관 전환, 혹은 정비 창고를 지어 지저분한 어항 지역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경우

이러한 경관은 자연적인 상태를 잘 유지·보존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인공적 조성으로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앞의 사례에서 나온 마량항과 같이 항만/어항의 해상 잔교나 친수공원 등 경관 자원 조성, 인공비치 등을 조성하여 연안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강원도와 같이 동해안 미항 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경관 등대, 전망대, 경관 친수 방파제 등을 조성하기도 한다.

아울러 연안 및 어촌 지역은 다양한 환경생태를 가지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 투자 증대, 기술 개발에 의한 수질, 생활 오폐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도입, 환경 생태 보호 등이 요망된다. 방파제 순환공시설로 인한 수질 오염 감소, 송림, 해변, 갯벌, 철새 등 각종 환경자원의 유지·보호 등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중요한 지역의 토지 신탁 운동인 트러스트 사업을 통하여 공공용지로 확보하여 각종 중요 자원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도 요망된다.

(2) 전통문화 유지

연안이나 어촌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전통적인 유적, 재래시장, 염전, 당사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도 연안과 어촌의 특이성을 유지시켜 주는 좋은 자원들이다. 이러한 자원들은 어촌 아니면 거의 볼 수 없는 시설들이다. 그 지역에서 머물거나 태어난 유명 인물의 유적 등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해외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쓰던 어선이나 어구들을 버리지 않고 육상에 올려 조그만 지붕을 갖춘 보관소나 전통 어가에 보관하고 간판을 지어 역사적인 유물임을 알리고 보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지역민들의 긍지를 높이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들 자원을 유지·보존하여 마을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면 지역의 삶의 질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3) 지역 특성화 작업

마을이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나아갈 때 외래객들은 매력을 느끼게 된다.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원이 있다면 이를 잘 개발하여 그 마을의 특이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마을을 특색있게 꾸미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고유의 특이한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볼거리 등은 지역의 특색을 강화하고 매력도를 높여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다만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억지로 하거나 다른 마을의 사례를 답습하는 것은 개성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것으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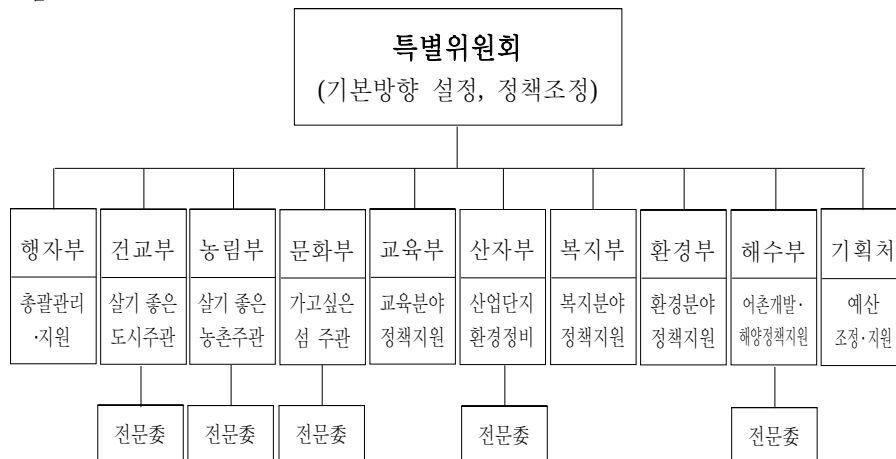
이 사업을 추진함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 각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의 노력이 공동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최적 추진 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부분별로도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1) 중앙의 추진 체계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어촌정주환경의 경우에는 생활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부처가 관련되므로 공동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부처별 사업시행도 필요하나 새로이 각 부처간 공동 지원 지역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모델화 사업도 요망된다.

현재 정부 부처의 체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역할 분담, 조정,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6-4>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러한 구성 체계를 바탕으로 한 각 부처간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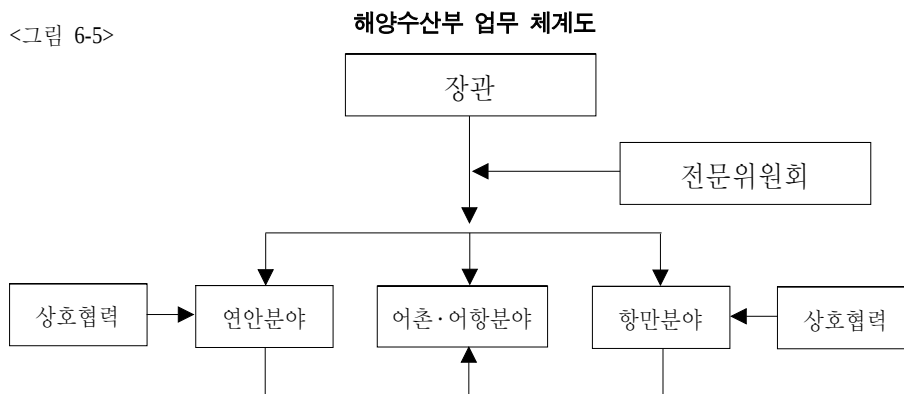
<표 6-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부처간 기능과 사업 내역들

건설교통부	○ 살기 좋은 도시 정책개발 및 주관, 시범사업 ○ 도시계획, 주거복지, 대중교통, 건축 등 지원정책
농 립 부	○ 살기 좋은 농촌 정책개발 및 주관, 시범사업 ○ 도농복합생활공간, 지역특화브랜드 등 지원정책
문화관광부	○ 가고싶은 섬 만들기 정책개발 및 주관, 시범사업 ○ 생활공간 문화, 문화S/W사업, 관광 등 지원정책
해양수산부	○ 어촌생활공간 개선, 연안해운·수산 등 지원정책
환 경 부	○ 생태마을 등 환경분야 정책개발 및 지원정책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동체, 친화적 교육환경조성 등 지원정책
보건복지부	○ 복지·의료여건 개선, 복지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정책
산업자원부	○ 산업단지 환경 재정비(리모델링) 등 지원정책
기획예산처	○ 부처별 소관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및 예산 조정

2) 해양수산부내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내에서는 항만, 어촌, 연안 분야 등이 협력하여 각종 사업을 조율하여 시행하되 시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조력을 받아야 될 것이다. 국가 전체 사업 체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전후 연관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야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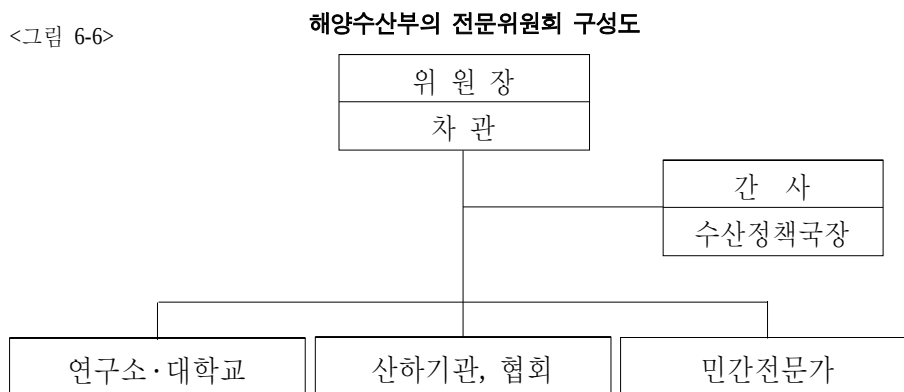
<그림 6-5>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주요 사업을 연계하고 자문하며 관련 안전을 심의하여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위원회 구성은 정책연구원과 대학 교수, 산하기관의 전문가 등과 각 협회나 산하기관의 실무전문요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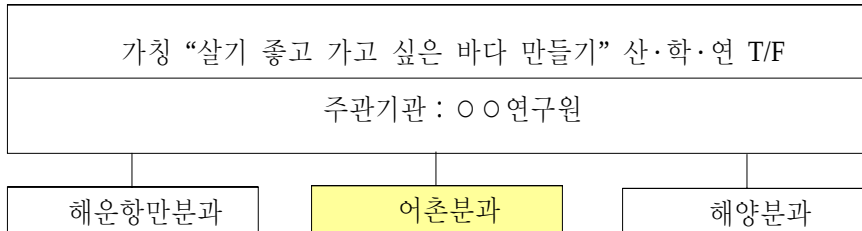
<그림 6-6>



아울러 이를 실행하기 위한 워킹 그룹과 실무 테스크포스팀도 분과별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정보 교류, 세미나 등 학술 교류, 각종 이벤트 실시와 전문가 자문 등이 행해지며 이로써 분야별 과제 시행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림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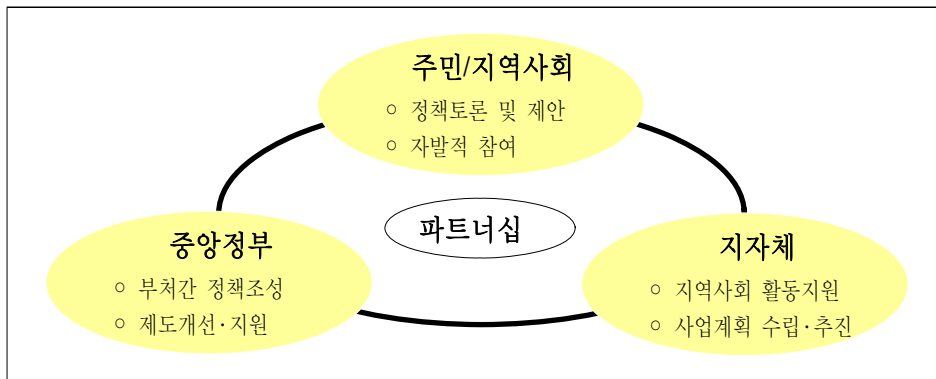
실무 워킹 그룹 구성도



3)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해양수산부나 정부 각 부처의 지원과 조화되게 각 사업을 조정하여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과 지역의 공동협력 체계 형성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사업에 대한 애착 증대와 이로 인한 참여도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정책 토론회 개최, 주민 제안 수렴과 지자체의 계획 수립 참여와 추진 권한 이양 등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수행 정책 방안 검토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5대 주요 정책 분야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6-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5대 주요 정책 분야별 과제

5대 과제 분야	주요 지원 정책 과제	비 고
○ 공간의 질	• 건축문화 선진화, 농어촌 경관보존과 어메니티 자원화 등 6개 과제	
○ 삶의 질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건강도시, 지역문화 서비스센터 등 31개 과제	
○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 도시민 이주단계별 지원 체계 정비, 다양한 수요맞춤형 정주공간 조성 등 36개 과제	
○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 주민참여형 자치센터 활성화, 방과후 학교 공동체 형성 등 11개 과제	
○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 시군 단위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자연자산 생태관광 자원화 등 12개 과제	

주로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삶의 질 개선 사업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이들을 공간별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주로 농촌, 도시, 공통 사업이 많고 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 6-3> 정부의 5대 분야별 수행 계획 과제 분류

구 분	도시	농촌	섬	공통	소계
○ 공간의 질 제고	2	2		2	6
○ 삶의 질 제고	17	1		13	31
○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고	2	30		4	36
○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3	1		7	11
○ 지역특화브랜드 창출	2	5	1	4	12
계	26	39	1	30	96

반면에 해양수산부의 사업을 분야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 표에서 보듯이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은 전무하며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은 1개 사업에

불과하고 주로 공간의 질 개선과 지역특화브랜드 창출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즉, 해양수산부 사업의 종합성 결여가 눈에 띈다. 이는 해운물류, 수산업 정책, 연안 관리 등 기존의 해양수산부 고유의 업무 성격과도 연관이 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어촌 사회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사업과 삶의 질 개선 사업 등을 앞으로 많이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6-4> **해양수산부의 5대 분야별 수행 계획 과제 분류**

5대 과제 분야	주요 지원 정책 과제	비 고
○ 공간의 질 개선	14개 사업	
○ 삶의 질 개선	4개 사업	
○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1개 사업	
○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없음	
○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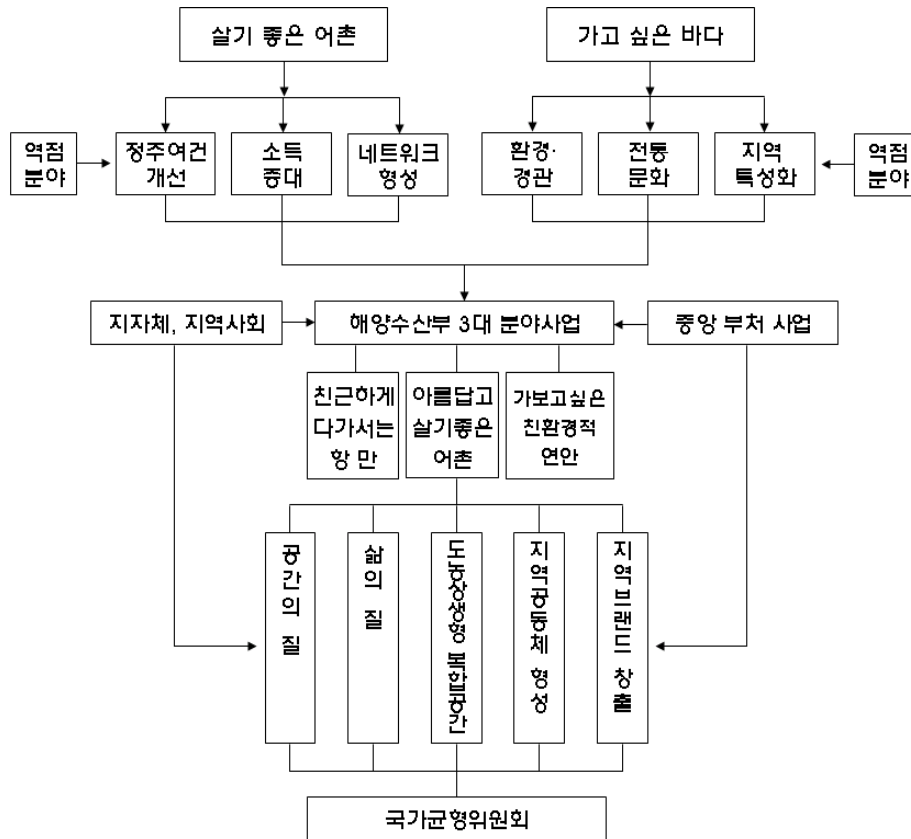
앞으로 이러한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어촌의 복지, 교육, 문화 등에도 간여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정책적인 수단이 없는 관계로 부처들과 공동으로 대처하여 나가야 한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 창구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설하고 이를 통해 먼저 두세 지역을 선정, 지역과 연계하여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단독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공동 대처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나름대로 수행하는 사업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자체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하는 많은 사업을 집중하여 동시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앞에서 논의된 전반적인 내용과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나 바와 같이 각 분야와 사업들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수행될 때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6-8>

해양수산부 사업 개요



제 7 장 결 론

미래 사회로 갈수록 소득의 증대와 여가 시간의 증대로 생활의 질과 웰빙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국정 주요 현안 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켜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모토로 하여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공간 범위인 연안지역, 어촌, 항만/어항에 대해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본 기본과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연안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환경오염, 태풍 등 재해, 연안 침식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어촌에 대하여는 경쟁력 약화에 따른 인구 및 소득 감소,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항만/어항지역은 난개발, 관광자원화 미흡, 향후 정비 방안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특히 연안 공간, 어촌 공간, 항만 공간 등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핵심 분야이므로 현재 이들 분야에 대한 미래의 전망도 검토된바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어메니티가 넘치는 어촌·어항지역으로의 변화와 관광의 활성화 등이 예상되었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샤먼 위당호, 굴랑섬 사례, 일본의 어촌·어항어장 연계 통합관리 정비 사례, 나가사키시 어항어촌 경관 개발 사례, 마량항 사례 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연안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모델 수립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전국 광역시 3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안/해안공간에 대한 이용 방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안/해안공간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관심도에 비하여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연안공간의 질적 수준이 육지공간에 비하여 다소 열악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기존의 정책적 관심이 육지공간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연안공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데 원인이 있다. 이

에 따라 연안/해안공간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대처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본 사업 비전과 전략 과제를 고려하여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라는 해양수산부의 비전과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공간 기능으로서 수역기능, 물류 등 배후지원 기능, 어촌정주기능, 연안 기능 등이 제시되었고 이들 간의 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창출, 환경적인 리사이클 기능 고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전체 공간을 이끌어 나갈 이념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연안항 중 주문진항을 사례지역으로 뽑아 앞에서 제시한 공간 기능별로 지역을 연구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지역계획, 항만 계획, 친수공간계획, 지역민들과의 면담과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주문진항은 어촌 정비 구간, 어항정비구간(제1차 정비구간, 제2차 정비구간, 제3차 정비구간), 연안 정비 구간 등으로 나누어 지역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촌, 어항, 연안 등 각 공간 간 기능 연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통합화된 주문진항의 전체적인 모습은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바다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생활환경 등 소프트웨어 정비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의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에 관한 비전과 과제의 지역 적용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도모하였다. 특히 본 사례에서 공간적인 연안 기능 분석을 통하여 각 부분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지역에 맞게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시행하면 보다 더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바다 어촌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정책 방향으로서 살고 싶은 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 여건의 개선이 요망되었고 아울러 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증대는 농어업 생산을 통한 가공·유통 등의 부가가치 개선, 미이용·저이용 자원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등 농어업외 소득 증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주민들의 연대의식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위해서는 연안 어촌의 경관, 환경의 질 제고, 전통 문화의 유지, 지역 특성화 작업 등을 통한 매력도 증진으로 도시·연안 어촌 교류의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연안의 환경 및 생태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 투자 증대, 기술 개발 등도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내의 연안, 어촌·어항, 항만 등의 각 분야간 조율이 긴밀히 이루어지되 전문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시행 안건 조율,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분야별 워킹 그룹과 TF 팀의 구성도 요망된다. 아울러 지자체 및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도 크게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관련 27개 과제 분야를 분석해 보면 타 중앙부처 사업들보다 공간의 질 개선, 지역특화브랜드 창출에 치중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 도농상생형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약하여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제의 보완 등이 요망되고 있다.

아울러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 문화, 복지 등을 타 부처들과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동 시범사업의 발굴도 요망된다. 또한 해양수산부 내의 사업도 공동 사업 지역을 도출하여 동시적인 집중 투자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 기초를 유지한다면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의 조성이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국립방재연구소, 「태풍 ‘매미’ 내습시 경남해역의 조석 및 폭풍해일 모의」, 2004.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조사연보」, 각년도.
- 남정호 · 최지연, 「연안 · 해양 갈등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활용방안」, 2006.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주문진항 정비 및 친수시설 실시설계용역」, 2006. 10.
- 농림부,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 등 조사」, 2004.
- _____,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2006.
- 소방방재청, 「재해백서」, 2002, 2003.
- 어가경제통계, 「어업총조사」, 각년도.
- 이호준, “우리나라 연안재해환경과 대책”, 「재해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 주문진읍, 「읍정보고」, 2006. 12.
- 최지연, “신두리 해안사구를 둘러싼 갈등분석”, 「해양수산」, 2005. 3.
- 통계청, 「어업총조사」, 각년도.
- _____, 「인구총조사」, 200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기능어항에서의 마리나 개발방안 연구」, 2006.
- _____,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지침 연구」, 2001.
- _____,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00.
- _____, 「수산 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 2004.
- _____, 「해양수산통계」, 2006.
-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
- 해양수산부,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 2006.
- _____, 「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 방안 연구」, 2007.
- _____, 「(2차)연안항 기본계획(주문진항)」, 2002.10.
- _____, 「2016미래 국가 해양전략」, 2006.
- _____,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 서해안 연안실태조사」, 2003.
- _____,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 남 · 동해안 연안실태조사」, 2004.
- _____, 「연안관리제도 개선 연구」, 2007.

- _____, 「항만업무편람」, 2006.
- _____,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2.
- _____, 「해양관광기반조성 연구용역」, 2006.
- _____,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2005, 2006~2010.

Hong, H., “How Scientific and Technical Support has Contributed to the Achievement of ICM Program in Xiamen”, Xiamen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Coastal Sustainable Development, 2004.

McCleave, J., Xue X., Hong, H., “Lessons Learned from ‘Decentralized’ ICM : an Analysis of Canada's Atlantic Coastal Action Program and China's Xiamen ICM Program”,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46, 2003, pp. 59~76.

일본 농림수산성 어항·어장정비부 홈페이지
(<http://www.jfa.maff.go.jp/gyokogyojo/index.htm>).

부 록

1. 주문진항 투자계획

2006년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연안항으로서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사업목적 : 항내 수질오염개선, 어선 접안시설 확충 및 토사유입 방지
- 사업효과 : 항내 매몰 방지로 선박 안전운항 확보, 수질오염 해소 및 주변경 개선

주문진항 연차별 투자계획 (1997 - 2011)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04까지	2005예산	2006예산	장 래
합 계		8,408	1,915	1,848	
1. 주문진항 건설	25,657	8,408	1,845	1,848	13,556
-방파제 연장(50m)	3,224	3,224	-	-	-
-해수교환시설 1식	3,225	3,225	-	-	-
-호안개축(109m)	390	390	-	-	-
-돌제(60m)	406	406	-	-	-
-물양장(501m)	6,221	700	-	-	5,521
-남방제(140m)	3,596	-	-	-	3,596
-방사제(111m)	3,004	-	1,404	1,600	-
-방사제 제거(100m)	381	-	381		-
-친수시설 등	2,909	-	-	-	2,909
-설계비	350	350	-	-	-
-감리비	1,293	53	60	185	995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658	60		63	535
2. 유지보수			70	145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6년 10월에 실시한 용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계획이 설정되었다.

2. 해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례

1) 생태도시

-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Freiburg)
 - 도시내 자전거전용도로의 체계적 조성, 환경정기권 발매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자연에너지(태양열, 열병합 등) 활용 및 관련 환경산업 발달
- 차없는 도시(사이클로비아), 콜롬비아 보고타(Bogota)
 - ‘사람 1순위, 자동차 2순위’ 정책에 따라 주2회 자가용 운행제한(자동차 통행량 40% 감소)
 - 일요일에는 간선도로의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이용자가 넘치는 인간중심의 도시로 변모
- 이외에 센트럴파크, 배터리파크 등 3,500만평이 공원(시 면적의 13.9%)빌딩과 숲이 공존하는 미국 뉴욕(New York), 총 217개의 공원 등 자연에 파묻힌 도시인 캐나다 밴쿠버(Vancouver) 등이 있다.

2) 문화역사도시

- 세계적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문화도시, 스페인 빌바오(Bilbao)
 - 제철산업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해 미술관 등 문화산업 육성
 - 우수한 건축미를 갖춘 구겐하임미술관이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여 문화 관광도시로서 브랜드 가치 제고
-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 역사·문화시설을 보러오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고, 도시공동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90~'99년 동안 6.5% 증가)
 - 스트라스부르 및 주변 27개 코뮌이 도시공동체를 구성하여 문화 등 분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첨단과학산업도시

- 유럽 지식기반선도지역, 프랑스 소피아앙띠폴리스(Sophia Antipolis)
 - 지중해 천해의 자연조건과 교통인프라를 토대로 선도적 대기업 연구소(IBM 등), 고급인력 등을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첨단도시로 발돋움
 - 개발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EU, 중앙정부, 지자체, SYMISA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 세계 10대 지식기반 선도지역, 유럽 3대 지식기반 선도지역으로 발전
- 세계 최고의 자동차산업 도시, 일본 토요타(Toyota)
 - 양잠과 제사업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로모시 남쪽의 론지가하라에 도요타자동차공장 설립
 - 당초 5만여 명에 머물던 도시인구는 도요타 관련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서면서 35만명으로 증가
- 이외에 이동통신 분야 200개 이상 기업과 1만 1,500명의 고급인력이 집적하여, 핀란드 GDP의 4%, 수출액의 20%를 점유하며 북유럽의 최고의 경쟁력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혁신클러스터로 핀란드 오울루(Oulu) 등이 있다.

4) 교육(대학)도시

- 대학도시의 모범사례, 미국 보스턴(Boston)
 - 하버드, MIT 등 보스턴지역의 30여개 대학으로부터 우수인재 배출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은 전문교육, 평생교육을 수강
 - 보스턴지역개발청은 대학들의 마스터플랜을 공유하고 개발계획을 공동 수립함으로써, 대학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종합적 발전 유도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R&D파크, 독일 하이델베르그(Heidelberg)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그대학(1386년 설립)을 비롯한 다수의 대학과 바이오테크 분야 등 최첨단 연구시설이 결집
 - ‘대학도시’라는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

5) 귀향마을

- 은퇴자들의 고향마을, 미국 선시티(Sun City)

- 1960년 초반 애리조나주 휘닉스 근교에 조성된 노인인구 7만명 규모의 세계 최대 노인마을
-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골프장, 보울링장 등 다양한 위락시설,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구비
- 자연환경속의 공동체 마을, 미국 사이프러스 빌리지(Cypress Village)
 - 은퇴자의 기호에 맞게 해변, 휴양림 등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마을을 설계하고 건강진료센터, 다양한 주거지를 배치(플로리다주 잭슨빌 소재)
 -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이 유지 되도록 관리자를 두고 지속적 교류활동 지원

3. 해양수산부 정책지원과제 및 시범사업(안)

1) 지자체의 사업메뉴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부 정책지원과제 현황

→ 총 28개 과제(어촌부문 11개, 해운·항만 9개, 해양 8개)

□ 어촌부문(11개)

과제명	정부사업 내용	지역참여를 위한 제안 사업메뉴	관련 분야
(1) 다기능 어항개발	○ 사업내용(Ⅰ+Ⅱ) : 기존 국가어항중 시범어항을 선정하여 어항시설내에 Seefood센터, 마리나, 낚시터, 배후광장, 체험어장 등 관광시설 추가 ○ 사업기간 : '04년 ~ '09년 ○ 총사업비 : 정부재정 총 4,036억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04 마량항(전남 강진군) 등 13개 어항 선정 - 현재 기본설계등 사업진행중 - '06. 10월경 첫 완공 마량항 준공식 행사 계획	○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상품화 ○ 다기능 어항별 안내 센터 운영	공간의 질 제고
(2) 어항 친수공간 조성 및 어항주변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전국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산책길, 벤치 등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어항주변에 흉물스럽게 널려있는 어구를 정리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 시설 설치 ○ 추진계획 : 현재 '08년도 사업으로 구상 중	○ 어촌주민이 주기적으로 어항구역내 어구 정리 및 청소에 참여 ○ 지자체는 어항쓰레기 처리	공간의 질 제고

과제명	정부사업 내용	지역참여를 위한 제안 사업메뉴	관련 분야
(3) 어촌관광단지 개발	○ 사업내용(III모델+어촌체험마을 통합) : 기존 어항의 배후지역(어촌)을 선정하여 수변공원, 산책로, 광장,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 숙박·식당 등 민간투자시설을 유지하는 한편, 어촌체험프로그램 등 개발 ○ 사업기간 : '04~'09년 ○ 총사업비 : 1,388억원(정부재정+지방+민자) ○ 추진현황 및 계획 - '04년 인천시 강화군 초지 등 11개소를 어촌관광단지 시범사업으로 선정 - '05년말 현재 어촌체험마을 33개 완공 - '06년 현재 17개 체험마을 추가 공사 중	○ 특색있는 지역축제 기획운영 ○ 어촌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상품화 ○ 안내센터 설치운영 ○ 연계교통수단 마련	공간의 질 제고
(4) 도시민 정주를 위한 어촌복합 생활공간 조성	○ 사업내용 : 은퇴후 도시인들이 조용하고 뛰어난 바다 경관과 함께 어촌정취가 살아있는 어촌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대부분 이용하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복지타운 조성 ○ 추진현황 및 계획 - '06.5 시범마을 2개소(전남 영광군 대신리, 경남 남해군 지족리) 선정 - '06 하반기 사업전략구상후 '07년 기본 설계추진	○ 지자체에서 복지 의료진 확보, 쇼핑 등 편의시설, 도시와 연계 교통수단등 확보 및 타운내 교체 등 여가 활동S/W개발	도농어촌 상생형 복합생활 공간 조성
(5) 휴양 바다마을 조성	○ 사업내용 - 어촌을 단순히 일시 쉬어가는 관광마을이 아니라 해양레저 등 해양·육상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주변지역관광의 거점으로서 틈틈이 다시 찾는 휴식·휴양공간으로 설계 - 기존 어촌관광사업 대상지들중 일부를 경진대회와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기간 : '08~'10 - 경진대회와 공모를 대상지 3곳 선정 ('07.3~4월) ○ 총사업비 : 150억원(개소당 50억원, 국비 50% 지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07.8-12월 의견수렴 및 여건조성 - '07.2 추진계획안 수립 및 지자체 협의 - '07.3~4월 경진대회, 공모통해 대상지 선정 - '08.1~'10 보강사업 추진	○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아이디어 공모	공간의 질 개선

과제명	정부사업 내용	지역참여를 위한 제안 사업메뉴	관련 분야
(6) 낙후어촌 정주환경개선 사업	○ 사업내용 :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 낙후된 어촌권역을 선정하여 진입도로 정비,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어선계류 시설, 공동작업장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 ○ 사업기간 : '07년~'13년 ○ 총사업비 : '65권역, 3,363억원 (국고보조 포함) ○ 추진 계획 - 2단계 1차년도 대상 14권역 지정('06,5)	○ 지자체에서 제반시설 공사 ○ 완공된 시설은 어촌계에서 관리운영	삶의 질 제고
(7) 아름다운 어촌 찾아 가기 행사 등 어촌관광 붐 조성	○ 사업내용 -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참여자에 경비 지원 - 아름다운 어촌 100선 지하철 홍보 - 도시/어촌 자매결연 1주년 기념 KBS 특별방송 “바다는 내친구” - 이달의 어촌 홍보 포스터 제작 배부 ○ 총사업비 : '06년 580백만원 (정부위탁사업) ○ 추진현황 및 계획 -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 '06.8~10 총8회 시행 - 기업과 어촌 자매결연 운동 : '06년까지 400촌 400사 자매결연 목표등	○ 도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 자체적으로 어촌 홍보필요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8) 어촌관광자원 센터 개설	○ 사업내용 : 지금까지 정부가 개별적으로추진해오던 어촌관광홍보, 컨설팅, 홍보 마케팅 사업들을 민간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전문가를 채용하여 종합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기획력 확용하고, 정부는 정책개발에 전념 ○ 추진계획 - 어촌·어항법을 개정하여 성립근거 마련 ('07) - 민간기구 설립 및 전문가 채용('08)	○ 지자체 또는 어촌계 별로 지역별 어촌 안내센터를 설치후 중앙단위의 어촌관광 관광지원센터와 연계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9) 지역수산물 품질인증 추진 및 브랜드화	○ 사업내용 - 수산물 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역브랜드로 육성 ○ 사업기간 : 지속사업 ○ 총사업비 : 비예산 ○ 추진현황 및 계획 - '05년말 품질인증대상품목 확대 고시 ※ 68개 품목 → 112개 - '06.2 지역특산물 품질인증품목 조사 - '06.4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 검토 - '06.5 품질인증업체 방문, 공장 및 품질심사 - '06년말 품질인증대상품목 확대 고시 ※ 112개 품목 → 120개 이상	○ 어촌지역 수산 특산물 개발 등 관광상품화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과제명	정부사업 내용	지역참여를 위한 제안 사업메뉴	관련 분야
(10) 어촌정보화사업	○ 사업내용 - 도시와 어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격영상 교육시스템구축 및 어업인 정보화 교육 어촌정보사랑방 운영 등 추진 ○ 사업기간 : '01년부터 지속추진 ○ 총사업비 : '10년까지 총200억, '07년 약7억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원격영상시스템 확대 : '05 31개 → '07 33개 - '10까지 어업인 10만명 정보화 교육 - '10년까지 어촌정보사랑방 600개소로 확대 등	○ 어촌계등 어민들의 적극적 참여요망	삶의 질 제고
(11) 바다목장 조성	○ 사업내용 - 연안해역에 인공어초·해조장 등을 설치,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바다목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회복과 더불어, 관광·레저 공간으로 활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시범 5개소('98~2010) : 1,598억원 전액국고 - 소규모 바다목장('06~2010) : 1개소당 50억원 (국비보조 25억원 포함) ○ 추진현황 및 계획 - 통영·여수·울진·태안·북제주 등 시범 5개소 바다목장 조성 추진중 ('98~) - 거제·군산·강릉·남제주 등 4개 소규모 바다목장 개발사업 착수('06~)	○ 지역의 다른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공간의 질 개선
(12) 마리나항 개발	○ 사업내용 - 국민여가 공간으로서의 해양문화 복합공간기능 강화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마리나항 개발 ○ 사업기간 : 미정 ○ 총사업비 : 미정(지자체 시행, 민간투자) ○ 추진현황 및 계획 - '06년 당진군(평택·당진항 인접), 서귀포시(서귀포항 인접), 목포시(목포항내)에서 마리나계획을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을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요청 → 외곽시설이 필요 없는 입지 여건을 갖춘 곳, 외곽시설이 필요하더라도 민자사업으로 충분히 추진가능한 곳 동인지를 정비구역에서 검토분석한 후, 기본계획에 반영예정	○ 지자체에서 제반 시설공사 등 사업수행	공간의 질 제고

과제명	정부사업 내용	지역참여를 위한 제안 사업메뉴	관련 분야
(13) 조형등대 설치	○ 사업내용 - 기존의 획일적 등대 이미지(원통형)가 아닌 지역적 상징성과 예술성을 형상화한 조형등대를 설치함으로써 해양문화 발전 및 관광자원화 ○ 사업기간 : '06~'10 ○ 총사업비 : 41억원(정부제정사업) ○ 추진현황 및 계획 - '06. 12월말까지 6기 설치계획 - 이후 11개소 설치계획	○ 지자체에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하여 지역홍보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14) 유인등대 에양문화체험 공간 조성	○ 사업내용 - 등대시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조망성과 경관성, 건축물로서의 가치 등을 활용하여 등대내 또는 주변에 소공원, 홍보관, 전망대, 체험공간 등을 조성 ○ 사업기간 : '99~'11 ○ 총사업비 : 984억원(정부제정사업) ○ 추진현황 및 계획 - '05년까지 19개소 정비완료 - 향후 종합정비 7개소, 리모델링 11개소 계획	○ 지자체에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홍보	공간의 질 제고
(15) 해양크루즈관광 산업 육성	○ 사업내용 -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등 해운·항만 인프라구축 및 제도개선 ○ 사업기간 : '06~'11 ○ 총사업비 : 부산항, 제주항 전용부두 건설 - 부산항 772억원, 제주항 227억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크루즈전용부두 건설 추진 · 부산항 8만톤급 크루즈전용부두 준공('06. 9) · 제주항 크루즈부두 공사완공('11. 8월) - 인천항, 평택, 당진항은 기존부두 활용계획 -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마련추진 ·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실시('06. 1~10) - 해양크루즈 관광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06. 10)	○ 특색있는 지역축제 기획운영 등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 연계교통수단 마련	삶의 질 제고

과제명	정부사업 내용	지역참여를 위한 제안 사업메뉴	관련 분야
(16) 항만랜드마크 건설 추진	○ 사업내용 - 부산항, 광양항을 대상으로 항만과 배후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landmark 시설건설 ○ 사업기간 : 2011~2014 ○ 총사업비 : 미확정 ○ 추진현황 및 계획 - ‘항만 landmark 타당성 조사’ 용역수행 - 향후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 연계교통수단 마련 ○ 초·중등학생 견학 프로그램 마련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17) 항만 워터프런트 개발 추진	○ 사업내용 - 노후되거나 유휴 항만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용도 이외, 즉 주거 및 호텔, 오피스 등 상업, 문화 시설 등을 유치하여 항만과 배후도시간 조화 도모 ○ 사업기간 : '06~2011 ○ 총사업비 : 미확정 ○ 추진현황 및 계획 - '06. 8월까지 전국 10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 Water front 시행방안 연구 및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추진 - '07년까지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 안 입법 마무리	○ 연계교통수단 마련 ○ 주변 관광지(육상, 해상) 연계방안 ○ 문화적 상품가치가 있는 Waterfront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 상품 개발 ○ Waterfront 주변 지역에 대한 연계 개발 제안	공간의 질 개선
(18)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 사업	○ 사업내용 - 항만내 친수·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및 관리 - 노후 시설물 교체, 주요 시설물 도색 등 항만시설의 이미지 개선 - 항만견학 및 항만정화운동 전개 등 ○ 사업기간 : 매년 (지속 전개) ○ 총사업비 : '06년 303억원 (민간자체 투자비 포함) ○ 추진현황 및 계획 - 친수공간 신규 조성 등 총 53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계획 수립('06.3) - 항만별 사업추진 성과 분석 및 평가 ('06.12) - 추진우수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06.12)	지자체 시민행사 등과연계하여 항만 개방등	공간의 질 제고

과제명	정부사업 내용	지역참여를 위한 제안 사업메뉴	관련 분야
(19) 연안여객 운송서비스 제고	○ 사업내용 - 연안 여객선 서비스 증진을 통해 도시와 도시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 여객선 서비스평가, 전산매표시스템 확대, 도서민 인증시스템 구축 추진 ○ 사업기간 : '06년 이후 지속 ○ 총사업비 : 정부위탁사업 ○ 추진현황 및 계획 - '06.2 인터넷 예약·예매 시스템 가동 - '06.2 전산 매표시스템 구축 및 도서민인증 시스템 구축 - '06.6 연안여객선 서비스 평가중 - '06.6 자동개찰시스템 확대구축	○ 지자체에서 달라진 여객운송서비스 적극홍보 ○ 도서지역의 접안시설 터미널 등 여객수송 시설 확충 및 정비 ○ 여객선과 연계될 수 있는 육상교통망구축 ○ 전천후 숙박시설 및 음식점, 관광명소 개발 등 도서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삶의 질 제고
(20) 쾌적하고 편리한 해상여객터미널 건립	○ 사업내용 : 기존 노후, 협소한 여객터미널 시설에 대하여 편의성, 쾌적성을 갖춘 공간으로 개량하며, 주변공간을 해양친수공간으로 개발 ○ 사업기간 : '07~'11년(지속사업) ○ 총사업비 : 1,519억원(정부재정+민자) ○ 추진현황 및 계획 - '06. 사업대상 선정(여수항여객터미널 외 6) (전국항만기본계획 용역 시행중) - '07년 여수항여객터미널 개량 착수 - '10년 이후 기타 터미널 개량 추진	○ 지역내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 여객터미널과 연계한 해양관광자원개발 및 홍보	공간의 질 개선
(21)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 사업내용 - 매년 개최장소를 선정하여 전문선수가 참여하는 요트등 정식종목과 일반인 대상의 번외경기, 체험프로그램 등 해양레포츠 경기진행 ○ 사업기간 : '06년부터 지속사업 ○ 총사업비 - '06년 지자체 10억, 우리부 4억 지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제1회 대회를 경북 울진에서 개최 (8.12 - 15) - 제2회 대회는 삼척에서 개최 계획 ('07.8월)	○ 지자체에서 행사 주관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과제명	정부사업 내용	지역참여를 위한 제안 사업메뉴	관련 분야
(22)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유치추진	○ 사업내용 -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 : 자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 이란 주제로 2012 여수세계 박람회 개최 ○ 사업기간 : 2012 5.12 - 8.12(약3개월) ○ 총사업비 : 약 1조 3,804억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04. 12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 계획” 국무회의 의결 - '06. 5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유치 신청서 제출 - '07. 3 BIE 실사 - '07. 12 개최지 결정	○ 전라남도, 여수시 등과 공동 유치추진 ○ “여수 Ocean Resort 특구” 개발 등 고급 숙박시설 개발	지역별 특화블랜드 창출
(23) 자연해안 및 서식지 보호	○ 사업내용 -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자연 해안 및 서식지(예;갯벌)등 특정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지 감시시설 설치, 탐방로 설치, 방문객 센터 건립 등 추진 ○ 사업기간 : '03 이후 계속 ○ 총사업비 : 700억원(국고 70%, 지자체 30%) ○ 추진현황 및 계획 - 해양보호구역 9개소 지정 및 향후 추가지정	○ 지자체 사업수행 ○ 갯벌생태체험 등과 연계하여 마케팅 홍보	공간의 질 제고
(24)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 가꾸기	○ 사업내용 - 기능시설 확충, 경관 보존 등 해수욕장 환경개선을 통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수욕장 조성 ○ 사업기간 : '05~'09 ○ 총사업비 : 110억원 ○ 매년 약 26억원 지자체 지원 ○ 이중 6억원은 평가후 인센티브 용도로 활용 ○ 추진현황 및 계획 - 해수욕장 평가결과 우수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05~) - 동해안 해수욕장 군경제시설 완화사업 지원 ('06~) - 해수욕장 시민참여관리제도 (Beach Adopt Program) 시범운영('06~) ※ 지역단체, 기업 등이 해수욕장 청소 등에 참여할 경우 광고판 설치 등을 허용하는 제도 - 해수욕장 관리법 제정('07)	○ 지자체가 사업수행 ○ 해수욕장 시민참여 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지역민 참여 유도	공간의 질 제고

과제명	정부사업 내용	지역참여를 위한 제안 사업메뉴	관련 분야
(25) 연안정비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전 연안을 대상으로 628개소를 연안 정비대상 사업지로 선정하여 기반침식 등으로 훼손된 해안을 복원하고, 폐선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개선하며, 휴식공간을 조성 ○ 사업기간 : '00~'09 -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 ○ 총사업비 : 7,308억원(국고보조 50%) - '05년말까지 161개소 2,201억원 투자 - '06년 총63개소(신규29) 사업추진	○ 지자체에서 제반 시설공사 및 완공된 시설 관리운영	공간의 질 제고
(26) 해양 박물관 건립	○ 사업내용 - 해양유물 보존 및 해양교육·문화 인프라구축 ○ 사업기간 : '07~'10 ○ 총사업비 : 개소당 약 1,000억원 예상 - 공립의 경우 50% 국가보조 - 국립의 경우 정부재정사업 ○ 추진현황 및 계획 - 굴림 1개소(부산), 공립 2개소(여수, 제주)를 대상지로 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중('06. 3~8월)	○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고유의 관광 상품화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27) 해양쓰레기 수거 및 오염해역 준설	○ 사업내용 - 연근해 주요어장 침적 쓰레기 수거 및 오염해역 퇴적물 제거 등 ○ 사업기간 : '99 이후 계속 ○ 총사업비 - 5,817억원(오염해역준설은 70% 국가 지자체보조, 해양쓰레기 수거는 정부 위탁사업) ○ 추진현황 및 계획 - 연근해 주요어장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지속추진 ('04~) - 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거('04~) -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책임제 도입('06) - 폐 FRP 선박처리시스템 구축('08년 완료)	○ 지역주민들의 바다 사랑 실천행사 -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을 바다정화 활동의 날로 지정	공간의 질 제고 (연안 경관 개선)

과제명	정부사업 내용	지역참여를 위한 제안 사업메뉴	관련 분야
(28) 무인도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내용 - 무인도서에 대한 체제적 관리를 위해 4개 유형으로 지정 (정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도서) 하고, -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바다 낚시 및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활동 및 탐방 홍보 -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관광 및 상업용 등으로 개발 ○ 사업기간 : '06 이후 지속 ○ 추진현황 및 계획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07. 9월 시행목표) - 무인도서 실태조사 실시('06~'15) · 전국 무인도서 2,700개 대상 · 무인도서 및 주변해역에 대한 자연 환경 및 인문사회적 환경조사	○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관광 등의 용도로 개발에 참여가 가능	공간의 질 제고

4. 연안 이용실태 설문조사

연안 이용실태 설문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서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는 항만, 어촌, 어항, 해수욕장 및 기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및 향후 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정책방향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 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2-2105-4970)



SQ1. 어촌 방문 경험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어촌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면접 중단)	
SQ2. 지역	① 서울 ④ 대전 ⑦ 부산	② 인천 ⑤ 광주	③ 경기 ⑥ 대구
SQ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4. 연령	① 20대 ④ 50대	② 30대 ⑤ 60대 이상	③ 40대

연안관광 이용 실태

1. 귀하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연안이나 바닷가를 몇 회나 방문하셨습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⑦ 7회~12회 ⑧ 13회~24회 ⑨ 25회 이상
2. 귀하가 연안이나 바닷가 지역을 방문하는 주된 동기(목적)는 무엇입니까?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3순위 : ()
 ① 어촌문화 탐방
 ② 해양수산 생태체험
 ③ 수산물 먹거리 체험 및 쇼핑
 ④ 해안/어촌 경관감상(일출일몰, 도서경관 등)
 ⑤ 해양레포츠 활동(해수욕, 모터보트/요트, 바다낚시 등)
 ⑥ 각종 회의/세미나 참가
 ⑦ 해양 축제/이벤트 참가
 ⑧ 연안/어촌지역 친척/친척 방문
 ⑨ 기타()
3. 앞으로 귀하가 연안의 어촌·어항 방문 시 가장 희망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 3순위 : ()
 ① 어촌문화 탐방
 ② 해양수산 생태체험
 ③ 수산물 먹거리 체험 및 쇼핑
 ④ 해안/어촌 경관감상(일출일몰, 도서경관 등)
 ⑤ 해양레포츠 활동(해수욕, 모터보트/요트, 바다낚시 등)
 ⑥ 각종 회의/세미나 참가
 ⑦ 해양 축제/이벤트 참가
 ⑧ 연안/어촌지역 친척/친척 방문
 ⑨ 기타()

7.2. 어촌/어항 공간의 문제점 ▶ 1순위 (), ▶ 2순위 : ()

- ① 자원 훼손과 자연생태계 파괴
- ② 어구 및 쓰레기 방치, 비린내 등 환경정비 부족
- ③ 어촌지역 난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 ④ 접근도로, 주차공간, 휴식공간 등 기반시설 미흡
- ⑤ 기타()

7.3. 항만/어항의 문제점 ▶ 1순위 (), ▶ 2순위 : ()

- ① 지나친 인공 구조물 위주 개발
- ② 화물처리 등으로 일반인의 접근 제한
- ③ 일반인들의 친수/휴식 공간 부족
- ④ 화물/ 수산물의 악취 및 혐오스런 처리방식
- ⑤ 안전/보호 시설 미흡
- ⑥ 주변 시설과 연계성 부족
- ⑦ 기타()

7.4. 우리나라 연안의 문제점 ▶ 1순위 (), ▶ 2순위 : ()

- ① 해안침식(모래유실)
- ② 해안지역 난개발
- ③ 해양환경 오염
- ④ 해양 생태계 교란
- ⑤ 수산자원 감소
- ⑥ 태풍 등 방재 대비 미흡
- ⑦ 기타()

우리나라 연안/해안 공간 관리 방향

8. 귀하께서는 육지공간과 비교해 볼 때, 연안/해양공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연안·해양공간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육지공간에 비해 정부정책, 계획 및 예산 등이 부족하다.

② 정책/계획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

③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④ 기타 ()

10. 귀하는 향후 “살기 좋은 해양·연안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 보통임 →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1. 국민의 휴양/휴식 공간의 조성	①	②	③	④	⑤
2. 어업인 생활공간으로서의 정주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3. 해운/항만 등의 해양산업기능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수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능 정비	①	②	③	④	⑤
5. 도시와 어촌의 교류 공간 조성	①	②	③	④	⑤
6.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연안/해양환경의 정비	①	②	③	④	⑤

11. 그럼 귀하는 연안이나 바닷가의 기능 중에서 어떠한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민의 휴양/휴식 기능

② 어업인의 정주환경 기능

③ 해운/항만 등 해양산업기능

④ 수산업활동 기능

⑤ 도시어촌의 교류 공간 기능

⑥ 연안/해양환경 정비와 관리 기능

⑦ 기타(

12. 연안/해양 기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순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① 연안의 특색 있는 관광휴양지 조성

② 연하의 각종 생태자위 보호

③ 연안관리계획, 항만/어항계획 등 계획 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

④ 연안관리법, 해양생태계관리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

⑤ 해양환경 개선과 관련 기술의 개발

⑥ 항만/어촌 등 주변시설과 조화로운 연계

⑦ 기타()

13. 연안공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연안생물 서식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연안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함
 ② 연안·해양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③ 연안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정비와 재해방지대책의 마련
 ④ 연안에 대한 보전과 개발의 갈등해소 및 자율적·협력적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
 ⑤ 기타 ()
14. 위의 질문 13과 관련하여, 연안/해양 기능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쓰레기 수거, 연안경관·생태계 관리 등 해양환경관리사업 지원
 ② 해양문화자원 등을 활용 해양관광개발사업 지원
 ③ 지역주민을 위한 연안 접근권 개선과 친수 공간 조성사업 지원
 ④ 지역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사업 지원
 ⑤ 기타 ()
15. 귀하는 항만, 어항의 가장 중용한 미래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가공간 제공
 ② 항만물류와 수산업 생산중심 공간 제공
 ③ 환경친화 및 보존공간 제공
 ④ 지역주민의 경제적 성장동력 제공
 ⑤ 기타()
16. 귀하는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연안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해양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변(해수욕장)/사구
 ② 해안송림
 ③ 도서(섬)
 ④ 갯벌
 ⑤ 어항/항만
 ⑥ 어촌마을
 ⑦ 기타()
17. 마지막으로 연안 이용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점 등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구통계학적 질문

- BQ1.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이하

② 대재

③ 대졸

④ 대학원 졸 이상
- B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경영/관리/전문/자유직

② 사무관련직/기술직

③ 자영업

④ 서비스/판매/영업직

⑤ 농/임/수산업

⑥ 생산/단순노무직

⑦ 주부

⑧ 학생

⑨ 무직/퇴직/기타
- BQ3. 귀댁의 한달 평균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자소득, 월세 등 모든 수입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만원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원 사후 기록사항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주소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2007년 6월 ____ 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에 관한 연구 -

2007年 12月 27日 印刷

2007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李 正 煥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 / 세븐스가든 2263-0066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